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46호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음력 6월 27일 · 불기 2555년 · 주간)

방이 수십 개라도 내가 누워 잘 곳은 한 칸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 묻힐 곳은 반 평이면 족합니다.

- 대구 파계사 율주 철우 스님



교단 재구성 필요

사부대중은 평등한가? 불교는 인도 카스트 제도에 반하여 일어난 혁명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불교에서 출가와 재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계급 구조에 가깝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7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출가와 재가 문제는 역할의 재분배가 아닌 교단을 재구성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가 매번 출 · 재가의 역할 문제를 고민한다면서 재가자에게 어떤 역할을 얼마나 허용해 줄까 하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소장은 "출 · 재가의 역할은 단순히 불자 전문인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출 · 재가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윤남진 소장은 출가자의 역할부터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사찰운영위원회를 예로 들어 사찰운영위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은 협의만 하게 하고 결정권을

출·재가 역할 분담에 앞서 교계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기존 관계로는 한계 다다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규모와 구조, 시스템, 보편적 의식과 문화수준, 리더십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윤남진 소장은 중앙종무기관(중앙)이 플랫폼사업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소장은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을 "(종단이)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완강하게 실행함으로써 그 규칙이 공통의 틀(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남진 소장은 "종단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집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열세인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출 · 재가가 함께 '(가칭)이타적 창업 투자은행'을 만들고, 사회법적 중재 효력을 갖는 분쟁중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자 일문 스님(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토론자 모두 출 · 재가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일문 스님은 발제문을 통해 "스님들이 종단운영을 전담하고 종무원들이 스님을 보좌하는 현재의 방식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토론자 성효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도 "이제는 같이 하자. 같이"라는 말로 출 · 재가자 역할을 재정립하자는데 동의했다.

토론자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출가와 재가의 올바른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신행과 경영의 이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고 8면 조동섭 기자



불볕더위도 잊은 삼보일배

김천 직지사는 7월 18~20일 '직지사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의 중 · 고등학생 7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 학생들은 불볕더위 속에서 각자의 서원을 담은 삼보일배를 통해 마음을 다졌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문화재청 승격시켜줬더니…" 불만 토로

조계종이 정부 · 여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는데, 문화재청만 변화가 없다는 논평을 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19일 대변인 정만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 · 여당이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의 보존 창달이라는 헌법 정신의 구현을 책임져야 할 문화재청만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은 강화된 권한과 권위는 취하고 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책임은 전가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계종은 최근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심사를 예로 들었다. 문화재청이 심사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지정이 보류됐다는 것. 조계종은 "연등회의 지정 보류 사유 또한 명확하지도 않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면서 "중국이 연등회마저 독점하려는 상황에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예산과 관련해 종교간 갈등과 왜곡된 시각을 방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통문화 관련 예산을 2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를 일부 언론은 '정부지원금 중 77%를 불교가 독식', '수천억 원

정부·여당 변했는데 문화재청만 변함없어 위원회에 책임 전가해서야

대의 특종종교 진흥자금' 등으로 표현하며 불교 달래기식 종교편향으로 보도했다.

조계종은 "전통문화 관련 예산의 종교편향 운운한 보도는 대부분 문화재청의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문화재청은 즉각 문화재 예산 내역과 전통문화관련 예산 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가의 예산이 불교를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것인지, 국가지정 문화재이자 소중한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것인지 당당히 밝히라는 주문이다.

조계종은 "만일 문화재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단지 불교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면 당장 그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불교 재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철회하고 불교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비판 배경에 대해 논평에서 "문화재청은 4대강 공사 현장 낙단보 마애불을 두고 지정 · 비지정, 국가문화재급 · 시도문화재급 시비에 우선했고, 개발 논리에 아무런 대응조차 못했다. 또, 석가탑에 균열에 능동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수장인 최광식 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시절 석가탑사리장엄구의 불교계 반환뿐만 아니라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의 불교중앙박물관 전시 등 불교계에 끊임없이 조력해온 인사이다. 또, 종단 내 문화재 관련 핵심 교역직 스님이 최 청장과 사제지간인 관계로 볼 때, 단순히 논평에 쓰인 대로 볼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논평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언급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는 기구이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행정 수반이지만 그 과정의 대부분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위원회 내 비불자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연등회 지정 심사에서 문화재위원인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이 제척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논평은 조계종이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두고 불심 달랠 수 밖에 없는 정부 · 여당과는 갈등을 그치고, 예산 집행 등 실무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잦은 문화재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동섭 기자

MB의 새주소사업 창씨개명 연상된다

실승·교불련·대불청, 새주소사업 중단 촉구

불교 지명을 말살하는 정부의 새 도로명 주소 시행을 중단하라는 불교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7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명 개편 작업이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승은 "주민 의견을 외면하고 전통문화 보존에 소홀한 도로명 개편이 일제 강점기 창씨개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실승은 또 총무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 지명 조사 작업에 착수하고,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항의방문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성명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특정 종교 시설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종교편향적 지침"이라며 "새 주소 시행의 강행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바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불교청년회도 "대국민의 정서와 문화재적 가치, 지역의 역사성,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는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은 민족전통(지명)문화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박기범 · 이상언 기자





846호 CONTENTS

인터뷰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3
현장속으로 김해 여여정사 백중음악제 5



특별기고 한국불교증흥대토론회 8
여름 특집 / 웰빙 11~14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16~17 前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





새로운 개념의 여성의류판매점 &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전국 지사 및 대리점 모집

상표출원 : 41-2011-0020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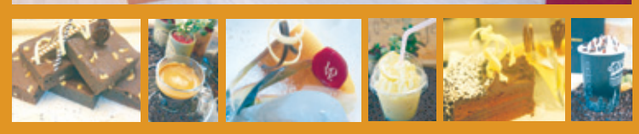
불자여러분!
귀의삼보하오며
상생을 넘어 공생으로서 공심으로 무주상보시를 이루는 그날까지
패션카페를 벗삼아 재료삼아 함께 울고 웃고 해나가실 도반을 모십니다.

재고가 전혀 없는 옷가게 패션카페
본사에서 매주 재고는 거두어가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급함으로서
대리점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좋은 원두 커피와 다양한 메뉴를 거품없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여성의류와 패션잡화 등의 판매수익으로 수익성은 많이 높아집니다.

저렴하고 실질적인 인테리어 패션카페
유행따라 인테리어를 바꾸시지 않아도 되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분위기로 설계하여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 사 : 점포 100m2 이상 / 대리점 : 점포 30m2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6-5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www.fashion-cafe.co.kr

전화문의 : 070-7759-0852 , 02-584-0543

서산 대사 최우선으로

해남 대흥사 주지 재임한 범각 스님



"서산 대사의 제향을 종단적 · 국가적 사업으로 승격시키는데 진력하겠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의 제22대 주지에 범각 스님(사진)이 연임됐다. 스님은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 수여 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각 스님은 "현재 조계종도들은 모두 서산 대사의 문하라 할 만큼 서산 대사는 조선시대 불교 법맥을 잇는 중요한 분이었다. 일본 강점기 이후 단절된 서산 스님의 국가 제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서산 대사 선양사업은 대흥사의 숙원 불사라고 말했다. 특히 서산 대사의 선양은 대사와 함께 활약했던 승군에 대한 추모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임진왜란 당시 5000여 무명의 승군은 낮에는 절을 지키고 밤에는 수군에 합류해 왜구를 물리쳤다.

범각 스님은 "의령군에는 매년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주일 동안 여는 '의병의 날' 행사가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승군으로 활약한 5000여 무명의 승군은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임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통제사였지만, 서산 대사는 '팔도' 십육종도총섭이었다. 그런데도 TV에서 '불멸의 이순신' 이 방영됐을 때에도 승군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범각 스님은 최근 조계종 불교사회문제연구소(소장 법안)에 의뢰해 8 · 9월 서산 대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최근 출간된 소설 〈서산 대사〉도 범각 스님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스님은 이 외에도 다양한 선양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범각 스님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서산 스님의 유물관이 낙후돼 항온항습이 되질 않는다. 유물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현대적 설비를 갖춘 시설로 개비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회향되려면 문중 · 문도 · 대중간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지 재임도 불사의 연속성을 위한 문도들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범각 스님은 대흥사 총무 시절부터 불교대학을 준비하는 등 척박한 호남불교의 지형을 바꾸는데 앞장서왔다. 스님은 한듬거사회와 보살회 등 신도조직을 정비했다. 신도조직의 정비는 대흥사가 지역 복지의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대흥사는 현재 해남군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빵집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빵집 '워킹맘 베이커리' 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로 대흥사만의 복지시설 중 하나이다.

범각 스님은 "서산 대사 등 구국의 삼화상(서산 · 사명 · 영규 대사)은 임진왜란 당시 호국이 아닌 호법의 활동을 펼쳤던 선지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각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7년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하고,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범각 스님은 총무원 사회국장 등을 역임하고 재심호계위원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이번엔 총무원장·종회의장 탄핵시도

태고종 임시중앙총회

태고종이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종회의장 영우 스님의 탄핵안으로 또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태고종은 7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106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제적 53명 중 41명의 의원스님들이 출석해 성원됐다.

회의가 시작되자 대은 스님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장 탄핵안' 을 제출했다. 이어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신상발언을 통해 탄핵안 처리를 주장하다 종회에서 퇴장 당했다.

격론을 벌였던 탄핵안 긴급동의는 제청한 대은 스님이 폐회를 앞두고 철회해 헤프닝으로 그쳤다.

선암사특위 위원장 지담 스님은 "순천시장을 재산관리인에서 배제시킨 것은 조계종에 놀아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조계종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선암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참여한 스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58년간 지속된 선암사 분규를 종식시킨 공로를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종회에서 이렇게 거센 비판이 일어날지 몰랐다"며 특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종회는 종회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결의했다.

경찰 수사 중인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사 추천안은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종회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 중앙종회의장 영우 스님, 중앙사정원장 운곡 스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법암 스님 등 4명을 이사로 추천했다. 인공 스님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은 스님, 긴급동의 발의

운산 스님도 강력히 주장

결국은 폐회 앞두고 철회

추천됐다. 하지만 운곡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종단의 동방대학원대학교 운영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이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사 추천을 거부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이날 ▷종헌 개정안 ▷총무원 부장 임명 동의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임기는 4년 단임제로 개정됐다. 종전 중앙종회를 통해 선출됐던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원과 지역별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종회의원은 53명에서 61명으로 늘리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극단적인 소신공양보다 환경운동을

7월 14일 환속한 승려가 문수스님 부도탑 앞에서 분신한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부루나 회원들은 분신한 승려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그러면서도 "소신공양은 극단적인 방법이다" "소신공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소신공양대신 적극적으로 불교 환경운동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등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S씨는 〈법화경〉의 구절을 예로 들며 "일체중생희견보살은 삼매를 얻어 큰 환희심으로 소신공양했고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찬탄을 받았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마음아파하고 있지 않나. 소신공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J스님은 "소신공양도 좋지만 목소리 한번 내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괜한 목숨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J스님은 "마지막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그간의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환경파괴의 현장을 고발하고 연대를 통해서 목소리의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며 지율 스님을 예로 들었다. J스님은 "지율 스님은 수많은 보수언론들과 개발주의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당당하게 단식도 하고 세상을 향해 고발했다. 그로 인해서 불교의 환경운동이 발전했고 불교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소신공양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신중히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S씨는 "그분들이 유서를 남겼지만 '소신공양 하겠다' 는 언급은 하지 않았으니 제3자의 입장에서는 '소신공양이다, 아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극단적 방법을 택하게 한 현실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C씨는 "극단적인 방법인 만큼 그들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도록 내모는 그 원인을 속히 멈추도록 해야한다"며 "고통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야속하다"고 말했다.



천태불자, 평창올림픽 성공 '일심발원' 천태종 춘천 삼운사(주지 도웅)는 7월 21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김학송 천태종 중앙신도회장(국회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선 특임대사(前 강원도지사)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정산 스님(오른쪽 두번째) 등 내외빈이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떡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모습. 노덕현 기자

인권활동한 스님 제재는 부당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던 론 소왓(Loun Savath) 스님이 캄보디아 교단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자 한국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정웅기)는 캄보디아 불교 종정 논 응엣(Non Nget) 스님에게 이번 조처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담은 항의서한을 7월 22일 발송했다.

론 소왓 스님은 장기화된 토지분쟁으로 쫓겨난 주민들을 지지하고 프놈펜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캄보디아 교단은 론 소왓 스님이 계율을 어겼다며 지역 내 사찰 거주 등을 금지시키라는 명령 서한을 프놈펜 승려 사무국에 4월 26일 발송했다.

캄보디아 종정 논 응엣은 명령 서한에서 "론 소왓은 불교승려회의 공지 등을 위반했다. 또한 자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했기 때문에 불교 규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프놈펜 사원에 기거하는 것을 불허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불교 승려회 공지 제98호는 시위를 조장하는 모든 형태에 대한 승려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승려 포고문 제13호는 합법적인 승인없이 승려가 집회, 시위, 폭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론 소왓 스님은 승려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론 소왓 스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캄보디아의 수많은 토지분쟁 현장에서 강제 퇴거로 괴로움을 당하는 시민들을 돕고 부패와 맞서 싸워 왔다. 그런 스님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사원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은 비인권적이고 가혹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캄보디아 불교계가 론 소왓 스님에 대한 추방 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승직 박탈 등 일체의 제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박구원 만평



세계 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정적 특장(人情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은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 가 '최고' 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 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기나긴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회만 있으면 눈이 벌게 유치하느라고 장 세월에 국력을 쏟아 부어 왔던 합리화된 모리정치놀이에 국민의 넋을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 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 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이나라의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학교교육에서〈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루고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화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최고의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국민상** (國民像) **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서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도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상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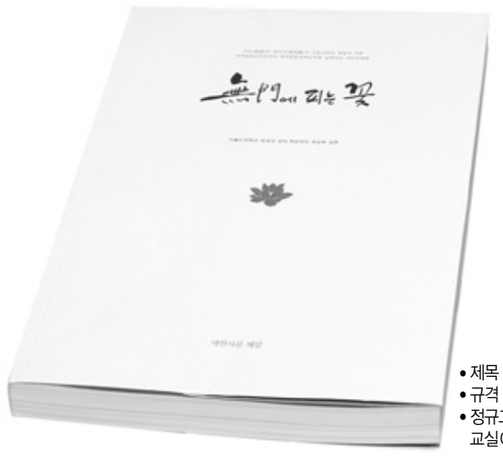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게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 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락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 문명을 선도(先道)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 (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료 = 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合掌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13(호병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꽃
- 규격 : 26㎝ × 19㎝,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 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천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실 **教育志士**(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 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활은 설립이후 〈3년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

격조 있는 행동과 예절로 헤아리니… 通 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제2기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장에 선출된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명원다례전수관에서 다례 시연을 보이고 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71)은 조선왕실의궤의 귀환을 누구보다 기다려 왔다.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궁중다례보유자인 그는 올 3월 국립민속박물관회 회장에 취임한데 이어 7월 1일 제2기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장에 위촉됐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되찾기 운동을 하며 쌓은 내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는 2009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각계각층 인사 34명의 시민위원은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반환운동을 한다. 특히 서울시의회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의 경험과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이 결합해 문화재찾기 운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그 핵심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있었다.

7월 13일 서울 성북동 명원다례전수관에서 김의정 회장을 만났다. 인터뷰가 진행될 때만해도 4월 반환 확정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이 없던 때였다. 김 회장은 조선왕조의궤가 오고 난 후 인터뷰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왜 그렇게 주기 싫어하는지…. 제일 큰 문제는 의궤가 왕실에 있다는 거에요."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살가운 투정으로 드러냈다.

김의정 회장이 문화재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중앙신도회장 취임 이듬해인 2006년부터다.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월정사 정념 스님, 봉선사 혜문 스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원웅 前 의원 등으로 구성된 환수위는 4월 일본 의궤 반환 확정을 얻어내기까지 일본을 40여 차례 드나들었다. 김의정 회장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할 때에는 여비를 지원하며 문화재 되찾기에 힘을 실었다.

노력 끝에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한국도서의 한국 반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이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통과됐다. 6월 10일 협정 발효에 이어 외교통상부는 7월 18일 궁내청에 보관된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실무협의가 8월 초 진행됨을 알려왔다. 89년 만에 빼앗겼던 역사를 되찾게 된 것이다.

"처음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2007년 환수위 혜문 스님은 서울 중앙지법에 일본왕실과 정부를 상대로 의궤 반환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어요.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에 대한 헤이그 조약에 의해 일본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소장의 송달은 거부할 수 있다며 소장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모두들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냐는 분위기였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조선왕실의궤 되찾기 운동은 경술국치 100년의 해인 2010년 8월 환수를 목표로 진행됐다. 일본 왕실 소장 문화재 반환은 어려움을 각오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에 문화재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문화재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은 민간단체인 환수위의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문화재 반환 청구권을 포기 하지 않았던 북한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교류를 하기도 했었다.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중 가장 어렵고 상징적인 것이 의궤였어요. 의궤 환수가 약탈 문화재 환수운동의 전형, 모범이 될 것이라고 봤기에 지칠 겨를 없이 계속 밀고 왔죠. 우리 것을 되찾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없었어요."

>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는
> 감동이 필요해요.
> 더 이상 지식만으로
>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의
> 열쇠가 감동이었던 것처럼
>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보급
> 문화재 6만여 점을 되찾으려면
>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일본왕실 소장 의궤 되찾기 어려움 각오했지만 만만치 않았다 의궤 환수위해 북한과 연대하기도

왕실에 소장돼 있어 할 수 없다는 의견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다. 김의정 회장은 전략을 바꿨다. 무조건 우리 것이니 달라고 해서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의정 회장은 정치적인 협상보다는 감성을 건드리는 섬세한 외교술을 펼쳤다. 어린 시절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들이 예절을 중시 여긴다는 것을 알았고, 김 회장이 궁중다례를 전수했다는 사실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 전통다도에는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인들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예절이 없으면 무시를 하거든요. 격조 있는 행동과 예절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의정 회장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과 쉬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했다. 일본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선물을 주고받는 점에 주목했다. 또 문법을 갖춘 일본어로 대화하고, 즐겁고 예절을 갖춘 식사자리 등 놓치기 쉬운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마음을 연 후 조선왕실의궤로 화제를 돌려 다가갔다.

"일본이 선진국이고 문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했어요. 민족 문화재는 잠재울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인본을 찍어서 모든 학자가 연구해서 세계적인 문화를 전 세계가 알리는 문화국답게 말이죠."

김 회장과 환수위의 이같은 태도에 일본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는 감동이 필요해요. 더 이상 지식만으로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의 열쇠가 감동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보급 문화재 6만여 점을 되찾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김의정 회장은 최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학생이 "남의 나라에 잘 보관돼 있는 문화재를 굳이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환수운동의 필요성에 반문을 했다는 것이다.

모두 '불가능' 이라 했을 때 마음 움직이는 전략으로 가능성 키워 역사 의식 바로 잡는 일 계속 나설 것

"우리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과연 했을까요. 문화재나 우리전통 문화를 국보급 청자 백자나 왕실의 문화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찾기시민위원장으로서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계획입니다."

김의정 회장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태어나면서 부터다. 관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데에는 김의정 회장의 어머니 故 명원 김미희 여사와 쌍용그룹 창업자로 기업을 경영하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예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제에 의해 흩어진 우리 문화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전통다례를 이어가도록 외조를 했다. 6남매 중 유난히 허약했던 김의정 회장은 밖으로 다니기 보다는 어머니 곁에서 보고 배웠다.

"차 주전자 뚜껑 하나 여는 것을 가지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당신의 대를 이어 다례를 전수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 안한다' 며 땍땍거렸어요. 어머니에게 사랑 받고 싶어서 투정 부린 거죠. 어린 마음에 중요성을 모르기도 했고요. 이제 와 보니 정말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김 회장을 문화재 되찾기 운동의 현장 뒤에서 남모르게 일해 왔다. 그래서 그를 숨은 공신이라고 한다. 김 회장은 "부모님은 자신들의 불사(佛事)를 자식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남몰래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알아준다고 믿고 있어요. 문화재 되찾기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 억지로 되는 것도 없고 부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제자가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할 뿐이죠." 이상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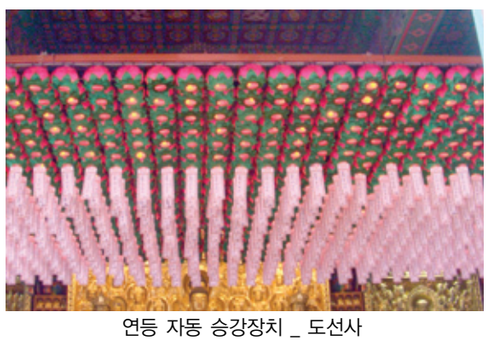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일 주 문



월정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9일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새평창포럼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여름캠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8월 16~18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02)723-5101



동국대 경주캠 정각원, 템플스테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원장 화랑 스님은 8월 3~5일 '가족과 함께 교육요람에서 체험하는 사찰문화'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54)770-2915



진흥원 수요법회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7월 2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수(數)를 알면 불교가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수사 성지순례
구미 문수사 주지 혜철 스님은 8월 17~23일 '부처님을 찾아서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불교성지' 행사로 성도, 티벳, 아미산, 낙산 대불 탐방을 개최한다.



국민연금 조계사서 노후설계 강좌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7월 21일~8월 11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노후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02)397-9532

〈인사〉 10·27지원단장에 최동식 전력정책과장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장에 최동식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7월 18일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장에 최동식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을 임명했다.

최동식(56) 신임 10·27명예회복 지원단장은 국방부 방산지원과장을 비롯해 예산운영과장과 전력정책과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홍주연 금강대 졸업생 국비유학 장학생 선발

올해 세계적인 명문인 미국의 조지타운대, 듀크대, 뉴욕대 대학원에 연이어 합격한 홍주연 씨(2009년 금강대 졸업생, 영어통역전공)가 2011년 국비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홍주연 씨는 9월부터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에서 분쟁해결학(Conflict Resolution)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화쟁의 실천자 되겠다

박범훈 청와대 불자회장



"화쟁의 실천자로 온 국민이 화합해 종교인들이 존경받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청와대 불자들의 모임인 '청불회' 제14대 회장으로 박범훈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사진)이 7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취임법회를 열고 취임했다.

"청불회장이라는 영광에 오늘처럼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없다"고 말문을 뗀 박범훈 청불회장은 불제자로서 국민화합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박 회장은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이며,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자비와 화합의 기운이 온 나라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화쟁(和諍)의 실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종교와 신앙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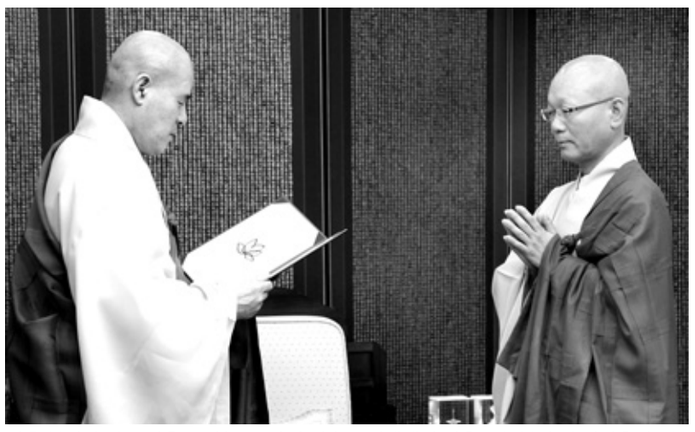
박범훈 청불회장은 그동안 예술가와 교육자로서 문화 예술계에서 불교문화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는데 앞장서 왔는데 현재 찬불가로 불리는 '보현행원송'과 같은 교성곡과 '찬미의 나라' 등의 찬불가를 직접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국불교음악사 연구〉를 내고 불교음악사를 정립하기도 했다.

최근 불교계와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박 회장은 "사람들이 흔히 청와대를 권력의 중추라고 하지만 청불회원들은 단 한 차례도 권력의 행사가 저희들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제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간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 수립 또한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가 되길 바랬다"며 "대통령의 곁에서 교육과 문화, 특히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 인공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주요 종단의 스님과 청와대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법어와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의 격려사와 축사, 前 청와대 불자회장인 홍상표 前 홍보수석에 대한 공로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오른쪽)이 자승 스님에게서 민추본 본부장 및 결사추진본부 상임운영위원 임명장을 전달받고 있다.

결사추진본부 상임운영위원 위촉

지홍·법안·홍선·미산 등 7人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상임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상임운영위원은 지홍 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흥선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미산 스님(서울상도선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지홍 스님(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신명 중앙신도회 부회장, 임완숙 前 교사불자연합회장 등 7명이다. 또, 민추본 본부장에 지홍 스님이 임명됐다.

이어,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원타 스님(문경 봉암사 주지), 성행 스님(의왕 청계사 주지),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법진 스님(前 해인사승가대학장), 해강 스님(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명법 스님(서울대 강사), 우희종 서울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장, 지용현 순천 송광사 신도회장 등 9명에게 결사추진본부 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청각장애인 위한 한글학교 설립 추진

엄재면 원심회 회장



"청각장애인들의 한글교육이 절실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문서작업은 물론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계사 장애인 포교단체인 원심회 엄재면 회장과 봉사자들은 최근 큰 충격을 받았다. 2006년부터 원심회 활동을 하면서 어깨가 빠지도록 수화로 전달을 했지만 회원들이 받아들인 내용을 알아들은 것은 거의 없었음을 알았다.

7월 초 법회에 참석하는 원심회 농아인을 대상으로 이주민 한글교육 교재에 나오는 기본 30문항으로 테스트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50%가 되지 않았다. 그 중 27개를 맞춘 이는 1명, 3개를 맞춘 회원도 5명이나 나왔다. 결국 수화로 전한 부처님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청각장애인 스스로도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청각장애인들은 기본 한글교육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 거의 한국어를 모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해결해야하는 기본적인 문서작업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국어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 수화 습득능력이 떨어지고 구사능력이 떨어진다. 이렇다보니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끼리 문자를 보내고 서로 오해를 하고 싸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청각장애인과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늘어 한글교육이 시급해졌다. 아이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또 다른 소외를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재면 회장은 올 9월부터 시범적으로 농아인 한글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한다.

학교교육과정은 한글반과 기초한자반, 경전독해반으로 나눠 초등학교 이상의 독해와 작문실력을 갖추고 한글불교경전을 읽고 독해 가능한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학교운영이다. 교육공간과 강의료 등 운영비가 최소 연 2000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후원도 줄고 살림살이도 빠듯한 실정이지만 엄재면 회장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글 경전을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불자에게 포교할 수 있는 포교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02)720-4528 **이상언 기자**

롯데 간판스타, 불교 간판스타 되다



조계종 홍보대사 이대호 선수

롯데 자이언트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조계종 신도등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위촉식을 갖고, 이대호 선수를 신도등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포교원은 "이대호 선수는 2006년 종단 신도로 등록해, 신도증을 발급받았으며, 평소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선행활동으로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2009년 방송인 이수근, 2010년 산악인 엄홍길에 이어 종단 신도등록 확대를 위해 이대호 선수를 세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

이날 이대호 선수는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닌 지도 20년이 넘었다. 수행과 참선은 운동을 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앞으로 많은 사찰을 다니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다. 또한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2011년 연수교육 강좌 안내

과정	강좌명	강사	일정	신청마감	교육비
사찰운영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이점수(법무사), 김이곤(음악감독) 외	7.25~29 10.12~16	마감 10.2	35만원
	스피치능력향상과정	김이곤(음악감독)	9.7~9	9.2	20만원
	사찰농지임야활용	김진혁 외(전 초록넷 부대표)	9.22~24	9.16	20만원
	사찰부동산의 보존과 활용	재무부, 이점수(법무사)	10.5~7	9.30	20만원
전법향상	신도상담지도과정	담교스님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10.17~19	10.12	20만원
	불교문화유산·콘텐츠활용	이재수 (동국대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11.5~7	10.31	20만원
	불교 심리치료	서광스님(동국대 겸임교수)	9.28~30	9.23	20만원
불교교학	선요	지안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9.1~3	8.25	20만원
	임제록	대각스님(전 범어사 강주)	10.10~12	10.5	20만원
	경덕전등록	-	10.16~18	10.11	20만원
	육조단경	-	10.24~26	10.19	20만원
	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우희종(서울대 교수)	10.21~23	10.17	20만원
	불교와 자연과학	김성구(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시우(서울대 명예교수)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8.21~23	8.16	20만원
	중론	김성철(동국대 교수)	8.17~19	8.12	20만원

[유의사항]
-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이 10.12(수)~16(일)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연수교육 강좌의 내용 및 강사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연수교육 강좌는 적정 인원이상 신청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11년 연수교육 자원봉사활동 안내

아래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셔도 연수교육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 활동시간 : 총18시간(사전교육3시간, 자원봉사활동12시간이상, 활동평가3시간)
■ 활동내용 : 생활지원(식사, 목욕, 세탁, 간병, 이·미용 등), 교육지원(학습지도 등), 정서지원(말벗, 안부전화, 상담 등), 사회활동지원(사회적응훈련, 차량지원, 외출동행 등), 여가선용(각종 취미활동 등), 각종행사보조(캠페인, 바자회 등), 재해복구현장지원 등
■ 사회봉사 활동신청 : 아래에 게시된 각 지역 사회복지봉사활동 기관으로 신청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봉사활동 기관

■사회복지관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거제시 양정동 208-4	055-636-0303
2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4-4	063-561-1185
3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7 과천타워내	02-507-6319
4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56-7	02-852-0522
5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궁동 108-9	02-2613-9367
6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경북 구미시 도량동 666-7	054-458-0230
7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70	031-989-8271
8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문경시 모전동 870	054-555-0108
9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문수동 797	061-652-4242
10	백천사회복지관	경북 경산시 경청로 115	053-811-1347
11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본동 16-3	02-817-8052
12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상주시 냉림동 78	054-532-5687
13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1603-1	062-941-8248
14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65-1	02-831-2755
15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6-18	02-376-4141
16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93-2	031-775-7741
17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5	031-201-8300
18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옥수2동 204-8	02-2282-1100
19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우산동 633-1	062-266-3853
20	자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1-2	02-458-1664
2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현충공원길89	02-2687-0453

■장애인복지 시설

1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1	033-644-9442
2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40-4	033-643-1801
3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북구 번동 306-12	02-989-4214
4	거창군삶의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	055-945-2014
5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경주시 황성동 792-1	054-776-7522
6	광산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95-1	062-943-0420
7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398-1	
8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1	031-396-3108
9	문수마을	경북 영주시 문수면 대암리 541-11	054-635-3554
10	여주군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199-4	031-883-2100
11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1	02-3667-0870
12	영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영주시 이산면 원리 824	054-633-6414
13	영주보현마을	경북 영주시 문수면 대암리541-8	054-635-3555
14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9-1	054-633-6415
15	영주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경북 영주시 영주2동 554-12 2층	054-634-3251
16	의왕시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590-1	031-477-8510
17	자광원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1146-1	064-738-5040
18	제천장애인복지관	충북 제천시 청전동 110(의림대로 436)	043-652-0900
19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4-2	061-536-6311
20	홍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270-25	033-435-7031

■노인복지시설

1	경북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예천분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3-38 3층	054-655-1389
	경북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김천분관	경북 김천시 평화동 245-103 2층	054-436-1390
2	고창군노인복지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4-4	063-561-1185
3	고창군노인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4-4	063-561-1185
4	광진노인보호센터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78	02-458-0350
5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64-15	02-466-6242
6	금오노인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702-4	054-472-0408
7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70	031-989-8271
8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1	031-573-6598
9	당진군노인요양원	충남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620-25	041-353-4042
10	대전서구노인복지관	대전시 서구 탄방동 1084	042-488-6297
11	동여수노인복지관	전남 여수시 국동 688-1	061-643-1966
12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0-3	02-739-9501
13	서호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1	031-291-0911
14	송산노인복지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736-2	031-852-2595
15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2	02-415-0056
16	신륵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98-5	031-885-5275
17	신안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69-184	061-271-6100
18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61-8	02-900-4641
19	여주군노인복지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351-4	031-881-0050
20	여수시노인복지관	전남 여수시 학동 65	061-685-2381
21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85-5	041-334-2901
22	의성군노인복지관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31-2	054-833-6006
	의성군노인복지관분관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88	054-861-1377
23	자인원(공동생활가정)	전남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427	061-433-5664
24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5-1	02-742-9500
25	합천댐호니눔복지센터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700-28	055-933-0595
26	황숭노인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79-7	031-731-5521

■지역자활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

1	광산구지역자활센터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1124-23	062-941-1634
2	남양주시니어클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578-1 다와프라자 206호	031-575-6080
3	대전시니어클럽	대전시 서구 탄방동 1085	042-471-5545
4	문경지역자활센터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9-2	054-554-0408
5	상주지역자활센터	경북 상주시 남성동 50 1층	054-536-6580
6	여수지역자활센터	전남 여수시 공화동 1299	061-662-4402

■아동·청소년 시설

1	구미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 구미시 도량동 666-7	054-458-0230 054-455-1391
2	남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다남빌딩 204호	031-592-9818
3	남양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다남빌딩 203호	031-591-1319
5	쌍문3동방과후교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138-40	02-900-8501
4	목동청소년수련관	서울 양천구 목동 918	02-2642-1318
6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12	02-838-1318

■청소년 독서실

1	거여청소년독서실	서울 송파구 거여2동 181	02-431-1425
2	답십리청소년독서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 465-80	02-2243-3648
3	동대문청소년독서실	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300	02-2247-3120
4	월곡청소년센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3동 산2-1	02-918-3543
5	전일청소년독서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3-112	02-2241-9836
6	금호청소년독서실	서울 성동구 금호1가 산37	02-2299-4214
7	상계2동공부방	서울 노원구 상계2동 194-28	02-934-2118

■건강가정지원센터

1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65-1 4층	02-2678-2193
2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596-2 동부여성센터 3층	02-764-3525
3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62-2	02-435-4142

■노숙자시설

1	부산보현의집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21-6	051-506-0146
2	서계보현의집	서울 용산구 서계동 245-25	02-711-7735
3	수송동보현의집	서울 종로구 수송동 31-1	02-737-4894
4	영등포보현의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1	02-2069-1601

■기타시설

1	궁동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구로구 궁동 157번지	02-2616-0157
2	광진푸드마켓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32-68	02-499-1377
3	남양주북부희망케어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96-10	031-528-4071
4	보현데이케어센터	종로구 평창동 562-14	02-394-5511
5	서울숲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85-54 광명빌딩 1층	02-464-4477
6	영희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12-6 양지빌딩 5층	02-497-8252
7	행복나눔푸드마켓		

■어린이집

1	광이어린이집	경기 광명시 광명2동 62-19	02-2619-9452
2	구로연꽃어린이집	서울 구로구 구로3동 777-1	02-852-5332
4	금룡어린이집	서울 송파구 마천2동 44-7	02-401-1774
5	낙산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창신동 611-19	02-765-1268
6	다사랑어린이집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95-2	041-673-4875
7	단원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9-6	031-401-9585
8	대청어린이집	서울 강남구 일원동 675-1	02-445-2630
9	롯비니동산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90-27	031-655-6464
10	미림어린이집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300-7	02-878-6150
11	미지어린이집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93-2	031-775-7746
12	반야어린이집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24-13	02-2631-9792
13	사당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132	02-533-7155
14	산청어린이집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65-2	055-974-0350
15	성내삼어린이집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6-30	02-470-2433
16	신륵사연꽃어린이집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231-8	031-884-0608
17	신재어린이집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231-8	031-886-7352
18	신안어린이집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33-7	055-973-9970
19	신일어린이집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65-1	02-846-8674
20	쌍문3동어린이집	서울 도봉구 쌍문동 138-40	02-990-3261
21	아나율어린이집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56-7	02-852-1628
22	옥수연꽃어린이집	서울 성동구 옥수2동 204-8	02-2282-1105
23	우석장애아어린이집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775-1	061-751-0877
25	중대사연꽃어린이집	경북 봉화군 봉화읍 상계리 65-4	054-673-9108
26	창일어린이집	서울 종로구 청신동403-17	02-763-3358
29	해나라어린이집	서울 양천구 신월4동 425-2	02-2607-0053
30	행화어린이집	서울 마포구 아현동 738 프라펠리스2차 208호	02-393-0409
32	환희어린이집	서울서대문구남가좌2동342-32	02-306-7518
33	효자어린이집	서울 광진구 자양3동 527	02-2201-0558
34	흑석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흑석동 252-46	02-813-9598
35	행신그린어린이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47	031-978-5333
36	영통어린이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5	031-202-2737
3	구민회관어린이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2	02-2678-5685
24	정릉1동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정릉1동 966-100	02-917-3867
27	풍기어린이집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6리 401-1	054-636-8016
28	합동마을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1-158	02-931-0219
31	화승어린이집	서울 광진구 화양동 32-3	02-468-2336

■노인요양시설(유지재단)

1	고운실버노인요양원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22	054-833-1254
2	동화사노인요양원	대구시 동구 도학동 159	053-985-2115
3	백암실버타운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649-62	061-333-5621
4	불국성림원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213-1	054-746-9900
5	영은원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499	041-734-9331
6	월정사노인요양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6	033-334-9595
7	은해사포근한집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122	054-335-3314
8	직지사노인요양원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37	054-431-9801

願往生 원왕생… 찬불가에 법당은 울음바다

김해 여여정사 '제1회 백중음악제'

'어머니 보고파서 그 자리에 다시 서니 구름은 흘러와서 내 몸만 태워가네, 이제는 한 송이 꽃이 되신 내 어머니, 이제는 보지 못할 아주 가신 내 어머니'

백중 49일 영가천도기도 중인 경남 김해의 어느 법당에 찬불가 '어머니'가 울려 퍼지자, 기도를 집전하던 주지 스님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200여 기도 동참자가 모인 법당 안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염불이 아닌 찬불가 합창으로 유주무주 고혼에게 음성공양을 올려 백중 기도를 대신하는 이색법석이 한국에서 최초로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에서 열렸다.

경남 김해시 삼계동 여여정사(주지 도명)는 백중 영가천도 49재 중 3재인 7월 18일 경내 대법당에서 '제1회 백중음악제'를 봉행했다.

음력 7월 보름을 일컫는 백중은 속가에서는 추석의 한 달 전을 지칭하지만, 불가에서는 하안거의 회향일로 부처님오신날 다음으로 큰 명절이다. 이 기간 사찰에서는 백중 49일간 일곱 번의 재를 지내며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이때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기도에 임하고 있어 이번 음악제는 더욱 특별하다.

오전 10시 백중기도에 동참한 200여 명의 신도들은 〈금강경〉을 소리 내 읽는 독경 천도와 지장보살 정근을 통한 염불 천도, 〈신묘장구대다리니〉 주문을 외우는 주력 천도기도 등 다른 사찰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기도에 동참했다. 이윽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휴식시간 없이 곧바로 '백중음악제'가 이어졌다.

주지 도명 스님은 특별히 1부 순서가 끝날 때까지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총 2부로 나눠진 음악제 중 1부는 망자를 위한 순서인 만큼 백중 3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찬불가 속 가사를 음미하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마음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백중 7재 중 음악으로 제를 지내는 것은 여여정사 찬불가교실을 지도하는 정성민 교수(동의대 음악학과, 청공중창단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정 교수는 백중기도 기간 중에는 사찰에서 문화행사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해,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기도에 동참한 이들에게 환희심을 북돋아 줄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의 지휘 아래 여여정사합창단과 청공여성중창단은 합창을 통해 유주무주 고혼과 기도에 동참한 200여 사부대중에게 음성공양을 올렸다.

1부 영가를 위한 음악제에서는 '제불보살님' '유주무주 조상연가' '얼굴' '향을 사르러 몸을 태워 구름 걷힌 달처럼' '어머니' 등이 차례로 노래됐다. 특히 찬불가 '어머니'와 '향을 사르러 몸을 태워 구름 걷힌 달처럼' 등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곡들은 불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심어줬다.

김필화(법명 여진혜, 51) 씨는 '어머니'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김 씨는 "매년 백중기도에 동참하는데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재는 처음"이라며 "한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와 나의 마음이 동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예승(藝僧) 조월 스님의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직접 제작한 36현 개량가야금과 피리로, 영가의 넋을 달래는 즉흥곡을 연주해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조월 스님은 20여 년간 양산 영축산 자락

염불 아닌 찬불가 부르며
지극한 마음으로 음성공양
영가천도와 복전 쌓는 일
기도 동참자 모두 한마음

의 토굴에서 칩거하며 음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뿐 아니라 여러 찬불가에도 담겨있는데, 오늘 사부대중이 다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음성공양 속 법문을 유무무주고혼이 새겨듣고 감화했을 것"이라며 "백중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오늘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노래하면 크나큰 복전을 쌓는 일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1부 순서가 망자를 위한 음악제였다면 이어진 2부는 살아있는 이들, 즉 기도에 동참한 이들의 앞날을 축원하는 생전예수음악제였다.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한 2부 순서에는 '동백섬', '박연폭포',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 '당신의 미소' '사랑이여' 등 익숙한 대중가요 합창이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곡인 '사랑이여'에서는 모든 기도동참자가 일어서서 합창하는 것으로 백중음악제의 대미를 장식됐다.

처음 백중기도에 동참한 최은영(법명 반야자 · 25) 씨는 "초발심자라서 기도 중에 외우는 독경이나 주력, 염불 등을 따라 하기 어려웠다"며 "음악제에서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음성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대신할 수 있으니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음악제가 끝난 후 사부대중이 함께 장엄염불을 독송하고, 영가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는 것으로 백중 3재를 회향했다. 200여 대중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정과 직장에서 백중음악제의 선근공덕을 나누는 것으로 백중 3재 기도를 다시 회향했다.

박지원 기자



청공여성중창단과 찬불가 교실 학생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기도 동참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백중영가천도기도 음악회로는 전국 최초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찬불가의 가사는 부처님 법음으로 이뤄져있고, 경전을 영가님에게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음성공양으로 법음을 들려드린다면, 경전독송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공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음악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백중영가천도기도 동안 음악회의 형태를 빌어 제를 지낸 것은 김해 여여정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다. 염불을 비롯해 절, 참선, 사경 등 수행은 정적이고 진지한 것이라는 편견을 탈피해, 음악이라는 감성적 요소에서 수행의 목적인 심연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도명 스님은 "사실 백중은 영가들을 위한 정화와 해탈이 공존하는 축제로, 절대 무겁거나 어둡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1부에서 망자를 위한 진혼곡을 노래했다면, 2부는 생자를 위한 해탈음악회로 진지하면서도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이번 음악제는 기도에 동참한 많은 신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감성코드를 접목한 문화제전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스님은 "찬불가 이외에도 선서화, 아로마테라피 등 육근육식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과 만날 수 있는 수행의 방편은 많다"며 "앞으로 미래불교는 봉사와 자성, 문화를 통한 포교에 역점을 두고 불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교가 절실한 만큼 내년에는 생자를 위한 2부 순서에 집중해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추가 개설 안내

● 일 시 : 10월 12일(수) ~ 16일(일)
(음력 9월 16일 ~ 20일), 4박 5일

● 장 소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 소재)

● 강좌 세부 내용
신임주지의 역할과 책무, 포교전략과 활성화 방안, 사찰 총무재무회계, 사찰부동산등기의 실제, 불교관련국가법령의 이해, 설법능력향상과정, 현대적 사찰불사 어떻게 할 것인가? 사찰세무, 국고보조금 절차와 방법, 사찰 자원봉사활동 등

● 접수방법
①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우측 '연수교육' 배너로 접속하여 신청
②교육원 연수국 02)2011-1807~9

불기 2555년 연수교육 안내

불기 2555(2011)년 연수교육이 7월 **현재 2천여 명의 스님들의 접수와 참여**로 원만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첫 시행된 상설 연수교육이 이제 많은 스님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점차로 자리잡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스님들께서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말사 주지스님들께서는 개설된 강좌 중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각종 강좌와 자원봉사활동을 연수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오니, 스님들께서는 원하는 강좌와 자원봉사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 음 -

▮교육대상 _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2011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③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및시간 _ ① 일반연수과정 2박3일 12시간 이상(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4박5일)
② 자원봉사활동 총 18시간 이상

▮교육장소 _ ①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마곡사 인근)
② 각 자원봉사활동 기관 (별도 주소록 참고)

▮접 수 _ ①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접수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 빠른 접수를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 초기화면 우측 배너 (연수교육 신청) 클릭 ⇒ 연수교육 홈페이지에서 접수)
② 교육원으로 직접 전화(02-2011-1807~9)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 육 비 _ ①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② 승납 10년 미만으로 주지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들께 모든 연수교육과정 교육비중 5만원을 감액합니다.
③ 교육과정을 2개 이상 신청하시는 스님들께는 2회차부터 교육비를 5만원 감액합니다.
④ 승납 10년 미만이면서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스님들은 10만원을 감액합니다.
⑤ 자원봉사활동은 교육비가 없습니다.

▮교육비납부방법 _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입금 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납부시 반드시 속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명으로 납부시에는 전화를 별도로 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의 처 _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02-2011-1807~9 / 팩스) 02-732-4926

불기2555(2011)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복분자 말고 茶 따러 오세요

고창 선운사 차문화 체험관 건립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노후수행마을 조성 1차 사업으로 차문화 체험관을 건립했다.

선운사는 노후수행마을을 조성중인 석상마을 입구에 158.4㎡(48평) 규모의 차문화 체험관 준공법회를 7월 18일 봉행했다. 차문화 체험관은 지난해 6월 노후수행마을의 첫 삽을 뜬 이후 13개월 만에 준공됐다.

이곳에는 전통한옥 양식에 화덕, 다구를 갖춘 제다실과 다도 강의실, 온돌방 등이 마련돼 있다. 선운사가 보유한 10만여 평의 녹차밭을 활용해 체험객들이 직접 차를 따고 덖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공법회에서 벽송당 재훈 스님 문도회(대표 종명)는 그동안 문도회가 소장해 오던 석전 박한영 스님의 행서 10폭 병풍과 산벽시사회 동인(珊碧詩社會 同人) 8폭 병풍 2첩을 선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번 차문화 체험관 준공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승려노후수행마을 조성불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2만㎡(6000여 평)의 부지에 노스님들의 요사채인 백우당과 물리치료실, 다각실, 도서관 등을 갖춘 마을 회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가을쯤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후 한옥 17채 정도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선운사의 승려노후 수행마을에는 법납 30세, 세수 65세 이상의 스님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복지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복지법인이 설립되면 '승려 노후 수행관'과 선운사가 운행하는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선운사는 수행과 포교, 복지와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며 활발한 지역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지역 내 5개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600명이 시설을 찾고 있다.

또한 선운사는 불교 및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7년 8월에는 선운사 성보박물관을 개관해 석전 스님 유물 특별전, 백파 스님의 문자반야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7월 18일 선운사 석상마을 입구에서 봉행된 차 체험관 완공식에서 스님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백천불교문화재단, 캄보디아 도서관 지원

백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이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진행 중인 캄보디아 초등학교 도서관 건축사업에 동참한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7월 18일 캄보디아 초등학교 도서관 건축사업 약정서를 체결했다.

백천불교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지원하게 될 학교는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 위치한 돈엠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380여 학생이 2부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천불교문화재단은 이곳에 25평 규모의 도서관 건축비용과 도서 구입비용 1만9000달러(한화 2200여 만원)를 지원한다.

로터스월드는 이날 약정서 체결에 이어 8월에 도서관 신축공사를 시작해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백천불교문화재단은 '한국 불교의 포교 · 지원을 통한 새로운 불교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재단은 그동안 사찰도서관 건립 지원, 군법당 불서보내기 운동 등 국내 뿐만 아니라 네팔지역 초등학교 교실 지원 등 해외 구호활동도 펼쳐왔다.

2010년에는 플랜코리아와 네팔에 초교를 설립한 뒤 같은 해 삼동인터내셔널과 도서관을 세웠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구촌공생회와 함께 네팔 룸비니에 초등학교를 건립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초조대장경 보러 대구로 초조대장경 판각 천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 개막식이 7월 18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9월 18일까지 두 달 동안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해 1차적으로 제작을 완료한 초조대장경 복원품 100점과 국보 제246호 대보적경 권59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대장경 진품이 함께 전시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불련 군포교지원단 2주년 기념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윤제철) 군포교지원단(단장 유선재)이 창립 2주년을 맞아 경기도 육군 제 8350부대 영내법당 안국사 극락전에서 기념법회를 7월 17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대한불교삼보회 송명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불련 군포교지원단은 2009년 7월 발족해 군승이나 법사가 없는 군부대의 법회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1사단 11연대 등 18개 부대에서 월 40회의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법회를 할 수 없어서 폐쇄됐던 제5공병여단 불무사 등 3곳의 법당을 다시 열어 법회를 진행하고, 기념법회를 봉행한 안국사 등 노후한 법당 3곳을 신개축하기도 했다. 그밖에 대한불교진흥원과 함께 간식지원, 도서지원, 음향시설 지원, 문화(공연)법회를 개발해 신병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광 스님은 군포교에 매진한 한양수, 김대림, 정진경, 홍경희, 김양희 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제11보급대대 변창식 상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상언 기자

미국은 티베트 독립을 말하지 않았다

오바마, "티베트 보호 적극지지" 달라이 라마, "대화 재개 희망"


달라이라마(사진 좌)와 오바마 대통령 /사진=달라이라마 공식트위터

달라이라마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월 16일 백악관 맵룸에서 환담을 나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있는 티베트의 독특한 종교, 문화, 언어적 전통과 티베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내 티베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도론적인 입장에서 비폭력적으로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달라이 라마의 공헌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티베트가 중국인민공화국의 일부이며 미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 외교정책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티베트-중국 간 갈등을 직접 대화로 해결하려는 달라이라마의 시도를 격려한다"며 "대화의 시도는 중국과 티베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국간 파트너쉽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성도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추구하기 보다는 그의 대변인과 중국 정부와의 대화가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오바마의 달라이 라마 초청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나은 기자

주거니 받거니… 아름다운 동행

선재 스님 불이상 수상금 기탁 구제역 피해 농가 등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7월1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동국대(총장 김희옥)에 국제선센터 건립 지정기탁금 20억원을 전달했다.

김희옥 총장은 "자승 스님의 교육불사에 대한 관심으로 제2건학운동이 원만히 진행 중"이라고 감사를 표했으며 자승 스님은 "총장님이 인연과 복을 가지고 취임해 동국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20억원은 지난 5월 조계종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에 써달라며 기탁한 금액 50억 원 중 1차 지정 기탁금이다. 수불 스님은 국제선센터 건립 상황에 따라 30억원을 더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7월 20일 자비나눔기금과 국제개발기금으로 써달라며 불이상 수상금 가운데 절반인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선재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시상금을 자비나눔기금으로 내게 됐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은 "시상금을 흔쾌히 보시해줘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같은 날 아름다운동행은 2010년 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접견실에서 구제역 피해 농가 자녀들을 초청해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구제역 방역 중 순직한 故 금찬수씨 故 김경선씨 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동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당부한바 있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2월부터 구제역 피해농가를 위한 모금을 온 · 오프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도선사, 봉은사, 경성대 법정대 학생회 및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신한은행 임직원 등의 성금까지 5000만원을 확보했다.

모연된 성금으로 아름다운동행은 피해지역 사찰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초등학생 18명, 중 · 고교생 21명, 대학생 10명 등 49명을 선정해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원씩을 온라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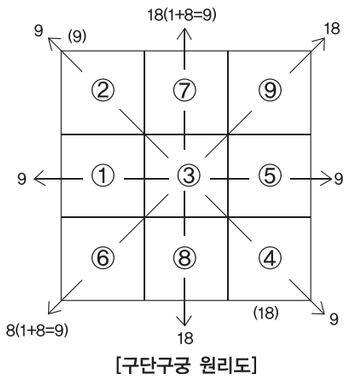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구단구궁 원리도]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 수 지 리 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금, 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용성 스님의 대각교당은 독립운동의 근원지

선농불교 사상으로
이주민 보금자리 제공하고
독립투사 쉼터 역할도…
일본불교계 맞서 포교 힘써

"용성 스님의 연변지역 대각교당은 독립운동의 근원지이자 해외포교의 효시이다"

일제 치하 연변지역의 불교는 미진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불법을 전파한 스님이나 포교사들이 상당 수 있었다. 특히 대각교운동을 펼친 용성 스님은 그 대표자로 꼽을 수 있다.

연변지역 유수학자들과 한국 불교계의 공동 주최 하에 용성 스님의 대각운동을 재조명하고 연변지역 불교의 포교현황과 과제를 짚는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7월 18일 열린 이날 행사에서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보광 스님(사진)은 "용성 스님이 건립한 연변의 대각교당은 독립군들의 은신처로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변 대각교당은 용정지역에서 1927년 3월 시작해 9월 11일에 봉불식을 개최했으며, 당시 300여 신도와 70동의 토지를 소유한 농장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대각교당은 단순한 포교당이 아니라 용성 스님의 해외 민족독립운동 지원사업지 역할을 하였는데 독립운동가들에게 음식과 의복과 자금을 공급하고 쉼터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이곳을 중간기지로 독립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시 스님을 모시던 이동헌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용성 스님은 걸인이나 손님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약과 옷, 그리고 돈을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러한 사실은 상해임시정부 책임자인 김구 선생에 까지 보고돼 김구 선생은 해방 후 종로 대각사를 방문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시 연변불교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불교가 침체일로를 걸었기 때문에 불교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찰을 세우지도, 승려를 모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1920년대 일본불교계는 자선사업을 앞세워 이런 연변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된다. 일본불교계는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첩보활동이 중심으로 반일투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조선불교계와 포교 경쟁을 벌였다.

보광 스님은 당시 연변불교 현황에 대해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의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 종교를 통한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연변의 용정에서는 한일불교계 간의 포교경쟁이 치열했는데 당시 일본 불교계 신도는 170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하지만 귀주사와 대각사가 각각 중심이 돼 조선족이 단결해 일본 불교계의 정토정, 선종파의 이런 목적 달성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근간에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 사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조국을 떠나 살길을 찾는 이주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변화였다"며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새로운 불교 포교의 방법임을 실험한 곳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끝으로 "용정 대각교당의 유지관리 및 사상적인 계승은 지속됐지만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현재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위치 조사와 발굴은 선결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한 정신계승이 지속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명철 연변대 민족학연구소 소장은 '연변불교문화에 대한 역사적 성찰' 발제에서 "연변지역의 오랜 불교신앙전통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된 불교활동장소가 없어 불교는 가정에서 불공을 드리는 수준"으로 "조선족사회에는 정신적인 기둥이 될 수 있고 신념적인 얼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가 시급하다"며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대각교당의 위치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김석주 연변대 이학원 지리학과 부교수는 '연변지역 불교사찰의 공간적 분포와 대각교회 연구' 발제에서 "대각교당의 선농단 위치에 대해 안도현 명월진 도흥촌 혹은 명월진 시가지 내의 구룡가도라고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발제를 통해 "용성 스님의 사상은 지금껏 연구의 불모지였다"며 "조속한 연구가 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용성 스님과 대각교운동



용성 스님(1864~1940 · 영정)은 16세에 해인사 극락암에서 출가해 전통수행과정을 마치고 불교문화운동과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 3 · 1운동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스님은 옥고 생활동안 불교혁신운동과 불교사상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특히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운동을 발원한다. 대각교운동은 불교를 새롭게 인식해 개개인의 운명과 시대를 새롭게 자각하자는 의미다.

스님은 일본불교의 조선불교 합병에 앞장선 원종을 '매종역조'로 규정하고 만해, 성월 스님 등과 함께 임제종 운동의 선두에 섰다.

1911년 종로에 대각사를 창건, 불교의 '불(佛)'이 '대각(大覺)'과 같음을 선포하며 대각교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스님은 1922년 용정에 대각교당을 창건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독립군을 지원, 대각사상을 널리 피고자 했다.

또 스님은 1926년 2차례에 걸쳐 '승려들의 파계생활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불교종단의 정화를 위해 힘쓰고 대처승의 법통계승을 인정하는 일본의 종교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교의 대중화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삼장역회를 설립,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저술활동에 나섰다.

국외 문화재 환수 위해서는 민관협력 기구 절실

문화재 환수 정책포럼과 토론회서 대두, 국제협력 강화 골자 서울선언문 채택도

"약탈문화재 환수는 매우 어렵고 긴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정권 임기내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다 보니 5년 대여, 인도 등의 졸속적인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외교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약탈문화재 환수 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한다."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문화재를 환수 또는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포럼과 정책 토론회가 연이어 열린 가운데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과 민관협력의 기구 창설에 대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사진)은 7월 2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종책토론회에서 민관합동기구 창설을 제시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은 "이제부터라도 국제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외교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약탈문화재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황 소장은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은 문화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니다. 문화재 환수운동을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전쟁과 불편한 감정만 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에 따라 환수상황이 다르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구 창설과 함께 정기적인 포럼, 합동연구 등이 진행돼야 하며 때에 따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대신하는 문화재 환수의 근간 사상으로 '문화권'을 주장했다. 문화권은 그 문화를 창달한 주체가 문화를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황 소장은 "문화재 환수 운동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쉽고 자유로운 것을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27조에서도 '모든 인간은 사회공통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환수의 기본은 세계인, 또 국민에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수후 활용도 대표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환수된 문화재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에서 보관하고 연구 활용돼야 한다"며 "문화재 환수를 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은 모두 이를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말에서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올해는 한일협정 회담 이후 가장 많은 문화재가 돌아온 해로 가히 문화재 환수의 원년이라 불릴 만 하다"며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20년만에 외규장각 도서가 한국에 돌아오고 마추피추 유물이 페루에 돌아가는 등 국외 문화재 환수는 긴 시간을 요한다.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울때 빼앗긴 문화재 환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환수법을 발의 중인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이론 형성과 더불어 개별적인 실패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에서는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국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 환수 전문가, 시민 사회, 민간단체는 각 국가의 불법 반출 문화재 목록을 새로이 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최기표 교수 번역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최기표 금강대 교수(사진)가 번역한 〈역주(譯註) 차제선문(次第禪門)〉이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역주 차제선문〉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세 번째 금강학술총서로, 선바라밀의 수행 차례를 풀이한 법문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密次第禪門)〉을 최초 완역한 것이다. 중국 천태종의 실질적 개조인 천태지의 대사가 설하고 그의 제자 관정 스님이 정리한 것을 최기표 교수가 역주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11년도 우수학술도서에 인문학 114종, 사회과학 144종, 한국학 80종, 자연과학 62종 등 총 400종을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

보조국사 지눌 禪수행 지침서 서울문화재 된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수행 지침서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7월 21일 지눌 스님의 〈목우자수심결〉을 비롯해 불교사적 가치가 높은 책 4권이 함께 엮여있는 '〈선종유심결〉 등 합철'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목우자수심결〉은 1483년 경남 고성 벽운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정혜쌍수와 돈오점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합철본은 지눌 스님의 글을 비롯해 북송 연수 스님이 지은 〈선종유심결〉 확암 화상의 〈정주양산확암화상십우도송병서〉 한림학사 양억의 〈무상대사 행장〉 등을 하나로 묶은 목판본이다.

서울시는 네 작품이 함께 묶인 예가 없는 점으로 미뤄 합철본 자체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한 시민이 가보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 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인소유지만 관리는 시에서 맡게 된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각성 큰스님 "육조단경(六祖壇經)" 고운사 특강

≪육조단경 ≫은 혜능선사가 돈오(頓悟)와 견성(見性)을 기치로 남종 선을 부각시키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는 고려불교의 교종과 선종의 분열 속에서 혜능선사가 머물던 산의 이름을 딴 조계산의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를 열었습니다. 그때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육조단경≫입니다. 특히 육조단경은 일체법의 무상무념을 밝힌 구절이 유명합니다.

'깨달음에는 본래부터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도 역시 바탕이 아니다. 본래 활짝 열려 아무 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나 티끌이 있을쏜 가.' 따라서 미래의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갈 납자 스님들께서 많이 동참하시어 불조 (佛祖)의 본래 면목을 바로 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아래 안내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육조단경" 특강은 동안거 해제때 강의한 육조단경에 이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 일 시 : 2011년 8월 22일 (월) ~ 26일 (금) [5일간]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 정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가운데 지난 동안거 해제 강의부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출가 문제 놔두고 논하는 불교미래 '공염불'

출·재가는 상호간에 깊이 의존한다. 이 둘이 빚어내는 하모니를 통해 불교는 2500년 이상을 면면히 이어올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불교공동체 안에서 출가는 주되게 수행·교화를 맡고(법보시), 재가는 교단을 외호(재보시)해왔다. 이러한 역할분담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출가공동체가 성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출·재가 문제는 왠지 말을 꺼내기가 껄끄럽고 부자유스럽다. 교단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출가공동체의 퇴조에 근본원인이 있다. 한국의 출가공동체는 1990년대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사유화가 급속히 확산됐고, 이에 비례해 공동체성은 크게 약화됐다. 공동체 붕괴의 압력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돼 있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계율이나 수행풍토, 승가위계, 노후복지 등 오늘날 스님들이 호소하는 고통이나 교단 문제의 본질은 대부분 출가공동체의 퇴조에서 기인하는 것들이지만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출가 내에서조차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출가승 상당수가 고급차에 맛난 음식을 즐기며 중상층 이상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 바깥에 있는 대다수의 출가승은 소 경영인처럼 독살이를 하거나 사찰을 부유한다. 그래서 출가승 스스로도 인천의 사표임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뜻있는 재가들은 종단과 출가승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그동안 시대조류에 정처 없이 휩쓸려 왔다면 이제는 뼈아픈 자성과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매우 단순하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교가 사회문화의 주류인 나라, 예컨대 동남아와 티베트, 최근의 대만 같은 곳에서도 출가승은 공동생활을 하며 수행과 교화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소임이다. 단순히 전통을 잇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교단의 핵인 출가승단을 유지하고 불교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불교세가 절대적으로 센 나라에서조차 그러할 진데 한국처럼 종교

출·재가 문제 우선해
출가공동체부터 바로서야
출가승 공동생활이 해답
수행 아닌 것 재가에 맡겨야

간의 경쟁,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상화된 나라, 기독교가 사회주류인 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출가승단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불교가 발전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니 불교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오늘날 한국불교 현실에서 출·재가의 문제는 재가의 종단 참여 확대니 하는 국소적인 문제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답은 간단하다. 먼저 출가승의 역할을 불교전통에 입각해 수행과 전법으로 한정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정하고, 사찰운영을 중심으로 한 그 외의 것들은 점진적으로 하나둘 재가에게 이양하면 된다.

재가역량 또한 취약하기에 숱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사나 정토회 등 적지 않은 사찰의 경험을 보았을 때 시도가 된다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재가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가의 지도력은 높아질 것이고,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근본적인 대수술이 있지 않고서는 뾰족한 답이 없다.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출가 전통의 현대적 복원 없이는 존경받는 출가승단은 요원하다. 출재가의 문제, 나아가 불교공동체와 불교의 미래를 논하는 것 역시 불교의 핵인 출가의 문제를 저대로 놔두고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다. 세 살 어린 아이도 알지만, 팔순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 불교계 안에서는 이 문제가 거기에 속한다. 이제 더 이상 현실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출재가 문제를 푸는 본질이며, 결사와 쇄신의 진정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정웅기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승가의 최고선은 부처님의 법과 율

승가에서 싸움이 발생했을 경우, 율장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7멸쟁법(滅諍法)을 제시한다. 싸움을 가라앉히는 7가지 방법이다. 싸움의 내용에 따라 7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승가 구성원들의 임무이다. 이 멸쟁법 가운데 다인어(多人語)라는 방법이 있다. 이는 특히 법과 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 가라앉지 않을 경우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다인어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다수가 반드시 여법설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다수결 개념과는 의미가 다르다. 만약 투표결과, 비법을 설하는 자의 숫자가 더 많다면 투표관리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즉, 지지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법한 의견을 지지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채택한다는 것이 다인어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여법·비법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투표 관리자로 선발된 행주인(行籌人)이라 불리는 비구가 부처님이 설한 법과 율을 근거로 판단한다. 표면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한다고 하는 방법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행주인이라는 특정한 비구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방법은 한 개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며 또한 그가 행사할 수도 있는 권력의 남용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인 '출가자들은 오로지 여래가 남긴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 정진하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승가는 부처님이 남긴 법과 율을 최고의 선으로 삼아 수행해 가는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결국 법과 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행자가 승가의 지도자로서 다른 수행자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기에 행주인을 비롯해 승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비구의 자격 요건은 까다로우며 선발 역시 갈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산중총회를 거쳐야 한다. 법과 율에 대한 해박함, 어떤

한국불교 승가 사건들은
책임감 없는 지도자와
신뢰 못하는 구성원 탓
부처님 법과 율 되새겨야

상황에서든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으며, 성냄이나 어리석음·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인물을 동일한 경계 안에 속한 모든 비구들의 만장일치로 신중하게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선발한 후에는 모든 것을 그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맡겨야 한다. 선발된 비구 역시 법과 율에 근거하여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점이야말로 승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갈마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승가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 고들 하지만, 이는 한 단면만을 본 것이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갈마는 반드시 여법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이때 지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승가의 앞날은 일부 지도자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역할은 중대하다. 이는 바꾸어 생각해보면, 지도자를 선출하는 구성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도 승가의 구성원이며 그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승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승가는 구성원 모두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불교 승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에 존재해야 할 소중한 그 무언가가 많이 사라졌음을 엿보게 한다. 지도자로서 마지막 단 한명까지도 끈질긴 설득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책임감의 부재, 스스로가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결국 양쪽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승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판단은 시작도 끝도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삿된 감정의 개입 없이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또한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도자 역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승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자랑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청소년 종교인권을 주제로 2011 만해축전 심포지엄이 7월 18일 서울 우리함께 빌딩 2층에서 진행됐다.

종교 중요하다는 학생, 하나 없다

2011만해축전 심포지엄

NGO 리서치(소장 윤남진)가 중고등학생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가족(38.1%)이 가장 많고, 돈(19.1%) 친구(15%) 건강(10.2%) 학력(6.1%) 권력(4.4%) 여가(3.2%) 다음으로 종교(3%)다. 특히 불교인 중에는 종교가 중요하다고 한 사례는 0%다.

학교에서 종교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체 19.7%만이 긍정적이고 32.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종교사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개신교 사학 소속 응답자 26.3% 불교사학 응답자 26.2%가 종교 교육에 대해 부정의견을 내놓았다.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종교관이나 종교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형성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랐다. 7월 1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이 발표한 설문조사다. '청소년 종교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윤 소장은 "종교사학에서의 종파교육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설문결과에 개신교를 대표한 청소년문화공동체 10대지기 사무총장 학현동 목사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교육을 하면서 신앙으로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교육의 긍정적 영향을 믿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학 목사는 "학생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시킨 것은 종교적 사명이었다. 종교자유를 외친 강의석 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인 교육 자체도 100년 역사의 한국교회의 역사와 가르침일 뿐 강요는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류상태 종자연 자문위원도 "강의석 군의 판결에 대해서 설립 이념에 따라 공교육을 하고 종교교육을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우선하고 공교육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 개신교 종립학교에서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청소년에
자기결정권 확대·부여함이
청소년 종교인권 지키는 일

강의석 군에 의해 특정종교 강제교육이 위법이라는 승소 판결에도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적 가르침을 이유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교적인 강요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종교인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허형범 숭실중 교사는 "학교 예배를 일반 교과목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는 참석이 자유로운 반면 학교 예배는 자유롭지도 못하다"며 "학내 종교접근상황이 시작되기 전마다 항상 참석 여부를 묻고 불참시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공고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윤진 중앙대 교수는 "특정 종교나 종교교육의 주입이나 강요는 청소년들을 뚜렷한 근거없이 무능력자 집단으로 단정 지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사회변화와 청소년 능력의 변화에 따라 자기결정권 확대를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도소 텅 비는 그날까지 법회 열겠다

불교법사단, 30년째 재소자 법회

"이곳은 마음공부하기 가장 훌륭한 수행 도량입니다. 교도소를 국립호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수행하세요."

불교법사단(단장 혜창, 이하 법사단)은 7월 20일 부산교도소 내 종교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4명의 부산 · 경남지역 스님들로 구성된 불교법사단은 올해로 3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교정교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때 전국 조직폭력배 계보를 주름잡던 조직의 큰형님들도 이제는 대덕스님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제가 됐다.

이날 법회에는 재소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자 재소자들이 직접 사회와 집전, 피아노 반주 등을 도맡아 여법하게 이뤄졌다. 이들은 장기 복역수 가운데 모범수들로 〈반야심경〉을 외워 봉독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

법회는 교도소 측 일정에 따라 날짜와 시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법회일은 유동적이다. 그럼에도 1000여 재소자 중 절반인 500명 정도는 꾸준히 법회에 동참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과의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교도소법회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일반 법회의 식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재소자들의 특성상 스님의 법문 내용은 물론, 봉사하는 신도들의 언행과 몸가짐은 조심스럽다. 이들은 큰 죄를 지어 교도소에 왔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동요할 만큼 마음이 약해진 탓이다.

혜창 스님은 "한 재소자의 경우, 사형선고를 받고 장기 복역 중인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철창 문소리가 날 때마다 손가락을 깨물어 열손가락이 모두 성치 않았다"며 "범죄자들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년 전 법사단에 처음 가입한 한 스님이 법문에 앞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했다가 "여태 출소하지 못하고 두 달 후에 또 만나 반갑다는 것은 놀리는 처사"라는 핀잔을 들은 적도 있다.

총무 만오 스님(석대암 주지)은 "우리 사회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재소자와 우리는 탐진치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미혹되는가하는 차이 뿐"이라며 "불자라면 이들을 무서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대자대비한 부처님 마음으로 감싸안는 보살행을 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법사단은 재소자들의 불심을 일깨우기 위해 30년째 노력 중이다.

불교법사단의 목표는 교도소가 텅텅 비어 더 이상 정기법회를 열수 없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것이다. 부산교도소의 모든 재소자들이 마음 속 불심을 알아차려 평화로운 불국정토를 이룩하기 위해 14명의 큰형님들은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박지원 기자

국적 달라도… 佛子로 하나된 체육대회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매일 힘든 일을 하다. 오늘 하루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는 7월 16일 정광중학교 교정에서 외국인근로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에는 보혜 스님, 김진희(좋은세상 대표), 키티스님(스리랑카), 티샤 스님(스리랑카), 디한타 구마라시(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서기관을 비롯해 스리랑카, 베트남, 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념식 후 국가별로 축구, 배구, 줄넘기 대회 등을 진행했다. 대회 결과 베트남은 축구에서, 네팔은 배구, 스리랑카는 줄넘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국가별로 진행되다보니 각 참가자들이 별도의 연습을 실시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기념식에서 보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힘든 타국생활에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만남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고국에서 불교를 믿었듯이 한국 사찰을 찾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키티 스님도 이날 자국어로 근로자들에게 마음속 평화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스리랑카 대사관은 행사를 후원한 사단법인 좋은세상 김진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0명의 어르신 부처님 가피로 돌보다

무량수노인요양원 개원 5주년



사회복지법인 해월(이사장 선래) 산하 기관 무량수노인요양원(원장 각우, 법륜사 주지)이 개원 5주년을 맞았다.

무량수노인요양원은 개원 5주년 기념 법회와 경로잔치를 문수관 2층 로비에서 7월 15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5주년을 기념해 입소자 중 '모범어르신' 및 장기근속자, 모범직원을 선정해 표창장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사장 선래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소는 많지만 평균 입소어르신은 25명에 불과하나, 우리 원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오순도순 모여살고 있으니 부처님의 가피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실천해 마음 속 양변과 편견을 다 버리는 무주상보시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설했다.

한편 무량수노인요양원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122㎡(944.74평) 규모로 물리치료실, 상담실, 가족면회실, 이벤트 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요양보호사 40명,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 등 총 60여 명의 직원이 100명의 어르신을 '1:2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051)552-7900

박지원 기자

대구 불교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마음

불교계가 8월 27일 개막하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지역 각 불교종단과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대구불교총연합회는 7월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억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입하고 선수촌 불교관을 운영, 선수와 임원들의 신앙생활을 최대한 돕기로 결의했다.

대불총은 특히 육상대회 기간 중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에게는 템플스테이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거도, 불심으로 꽃을 피우다
섬 불교 포교단 포교행사

광주전남전법단(단장 도제) '한국의 섬 불교 포교단'은 7월 16~17일 가거도에서 '섬 불교 포교행사'를 벌였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과 공동으로 열린 행사에서 마을 주민들과 스님, 포교사들은 함께 화합하며 하루 종일 음악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곳 신도들은 스님도 없이 용궁사를 30년간 이끌어오고 있다. 가거도에 도착한 일행은 용궁사를 참배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섬 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혜종 스님(목포 정혜원 주지)과 포교사, 공연팀, 한의사, 이미용 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행 했다. 단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한의(韓醫)와 이미용 봉사, 위안공연 등을 펼쳤다.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스님이 없는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사찰을 이끌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섬 불교 포교단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매월 1회씩 전남지역 섬을 찾아다니며, 인근 사찰과 연대해 포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마을엔 밥 굶는 어르신 없기를…

부산 성암사, '따뜻한 밥상' 무료급식소 개소식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을 실천하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부산 성암사(주지 응현)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문현초등학교 인근에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을 열고, 지역 내빈 및 성암사 신도들과 함께 개소식을 7월 19일 개최했다.

성암사는 2003년부터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8년간 주2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사찰 인근에 무료급식소를 열고,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공양을 나눌 것을 발원해왔다.

이에 3년 여 준비기간을 거쳐 사찰과 인접한 문현동에 단층 건물을 매입해 동시에 최대 100명의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로 개조했다. 건물 뒤편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유기농 채소를 재배한다.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은 7월 25일부터 매주 월 · 수 ·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남은 음식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에 신속히 배달된다.

성암사 신도 270여 명이 무료급식소 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이며 접수해, 주지 응현 스님으로부터 봉사자 소양교육까지 마쳤다.

응현 스님은 "성암사의 사하촌인 문현동은 빈부의 격차가 유난히 심한 곳으로, 성암사에서 기존의 반찬배달을 하는 어르신 세대의 생활고에 마음이 아팠다"며 "더 이상 우리 절 동네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단 한 분도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십시일반 힘을 모아 무료급식소가 영원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어르신 복지 우리가 책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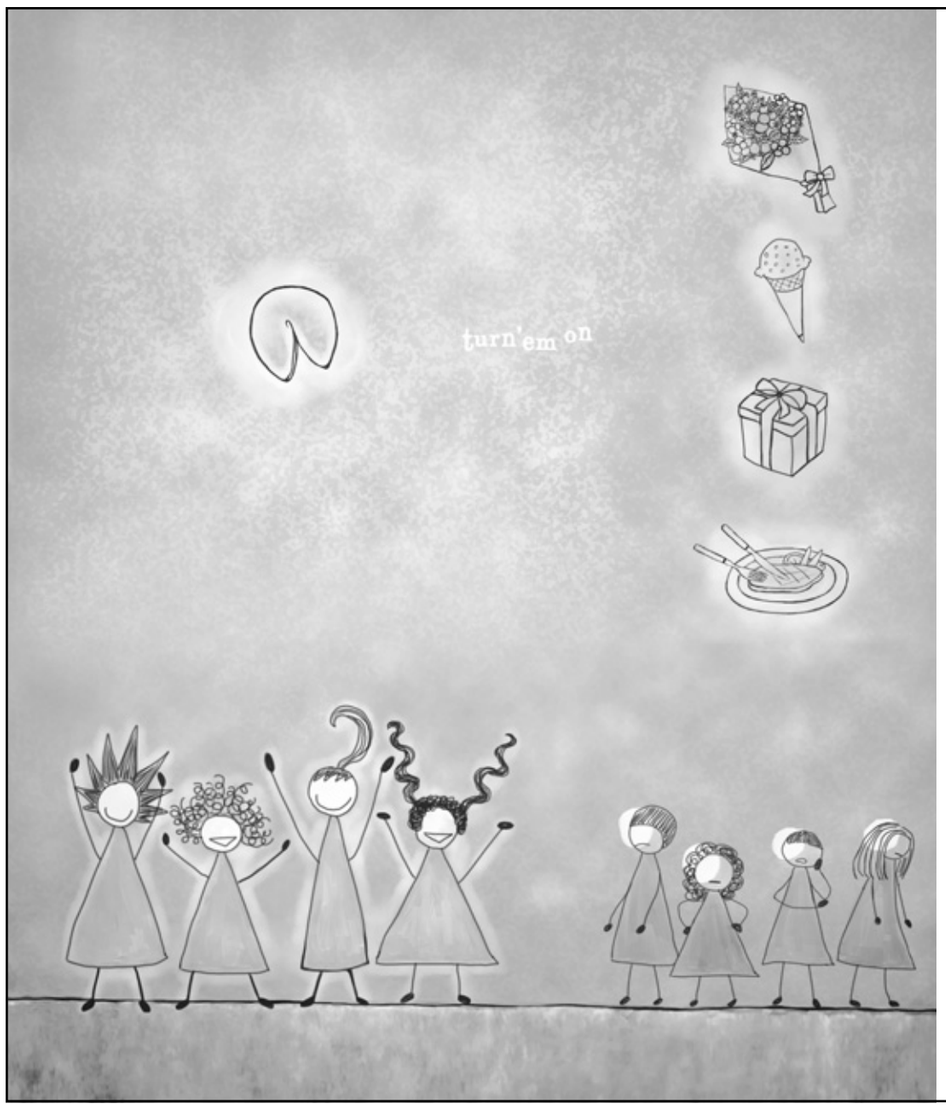
고창군노인복지관 보수교육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사업단 참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7월 20일 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활동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보수교육은 웃음치료강의와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늘푸른예술공연단'의 합창 등이 펼쳐졌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앞으로도 지역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노년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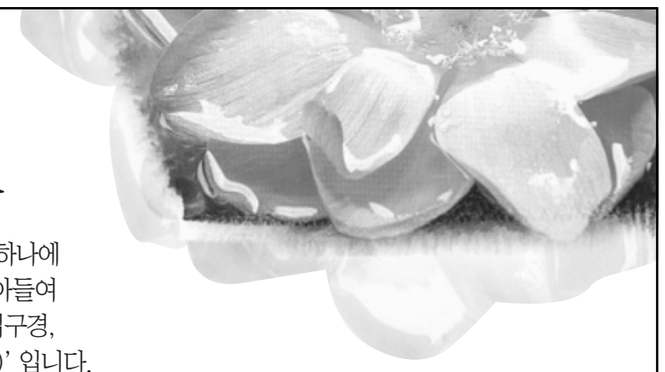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을 후견인으로 둔 우리, 행복에 겨워 삽시다

김홍신 작가(건국대 석좌교수)

김홍신 작가는 7월 16일 동산불교대학 제3회 명사초청법회에서 '불교의 행복론과 인생사용설명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홍신 작가는 근사하게 사는 인생사용설명서를 소개했다. 그는 "10분 웃으면 10분 부처 · 예수가 되지만 10분 찡그리고 미워하면 악귀 · 마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웃으며 즐겁게 살 것 △소박하게 먹어 몸을 가볍게 하고 소박하게 생각해 영혼을 편케할 것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나눌 것 △숨 쉬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하며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희망을 갖기△내가 살아 있음은 세상의 수많은 수고 때문임을 알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기 △웃고 즐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며 남을 기쁘게 해 보람있게 살기 등 행복한 삶을 위한 7가지 자세를 소개했다. 아래는 강의 요약문이다. 정리=이상언 기자



독실한 불자인 김홍신 작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가다. 제15 ·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8년 연속 의정평가 1등을 받았다. 194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논산에서 성장한 김홍신 작가는 건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석좌교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나라당 홍보위원장, 민주당 대변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수상내역으로는 제12회 한국소설문학상, 제6회 소설문학작품상, 제1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제4회 통일문화대상,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인간극장〉〈칼날 위의 전쟁〉〈바람 바람 바람〉〈내륙풍〉〈김홍신의 대발해〉[전10권] 〈인생사용설명서〉 등이 있다.

세상의 중심은 '나'

나를 가격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살아봤기 때문에 헐값이 나올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권력, 명예, 재물, 인물, 학연, 지연, 가족 등을 남들과 비교하며 사회적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기죽고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합니다.

세계 67억 인구 중 자신과 똑같은 영혼과 육신이 단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며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가요.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식사하고 밥을 넘길 때 목을 왜 젖히면서 삼킵니까? 알약을 삼킬 때에 왜 목을 젖히고 삼킵니까?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가루약은 왜 그렇게 드십니까? 이것은 먹기 싫다는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습성을 바꿔야 합니다. 용수철과 같이 습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습성을 느리게 천천히 조금씩 바꾸시겠습니까? 1000년을 사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면서 느리게 천천히 조금씩 바꾸려고 합니다. 용수철이 튀는 방향을 조금만 틀어버리면 되 듯 인생은 확 바꿔야 합니다. 더욱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딛고 선 이 자리입니다. 대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명예, 돈, 권력에 끌려 주인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좇는 것이고 원망은 잊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마는 벗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삭이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슷비슷하지, 유별나거나 특별하거나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힘겹고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 일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으니 짜증나고, 피곤하고 외롭고 몸도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을 둘러보면 나만 못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가능성을 갖고 오늘의 고통과 힘겨움, 갈등을 견디고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행복은 스스로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잠시 기쁠 뿐입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기에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면 세상에 즐겁고 기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곧 희망입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수없는 좌절과 고통 갈등이 똬리를 틀고 앉아서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곤 합니다. 한 세상을 잘 살았다고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모두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뇌는 우리의 멘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뇌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개척해주며 살아갈 만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명마도 즐기고 좌절과 아픔도 벗하며 슬픔과도 어우러져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희망은 좌절 실패 불행 고통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태양과 같은 것이고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희망은 공짜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말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인생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살짝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자극을 할 뿐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흔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이 변하고 상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내 수준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생각대로 존재하기를 기대하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에 따르기만을 바라면 반드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허물을 충고하고 따스하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연인을 대하듯 다독이며 사랑해야 합니다. 벗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벗이 필요하다고 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없이 용서하라

육신의 쓰레기는 버리면서 마음의 쓰레기는 왜 버리지 못합니까.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암세포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고 잘 버린다면 육신을 앤돌핀 공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러저러한 조건 없이 그냥 관대해지는 영적인 용서입니다. 영적인 용서를 하면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의 근원을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눈을 감고 10분만 앉아 있어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번뇌와 미래에 사로잡히는 망상을 걷어내고 걷어내도 연방 머리를 내밀곤 합니다. 쓸모없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 내 영혼을 갉아 먹는 것은 자꾸 뽑아 버려야 합니다. 꽃밭이나 잔디밭을 곱게 가꾸려면 잡초를 뽑아내야 하듯 우리의 마음 밭을 편안하게 하려면 영혼에 박힌 가시를 아낌없이 뽑아내야만 합니다.

100년도 못살면서
느리게 천천히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인생은 확 바꿔야… 바뀐다

성불하지는 못하더라도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하고 베풀면 그 순간 보살이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 그 순간 악귀가 됩니다. 자비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심성이고, 자애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자애이고, 아픈 이를 조건 없이 보살피는 것은 자비입니다. 바로 자애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자장 멀리 퍼져나가고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눅 들지 말라

내 인생은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살지는 않았습니까.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사람은 멀쩡한데 개는 지치고 맙니다.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있어서 괜찮은데 개는 생존을 위해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개처럼 살지 주인처럼 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목에 채운 목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잘라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남에게 끌려서 사십니까.

욕구가 커질수록 만족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교법을 교육 방법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비교법은 교육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독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비교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열등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밥을 많이 먹고도 날씬해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모 손에서 자랐고, 예수는 의붓 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 공자는 평생 떠돌이로 살았고 사마천은 생식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열등감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세상에 이바지했습니다.

과거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십시오.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항복해 버리면 행복하지 않지만, 이를 딛고 이겨낸다면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후견인인 부처님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시장〉을 560만부 판매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국회에 8년 동안 있으면서 법 개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다 얻어 봤지만 다 해놓고 보니 허망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기름칠 해놓은 벽을 발톱으로라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시 법륜 스님에게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장엄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리는데 힘을 써 줄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12시간 이상 책상에서 매일 20매 이상글을 썼습니다. 3년을 두문불출하면서 1만 2000장의 글을 손으로 써 〈대발해〉10권을 완성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갖가지 병도 다 앓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일을 하고 나서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만이 행복도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1회용 휴지를 한 번 쓰고 다시 씻어 재활용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도 일회용 휴지처럼 한 번 살고 갑니다. 근사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하며 세상에 보탬이 되고 행복에 겨워야 합니다. 단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인생사용설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주눅 들어 살지 마십시오. 멋에 겨워 사셔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궁리를 하십시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
정통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용신과 격국의 패러다임을 찾았다.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년.월.일.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인 자연이치로 분석하여
정해진 명(命)이라고 하는 운명적 요소와 성품적
요소를 분석하여 활용적 가치를 찾자는 학문이다.
음양 오행철학은 역(易)의 신비로써
이치를 규명하므로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천기누설을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며
잘못하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균송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

한여름 무더위 속, '진짜' 웰빙으로 여유를

휴가도 아직 안 갔는데…

회사원 P씨는 휴가를 제대로 즐기겠다는 일념하나로 한달 전부터 인터넷과 여행사의 여행상품들을 알아보고 있다. 물가도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아, 이왕 비싼 돈을 들이는 거 제대로 놀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평소 워낙 꼼꼼한 성격을 가졌던 P씨는 그러한 압박감에 휴가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무엇보다 휴가 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이미 P씨는 주객이 전도돼 휴가를 즐기기 이전에 심신이 모두 지쳐버렸다.

주부 A씨는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휴가를 기다려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번듯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미 국내를 비롯해 외국까지 여행정보를 다 꿰고 있었던 A씨는 남편의 휴가일정만 알면 됐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은 반응이 시큰둥했다. A씨가 내놓은 여행계획들에 남편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A씨의 남편은 거창한 휴가가 아닌,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A씨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고, 결국 부부는 여행도 떠나기 전 싸움을 하게 됐다.

현재 대학생인 K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바닷가로 놀러갈 예정이다. 그런데 기말고사를 보면서 스트레스로 폭식을 했더니, 살이 많이 쪄버리게 됐다. CF속 한 장면처럼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자신의 비키니 입은 모습을 뽐내고 싶었지만, 지금의 몸 상태라면 여행 약속을 취소할 판이었다. 결국 K씨는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K씨는 다이어트로 인해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화를 자주 내게 됐다.

휴가철 되면 생기는 '올가미 족'

넥타이 풀려다 스스로 올가미 씌워

불교 만나면 일탈과 휴식 맛볼 수 있어

이렇듯 휴가철만 되면 항상 '올가미 족'들이 생겨난다. '올가미 족'은 일탈을 꿈꾸며 멋진 휴가를 맞이하려 하지만, 결국 휴가계획을 너무 의식해 스스로 휴가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다. 도대체가 쉬러 간 건지 여행사 직원마냥 여행 상품을 기획하러 간 건지 모르는 사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날 동반자와 일찌감치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남 눈을 너무 의식한 탓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까지. 넥타이를 풀고 여유를 만끽하려던 이들은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버린 채 씁쓸한 휴가를 맞는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뭔가를 배워야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 불교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결국 일탈이고, 휴식임을 깨쳐보자.

이은정 기자



2009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이 여름철 시원한 강에서 신나게 레프팅을 즐기는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제대로 쉬고 싶은 당신에게 권합니다

휴가철이 다가왔다.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과중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된 휴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

제대로 된 휴식은 몸과 마음, 정신까지 함께 쉬는 것이다. 휴가를 가서도 정신과 마음을 쉬지 못하면, 휴가를 다녀온 후 피로만 더해진다. 일상을 떠나긴 했지만, 결국 감정에 에너지를 쏟아 심신이 지치게 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은 취하지만, 좀처럼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것은 제대로 된 휴식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간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몸에 이상신호가 나타난다. 면역체계가 망가지고, 장염, 위장염, 기관지염, 감기 등의 질병에 노출된다. 또한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도 일으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휴식도 취하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명상하고 사찰음식 먹기

한국사회에 '웰빙' 열풍이 불기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졌다. 과거에는 밥만 굶지 않고 잘 먹으면 잘 사는 것이라 여겼지만, 현대에는 정신까지 완전해야 건강하다고 믿는다.

부처님은 〈질병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신체적 질병에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100년 동안 자유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단 한 순간도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롭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에게는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존재한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괴로움을 느낄 때, 편견과 독선을 쉬게 해 참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통해 행복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 부처님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정신적 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했다.

'웰빙'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불교 체험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불교의 생활방식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며, 대표적으로 사찰음식, 다도, 명상 등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산사체험, 명상캠프, 템플스테이 등이 활성화 되고 있다.

불교의 염불이나 기도는 그 자체에 명상의 효과가 있어 뇌 속에 알파파가 증가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숙면, 혈압강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또한 불교의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혀주는 음식으로, '미래의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굶지 말고 적게 먹기

S라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를 비롯해 한약, 심지어 성형외과의 시술까지 받기도 한다. 여름이 되자, 여성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한 노력은 더 치열해진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5년 새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30%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체중감량에 대한 욕구는 휴가철을 맞아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부처님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과식을 하며 살이 쪄서 힘들어하는 코살라 국의 파세나디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은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다."

결국 파세나디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식사를 조절했고, 드디어 건강을 회복했다. 최근 들어 사찰음식이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도 살이 안찌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찰음식은 단순히 다이어트식 이전에 수행식이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식을 권한다. 기름지고 양념을 과하게 한 음식이나, 어떠한 동물성 식품도 섭취하지 못한다.

또 수행에 방해가 돼 마늘, 파, 달래, 부처, 흥거(양파) 등의 오신채도 먹지 않는다. 〈수능엄경〉에는 오신채를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익혀 먹으면 음욕을 일으키고, 날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증대 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때 아닌 때 안먹기

불교에서는 특히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고 당부한다. 오후불식은 불교에서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다. 최근에는 한 여자 연예인이 "10년 동안 오후불식을 통해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발언으로, 오후불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오후불식은 수행에 있어서 기(氣)의 흐름도 원할히 하지만, 무엇보다 심신의 혼탁함을 맑게 해준다. 특히 음식에 대한 욕심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 음탕한 마음도 사라진다. 우선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 신장질환, 당뇨, 우울증, 피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저녁에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아침에 손과 얼굴이 붓거나 머리가 맑지 못해 하루 내내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신장이나 간이 활동할 시기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 있어, 인체의 모든 기능이 위장 소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능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 신장의 배설, 신장질환, 정력 감퇴, 간 기능 저하, 피로회복이 원활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후불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력이 허하거나, 몸이 약한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맞게 일정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



건강, 마음 먹기에 달렸다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비결

요즘처럼 음식에 대해 헷갈릴 때도 없다. 단순하게 분류되던 음식들이 유기농, 무지방, 저칼로리 등 무수한 수식어를 달고 등장한다. 질병과 증상, 체질에 따라서도 섭취해야 할 음식들도 각양각색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 '칼슘이 좋다' '바나나가 좋다, 안좋다' '계란은 나쁘다' 등 주장하는 바도 제각각이다.

◆아침은 꼭 먹고, 대신 적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식사는 아침 식사를 시작으로 적게 먹고,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한다. 가끔 올바른 영양제를 복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불교에서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가지 요소가 두루 잘 조화돼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4가지 요소가 조화롭지 못하면 결국 병이 온다.

운동을 하지 않고 오래 앉아만 있으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병이 오기 쉽다.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영양공급과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해 다른 병을 유발하기 쉽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병을 키우는 요인이다. 근심이나 피로, 분노는 화를 동반하게 돼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이어 과다한 성욕, 대 · 소변을 참는 것, 하품을 참는 것, 방귀를 참는 것 또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거나, 제철 음식을 먹지 않고 과식하며,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대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것 등은 무병장수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한다.

◆피로, 불교수행으로 날려버리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것의 문제는 바로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만 조금 달리 먹으면 우리의 인생은 전보다 훨씬 평안하고 여유로워 질 수 있다. 의 ·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치료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암 같은 질병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질병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질병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심,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이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 의학자들은 질병에 대한 직접적 연구만큼이나 마음, 정신, 심리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 크리스토퍼 거머 교수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 우울, 공황장애 등에 대해 불교명상이 그 어떤 치료법 보다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불교의 명상들이 근래 들어 주목받는 까닭은 불교명상이 종래의 정신분석이나 인지치료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임상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명상에 대해 한 마디로 '잘 쉬는 방법'이라고 말하셨다. 명상이란 자신에 대한 관찰과 반성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매순간 열린 마음으로 의식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위)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휴식을 취하는 모습, (아래)발우공양 중인 스님들의 모습

이런 명상문화는 근래 서구인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욕망과 집착이 낳는 질병들은 무수히 많다. 명상은 그런 욕망과 집착을 잠재울 수 있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

집착을 버리고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은 팔정도(八正道)의 실천뿐이다.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는 정서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영원의 양식에 관한 처방이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함양된 품성과 기량은 우리의 황폐한 정신에 소중한 양식이 된다. 부처님은 일찍이 "이러한 음식이야 말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주변 여건에 스스로 적응시킬 줄 도 알아야 하고, 부정적인 태도와 정서도 다스려야 한다. 최근들어 불교에도 여러 수행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참선 명상 다도 위빠사나 요가 마음챙김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 요가는 감각기관 · 마음 · 지성을 억제해 동요 없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요가와는 차이가 있다. 요가는 외부적 여건에 동요하지 않도록 내면의 심리와 정서를 조절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적 · 물리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마차의 주인'처럼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고 변화시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런 점은 명상과 비슷한 점이다. 이은정 기자

생각 끊으면 마음의 평화 온다

덕성여대 김정호 교수, 진흥원 특강



"부처님은 우리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나만의 색다른 휴가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7월 19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진행하는 '화요 열린 강좌'에서는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사진)가 '더 깊은 아름다움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정호 교수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느끼는 고통이 많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고 운을 띄웠다.

김 교수는 "두 번째 화살이란 바로 '생각'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상은 생각을 버리기 보단,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스스로가 생각을 필요할 때 쓰고, 쓰지 않을 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명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쓰지 말아야 할 때, '생각'을 쓰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교수는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주의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내가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욕구가 주의를 결국 좌지우지 한다. 욕구는 생각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 마음을 챙겨라… 명상은
> 스스로 생각 필요할 때 쓰고
> 쓰지 않을 때 내려놓는 힘 길러줘

주의는 삶의 '앎'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할 때 음식에 계속 신경 쓰는 것을 '음식에 주의를 두는 것'이라 말한다. 집으로 돌아갈 때, 중국집에서 나는 자장면 냄새나, 치킨 냄새 등을 맡으면 다이어트가 하기 싫어진다.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음식냄새로 주의가 가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의 주의는 순수하지 않은 존재인데,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욕구가 주입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욕구에 의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심리학에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다'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람이 가끔 순수해 질 때가 있다. 바로 자연과 밀접해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맑은 하늘을 보고, '하늘이 참 예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하늘을 갖고 싶어'라는 욕구보다, 순수하게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짧은 시간이어도 이렇게 순수하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명상에 접어든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걸으면서도 무언가를 계획한다. 또 운동을 하면서 영어단어를 외우는가 하면, 만능인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치가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때 모든 생각을 '툭' 끊게 되면, 바로 마음 속 평화가 찾아온다.

김정호 교수는 이러할 때 "주의를 줘서 정신자원을 배분시켜야 한다"라며 "집중명상을 하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명상에 실패했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느낀 후, 쫓아가지 말고 그대로 두고 다시 명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만약 그 생각과 싸우게 되면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두고 호흡감각에 주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것을 '하지 말라' 보다는, 어떤 것을 '해라'라는 것이다.

간혹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는 가는 여성을 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딸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그 현상을 알아차리고, 내버려두고, 두고 오면 된다. 김 교수는 이때 "그 생각과 다투지는 말아야 한다. 절대로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고 지나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 TV를 일부러 끌 필요도 없고, 걷지 않거나, 주변을 정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진정한 마음챙김 명상은 자신을 '떨어져서 보는 것'이므로, 일상에서 화가 나면 '화'를 바라보고, 또 다른 현상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결국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나로부터 벗어나고, 결국 에고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생각은 필요할 때 쓰고 내려놓으며,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 '마음챙김' 훈련이다"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 제 포 교 사(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커피 한 잔에서 만나는 품위와 여유

사찰에 가득한 커피 향기

차(茶)는 인류에게 약용으로 쓰이다가 기호음료로 발전했다. 불교가 크게 흥행했던 당송시대에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차의 음용과 제조방법이 전해졌다. 동북아에서 가장 늦게 차문화가 발달한 일본은 차가 양생 식품으로 인식 되다가 15세기 귀족과 무사들의 문화로 정착돼 불교적 수양을 형식화 시킨 음료문화가 됐다.

한국의 차문화는 신라말기와 고려시대에 매우 번성했다. 후대에는 널리 백성들도 즐기게 됐지만 주로 외국 사신을 맞을 때, 왕실의 혼사 때 다례를 행했다. 통도사와 화개에 다소(茶所)라는 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으로 차(茶)일을 맡아 운영할 만큼 차는 사교와 의식에 있어 중요한 문화였다. 조선시대에는 선비의 수양의 음료로 자리매김해 근세까지 이어졌다.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뿌리내린 우리 차문화의 근본에는 휴식과 명상을 통한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교에서 차는 수행 음식이다. 차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시고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수행의 과정이다. 불가에서 스님들이 즐겨 마시는 차 1위는 단연 녹차. 차나무 잎을 따다 볶거나 찌고 말리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는 것이다. 발효의 정도에 따라 녹차 우롱차 홍차 보이차로 나뉜다. 이중 녹차는 발효를 전혀 시키지 않은 차를 말한다. 최근에 이 차(茶)의 범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다. 바로 커피이다.

차가 중국에서 왔다면 커피는 미국에서 들어왔다. 일찍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긴 했지만 일부 지식인 계층이 즐겨 마시는 정도였다. 한국전쟁 후 미군과 함께 들어온 인스턴트커피는 한국 차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커피의 원래 산지는 아프리카(에디오피아)다. 이슬람(예멘)으로 전파 되면서 본격적인 커피 문화가 시작됐다. 아픈 이들의 원기를 회복하는 의약품으로서 커피를 사용하다 긴 밤 잠들지 않고 기도하는 수도사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 됐다. 또, 코란에 따라 술을 마실 수 없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지금의 카페와 비슷한 가게들이 성행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커피는 아니고 단지 생 원두를 끓여 마시는 것에 불과 했다.

15세기 후반 이슬람 수도승이 수행을 돕기 위해 마시던 커피지만 최근 사찰안에서도 그윽한 커피 향기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커피를 즐기는 스님들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커피마니아 스님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10초 만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커피믹스가 아니다. '핸드 드립' 이라 불리는 수동 여과식 커피다.

핸드 드립(Hand Drip) 커피는 커피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나타낸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만드는 방법은 다례와도 비슷하다. 커피의 생원두를 냄비에 볶는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다. 볶아진 원두는 원두를 가는 수동 기계를 이용해 분쇄한다. 분쇄된 커피를 종이필터에 담아 위에서 천천히 물을 붓는다. 뜨거운 물과 콩이 만나 향이 피어오른다. 향을 즐기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크레마(커피 거품)가 충분히 생기는 것에 주의해 천천히 물을 부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다도의 특징은 '품위와 여유' 이다. 다도에는 격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격식에 얽매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道)가 아닌 것이다. 다례는 잡념을 떨쳐버리고 자연의 본연에 다가가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음료문화에 가장 대중적으로 자리잡은 커피. 핸드드립 커피가 다례의 범주에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커피 향기 속에 잠시 접어 두어도 될 듯하다.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핸드드립하는 모습. 협찬=커피친구

무심코 마신 커피로 살 찌우지 않으려면

커피 믹스 세 잔 = 밥 한공기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최고기온 33도를 기록하는 무더위가 그 자리를 꿰찼다. 긴 장마에 도시는 교통체증으로 집안에는 잘 마르지 않아 냄새나던 빨래들로 힘들던 터라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도 반갑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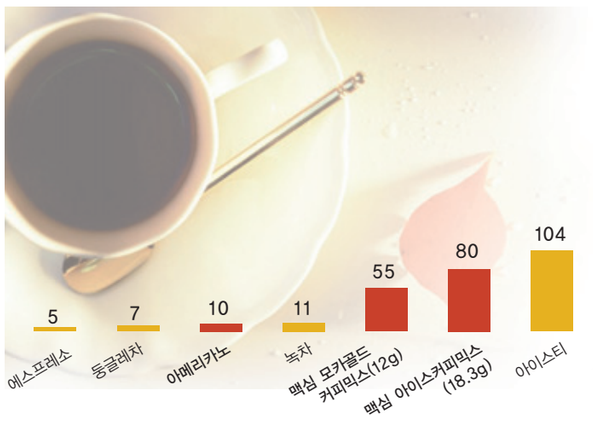
무더워진 여름, 얼음 가득 담은 유리잔에 아이스커피 생각이 간절하다. 요 며칠 새 에어컨 판매율은 300% 급증했다고 한다. 폭염과 함께 치솟은 또 다른 하나는 빙과류와 음료수 판매량이다. 그중에서도 '커피' 시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남양과 매일유업은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양 사에 과징금 128억이 부과 됐다. 가격 담합이 이루어진 제품은 다름 아닌 마트와 슈퍼에서 파는 컵커피. 커피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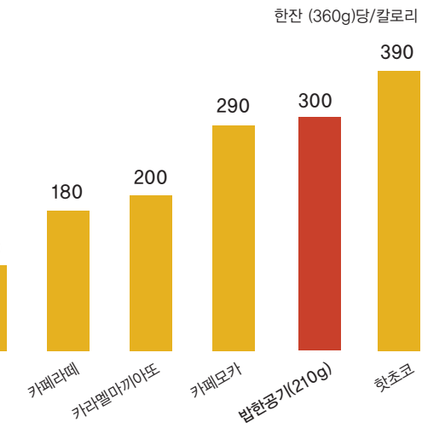
식당마다 한켠에는 커피 자판기가 구비돼있다. 식후에 꼭 커피 한잔을 마셔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커피에 열광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 사이다. 시발점을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1999년 이대 앞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열 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섰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대화가 필요할 때 카페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한다. "차 한잔 하실래요?"는 대화 좀 하자는 뜻이 담긴 사회 통용어가 됐고 이때 말하는 '차' 에는 율무차, 쌍화탕이 아닌 '커피' 를 의미하는 말이 됐다.

식후에 무심히 마시는 커피한잔.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두세 번 씩 마시고 가정에서도 흔히 마시는 커피믹스. 지인이라도 만나면 들르게 되는 커피 전문점에서의 커피 한 잔. 그러나 대화의 물꼬를 틀어주는 커피가 칼로리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커피 칼로리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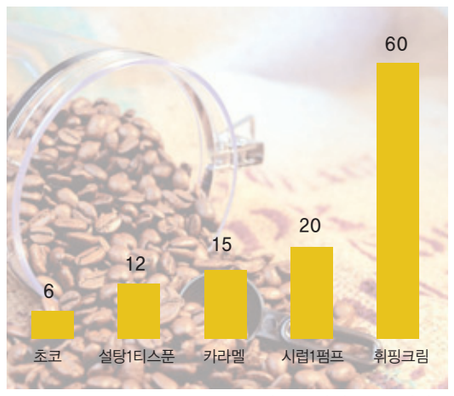
천진영 기자

■ 칼로리 비교





■ 커피에 추가하는 첨가물 칼로리



자료 스타벅스 , 동서식품

항상 아메리카노만 외치는 당신에게

알쏭달쏭한 커피이름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때~아메리카노 좋아~좋아~" 이 노래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인디밴드 10cm의 '아메리카노' 이다. 요즘 인기 있는 이 노래의 가사에는 커피전문점의 메뉴판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때 간단하게 아메리카노를 고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솔직한 심정을 노래한 이 가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웃음 짓게 만든다.

와인 열풍이 불던 2000년대 초 사람들은 모두 와인 소리만 들으면 얼어붙었다. 와인은 비쌀 것 같고, 식당에서도 뭘 주문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면 동행한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것만 같았다. 반대로 이를 즐기는 이도 있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가며 유식한 척 뽐내거나 상대방을 주눅 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새문화 유입에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중세 유럽에 고구마와 감자가 신항로를 통해 처음 유입됐을 때도 그랬다. 기근을 해소하기 위한 감자 장려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식이 되었지만 한동안 귀족들 사이에서는 감자와 고구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귀족들의 식탁에서만 볼 수 있는 값비싼 특산품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는 와인이 이런 문화의 유입에서 겪는 과도기 현상을 겪은 셈이다. 시중에는 와인을 '공부' 할 수 있는 책들이 쏟아졌고 강좌나 동호회도 경쟁적으로 생겨났다. 와인을 마실 줄 모르면 마치 문화시민이 아닌 듯 소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10여 년 새 불편하고 어색하던 풍속도는 다 사라졌다. 이제는 편안하게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잘 알면 자신의 취향에 잘 맞춰서 주문하고, 몰라도 식당의 소믈리에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여유를 가졌다. 대중화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해졌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커피는 한국에 정착한지 제법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또 한 번의 격변기를 거치고 있다. 1930년 일제강점기 때 시작한 커피문화는 문화 · 예술인의 사교모임의 매개체였다.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인스턴트커피가 유입되면서 비로소 커피의 대중화가 시작됐다. 그러다 1990년대 초 경제 호황기 때 콩을 집적 갈아 뜨거운 물을 내려 먹는 드립(Drip) 커피가 크게 유행했다. 지금은 에스프레소의 시대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유하고 또,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의 대중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벌써 드립 커피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라는 3가지 종류의 커피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다른 커피다. 커피가 다 똑같지…그게 그거 아냐? 라고 하지 말고 이왕 마시는 것 알고 마셔보자. 커피 마시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카페 모카에 모카가 들어가나? 모카는 뭐지?, 카페라떼랑 카푸치노는 뭐가 다른 거지?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달지 않은 커피는 아메리카노 하나뿐인가?

와인처럼 사치품으로 인식 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친근한 커피. 그러나 아직도 카페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너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가? 커피 종류 쉽게 알아보자.

천진영 기자



에스프레소 / 에스프레소 마끼야또 / 카페라떼 / 카푸치노 / 카페 모카 / 아메리카노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구름 타고 산에 오를까? 파도 타고 바다에 빠질까?

여름휴가로 안성맞춤 사찰 나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방학이라고 맘껏 노는 어린이도 청소년도 없지만 그래도 방학은 방학이다. 휴가라고 흥청망청 놀고 나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힘들어진다. 조용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가족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산속에 또, 바닷가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사찰여행의 장점은 휴식과 동시에 역사 공부도 병행 할 수 있다는 점. 사찰이 불교문화의 유적이기도 하지만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시원한 계곡 물이 좋은 지 널따란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가 좋은지만 정하면 될 것 같다.

山 산이 좋다

1. 소백산 희방폭포와 희방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에 희방 폭포로 유명한 희방사(주지 설송)가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딸을 구해준 구운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스님께서 공부하시던 소백산에 절을 지어 그 절을 이름을 기쁠 '희(喜)', 방 '방(方)' 자를 써서 희방사라 하였다. 죽령과 풍기역 사이 희방사역이 있다. 사찰 이름이 철도역 이름으로 등재 돼있어 가람규모가 큰 사찰이라고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소백산 남쪽 기슭 850m에 자리 잡은 아담한 사찰이다. 희방사 가는 방향에는 높이 28m의 영남 제1의 폭포인 희방폭포가 먼저 나와 더위에 지친 이들을 반긴다. 이를 두고 조선전기의 학자 서거정(1420~1488)은 '하늘이 내려준 꿈에서 노니는 듯한 풍경'이라고 극찬했다. 희방사를 지나 2.4km정도 더 가면 연화봉에도 오를 수 있다. (054)638-2400

2. 완산 8경 위봉폭포와 위봉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위치한 위봉사(주지 법중)는 비구니 도량이다. 대웅전인 보광명전은 보물 제608호로 지정 되어있을 만큼 수려하다. 위봉사 동쪽 위봉산성 동문 쪽에는 높이가 60m에 이르는 위봉폭포가 있다. 2단으로 꺾여 쏟아지는 물줄기는 예로부터 완산 8경에 드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추줄산 산행은 위봉산성을 기점으로 하는 코스가 4개 정도 있으며 2~4시간 가량 걸린다. 코스가 험하지 않아 가족단위 산행으로 적당하다. 찾아가려면 전주시에서 진안군 방면으로 26번국도를 이용하여 위봉산성으로 가면 되고, 대중교통은 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위봉산성에서 내린다. (063)243-7657

3. 강원도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산이다. 그런데 쉽게 금강산에 오르는 방법이 있다. '금강산 건봉사(주지 도후)'에 가는 것이다. 동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건봉사는 금강산 줄기가 시작되는 건봉산 감로봉의 동남쪽 자락에 위치해 있어 '금강산 건봉사'라고 불린다.

건봉사는 군사분계선(휴전선) 내에 있어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석가탄신일에만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다 1989년에야 출입이 전면 허용됐다. 절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 외길이지만 여전히 관광객이 많지 않아 한산하다. 너무 붐비지 않은 조용한 사찰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한다. 10km 근방에 반암해수욕장과 거진해수욕장이 위치해있다. (033)682-8100~2, www.geonbongsa.org

4. 서울 북한산 진관사 계곡

연간 120만 명이 다녀가는 북한산. 맑은 날 휴일이면 앞사람 엉덩이에 코박고 올라가야 한다는 백운대. 하지만 숨겨진 보물이 아직 남아 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북한산 자락의 진관사(주지 계호) 계곡이다. 신기할 만큼 한적한데다 진관사 앞에는 공영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주차도 편리하다. 물놀이용 튜브를 띄워두고 놀만큼 수량도, 깊이도 제법이다.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다. 연신내역에서 내려 7211번 버스를 타고 진관사 입구에서 내리면 된다.

진관사 계곡은 호젓하고 물 맑아 좋다는 입소문이 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한산함을 즐기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어서 가보자. (02)359-8410, www.jinkwansa.org

海 바다가 좋다

1.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사랑리에 위치한 해동용궁사(주지 정암). 바닷가 사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찰이다. 절벽 위에 위치한 절의 규모가 웅장하고 수려하다. 바로 발아래에 바닷물이 일렁이는듯해 수상법당 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동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해동용궁사는 1376년 고려말 공민왕의 왕사(王師)였던 나옹 대사(1320~1376)가 창건했다. 경관이 수려해 외국인 관객도 많이 찾으며 영어 · 중국어 · 일어로 된 공식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새벽 4시부터 입장 가능하고 일몰시 퇴장해야 한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자가용 주차는 2000원이다.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2. 인천 강화군 보문사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섬 강화도. 강화도의 서쪽 석모도에는 관음보살상을 포함해 3000불이 봉안된 보문사(주지 덕문)가있다.

절벽에는 마애불상이, 그 위로는 널따란 바위가 눈썹처럼 튀어나와 마애불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눈썹바위라고 불린다. 절에 올라가는 길 중턱쯤부터 서해안의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길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대중교통도 있어 서울에서 출발하는 이라면 차 없이도 가볼만 하다. (032)933-8271, www.bomunsa.net

3. 남해 금산 보리암

한려해상 국립공원 금산지구 내에 위치한 보리암(주지 능원)은 KBS '1박 2일' 팀도 다녀간 곳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엄태웅이 108배를 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제2주차장에 주차하면 보리암은 0.9km, 금산정상은 1km로 거리로 지척이다. 금산 보리암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2시간 여 오르면 정상에 도착 할 수 있다. 올라가는 길이 험하지 않아 아동을 동반한 가족나들이도 무리가 없다. 정상에 오르면 아래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꼭 사찰여행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남해로 여행을 간다면, 못보고 오면 배 아플 절경이다. 주차비는 5000원, 입장료는 1000원. (055)862-6115

4. 강원도 양양 낙산사

동해안의 절경을 다 가지고 있어 누구나 한번쯤을 가봤을 법한 사찰, 낙산사(주지 무문)이다. 반대로 아직 안 가봤다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사찰이다.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해수욕장도 지척에 있다.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거나 사찰문화를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더 적당하다. 108염주 꿰기, 마음나누기, 해돋이 명상, 발우 공양, 스님과 차담, 범종 체험 등으로 구성돼 지루할 틈이 없다. 템플스테이는 1박2일에 3만원이다. (033)672-2447~8, www.naksansa.or.kr

천진영 기자



양양 낙산사 홍련암



여수 향일암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육임 고귀명수(鼓龜命數) '각 12띠별 성부단정(成不斷定)'을 마치고, 재신청 및 교환 접수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육임의 **'정확도'**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옵고, 제가 일찍이 **방문**(전화)**자**가 물어오는 **세상사**(世上事) 각 항목들, 즉 **모망**(계획)/**공명**(승진발탁)/**구재**(금전)/**구직**(직장)/**시험**(합격)/**결혼**(성사)/**출산**(임신)/**가정**(흥쇠)/**이동**(보직이사)/**소송**(재판관재)/**질병**(치유사망)/**매매**(가옥토지)/**출행**(여행)/**도난**(누구회수)/**가출**(안부)/**대인**(올지말지)/**면접**(가부)/**채용**(길흉)/**투자**(득실)/**승부**(질지이길지)/**가격**(오를지내릴지)/**경작**(풍작흉작)/**묘지**(길지흉지이장지묘지속해소방법)/**기후**(청우여부 비오는 시간) 들에 대하여 **'된다' '안된다'**의 답(答)을 철저히 달아놓았으나,
사실은, **방문자의 12띠**(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잔나비 닭 개 돼지)**에 따라 변동이 있게되는데,** 제가 육임 사과삼전(四課三傳)을 분석해 표시해 놓은 **기존의 답(答)에**, 비록 **'된다'고 했더라도 반드시 '안되는 띠'가 있고,** 비록 **'안된다'고 했더라도 반드시 '되는 띠'가 있게 되는 것 까지는 미처 표시해 놓지 못했습니다.** 이 작업이 (아래양식) 워낙 방대(尨大) 지난(至難)한데다가 세밀(細密)한 주의력까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갑자일 본 5국수 항목(問)별 단정(卜)

공망 : 戌 · 亥

■각 띠 좌측칸은 낮시간 판단,
우측은 밤시간 판단에 해당됨

모망사	成否	상호간의 경쟁으로 이룰 수 없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공명사	成否	초에는 비용만 많이 들고 이룰 수 없다. 뒤에 조금 길(吉)하다.											
	결정	△	△	★	★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구재사	成否	재산은 얻으나 손재가 많다. 봄 · 겨울점은 길하고, 여름 · 가을점은 흉하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구직사	成否	비용이 많이 드는 취직은 되고, 길하다. 봄 · 겨울점도 길하다.											
	결정	△	△	★	★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시험사	成否	실력은 있으나 욕망이 과하여 성공할 수 없다. 실수를 주의하라.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결혼사	成否	연애결혼의 징조가 많고, 부부가 되면 불화가 많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임신사	成否	남아의 출산은 액을 만나고, 여아는 순탄하다.											
	결정				○	○	○	○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가정사	成否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관귀가 발동한다. 3합(三合)이 생기고 있으니, 흉한 것이 오히려 길하여 진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이동사	成否	이동하면 흉하다. 가택의 이사는 빠르면 길하고, 늦으면 흉하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소송사	成否	처음에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자신에게 불리하나, 뒤에 봄 · 겨울에는 자신이 길하다.											
	결정				★	★	★	★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질병사	成否	간장 · 대장 · 심장 · 신장병이 있으나 치료가 가능하다.											
	결정				★	★	★	★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매매사	成否	매매는 늦어지고, 하락함이 오히려 길하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출행사	成否	여행은 길하나 경비는 많이 든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도난사	成否	집안 친척이 은둔(隱遁)하여 볼 수 없다. 도적은 동남쪽에서 잡히고 물품은 찾지 못한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가출사	成否	비용은 많이 들지만 형제 · 친구 · 자손은 육합이 들어 찾을 수 있다.											
	결정				★	★	★	★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대인사	成否	오지 않는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면접사	成否	만나기는 하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채용사	成否	개띠 남자는 오래 있지 못하며 흉하다. 손재가 많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투자사	成否	먼저 투자하면 흉하고, 뒤에는 길하다. 비용이 많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승부사	成否	악전고투한다. 뒤에는 이롭다.											
	결정				○	○	○	○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가격사	成否	가격은 높지만 계속되지 못한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경작사	成否	야채 · 벼 · 검은 콩 · 호박을 나누어 심으면 길하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묘지사	成否	굴곡이 있는 자리에 석혈이 있으며, 화공업을 하면 자손이 성공한다.											
	결정				○	○	○	○			★	★	△	★							★	★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날씨사	成否	비가 아니면, 흰 구름이다.											
	결정									明	明												
	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 위 각 항목의 방문자 연명(띠) 위에 표시된 「★」표는 성(成)이고, 「△」표는 노력가능이며, 「○」표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띠는 불성(不成)으로 판단 한다!
즉, 「항목별 단정」의 답문(答文)에 비록 '된다'고 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또는 「○」가 표시된 띠 만은 '안 되는 것'이고 「항목별 단정」의 답문(答文)에 비록 '안 된다'고 되어있더라도 「★」표시 된 띠는 '된다'는 것이며 「△」표는 '노력가능' 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번 '고귀명수'를 보내드린 후, 문득 문득 생각 할 때, 이 작업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할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고, 그래야만 천세(千歲)에 남을 책 이라 할 수 있겠다 싶어, 낮 시간은 물론 밤 세우기를 수 십일 끝에, 드디어 좀 더 **완벽하고 손색없는** 귀서(貴書)로 **재차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본 '고귀명수'에는 방문, 또는 출생일 마다 육임 12국수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방문자가 묻거나 출생자가 겪고 갈, 위에 적시한 24가지의 '항목'에 '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하라' '마라' 등의 답문(答文)에, 다시 12띠별로 '확실히 된다' '절대 안된다' '노력하면 가망있다'는 표시를 가하므로서 우리의 판단이 백 번 맞게끔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굳히기'** 일 것이 틀림없겠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50만원 씩을 보내 주시고 신청하신 '고귀명수' 구입자 분 들 께**는 서둘러 보내 드리겠거니와, **'고귀명수'를 구입하시고도 아직 주문하지 않으신 분 들 께서는 80만원을 입금하시고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고귀명수'를 구입하실 분은 **3백 5십만원**을 입금하십시오.

강조해 드리건대, 아마 동양 3국에, 방문자(전화)들의 **'당면사'**와 **'일생사'**를, **귀신**(작사귀 병귀)을, **부정**(신변 가택)을, **산소탈**(어떤 좌산, 어느 좌향, 묘지에서 무엇이 보이는, 무슨 물형에 묻힌 육친 누구 산소의 혈장, 또는 묘지속에 든 무엇 때문에, 어떤 흉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가?)을, 이처럼 **폭넓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는 없습니다.

또, 제가 명시해놓은 이 형이상법의 그 **정확도**, 그 **효과성**, 그 **착목도**, 그 **간편성** 또한 **백미**로서, 감히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육임의 진수를 숨김없이 펼쳐놓았다는 점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에 본 '고귀명수'를 장착한데 대한 안내 말씀 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철저한 '고귀명수'를 '효사활인천역집'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잘 맞는 육임으로 누구든 그 사람의 **당면사**는 물론 **일생사**, 즉 **'일건적 판단'**과 **'일생적 판단'**이 **일목 요연**하고 **속도성**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재구성 시켰으므로 귀하가 **화면에 떠있는 글귀만 참고하시면 똑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인증기능도 없앴고, 내부 기능 또한 개선하여 이 이상 더 좋은 **'상담용'** 컨텐츠는 없습니다. 다만 비싼 것이 흠 입니다만, 그 **비싼 값을 백배로 해냅니다!**

방문자의 **신분직업/온 목적/내밀 사안/육친 불구상신**(傷身)여부/**배우자 복분과 용모 성질/본인 건강장수 질병요수/초 중 말년 운/남녀 나이별 사건/전체적 운명/구체적 특징/선천적 부귀빈천/변화 가능 종사업종/국가 고위 고시**(사법 행정 외무) **합격자 명시/초 중 말년 가정사 현상/각 나이별 귀신 부정 침범 유무/해소 지침 명기** 등등 사주(四柱)로 밝혀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모두 또박또박 써 놓아**, 이 내용들이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싫은 분은 **내일 올 사람의 사정을 오늘 밤이나 아침에 '주요 특징사'만 간단히 시간별로 메모해 두면 가히 더 필요할 것은 없겠습니다.**

참고로, 육임은 생년월일시를 묻는 않고 '만난 날'과 '만난 시간'만으로 상대의 전모와 일생사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이 '존재'라는 공간성, '순환'이라는 시간성, '만남'이라는 조우성, '오행'이라는 측정성에 의해, 인간의 우주적 생존 양태(樣態)를 조밀하게 짚어내는 **과학성**을 품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임을 흔히 점(占)이라 하나, 오히려 **'첨단 과학시대의 가장 신뢰할 만한 잣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집필을 꾸준히 해오는 동안, 저의 이익에 앞서,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해 왔습니다.

下元 甲子 辛卯年 癸未月 敲卜子 曉史 拜上

구입안내
가. 교환하실 분은 **50만원**을 2011. 8. 11일 까지 입금하십시오.
나. 신규 구입 신청 하실 분은 **5백 50만원**을 2011. 8. 11일 까지 입금하십시오.
다. 2011. 8. 11일 이후에는 650만원에 정가 판매됩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문의 및 입금통보
☎ 02)738-8680
070-9514-8680
fax 02)738-8681

저작권 등록번호
2011-01-199-000748

육임컨텐츠개발전문
육임나라주식회사
www.taotemple.net

참고 견뎌라.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최초 비구니 문화부장 탁연 스님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비구니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소임을 맡게 된 것은 41년이 흐른 뒤였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卓然)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역사적으로 한국불교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았지만 통합종단 이후 여성의 종단 참여는 불가능처럼 보였다.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선거공약과 시대적인 변화의 요청에 따라 2003년 비구니 대표로 탁연 스님을 임명했다. 스님의 역할은 막중했다. 스님이 처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 불교역사의 방향이 달려있었다.

하지만 조계종단 내 반발은 거셌다. 21세기 한국사회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탁연 스님은 특유의 뚝심과 배짱, 지혜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갔다. '탁연'이라는 한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한국불교 비구니 전체를, 그리고 재가 여성불자 모두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스님의 행정능력은 생각 외로 높이 평가됐고, 2005년 문화부장을 연임, 2008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 2010년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기에 이른다. 만해 NGO 우리함께 빌딩 불교와 젠더연구소에서 탁연 스님을 만났다. 예전에 비해 여유로워진 스님은 "정신없이 바쁠 때가 좋았다"고 회고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진주사범대 합격통지서를 들고 찾은 곳은 대학이 아닌 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출가 동기가 되겠네요. 친할머니께서 불심이 대단히 높으셨는데, 한국전쟁으로 20살에 미망인이 된 저의 어머니를 이 절 저 절 데리고 다니시며 큰스님을 친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24살에 발심하여 출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지요. 그 덕분에 저는 스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레 법문을 들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많은 인과법문과 함께 스님이 되어 수행을 잘하면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을 듣고, '나고 죽음이 없는 세상에 나도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사별한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와의 이별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죽음을 두려워했던 게지요. 스님이 되면 철저한 생활 속에 나날이 긴장의 연속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겨울 방학 때 젊은 스님들의 강원 생활과 경전공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정말 재미있게 들렸어요. 또 선생님이 되겠다던 나의 꿈을 출가하여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신선한 충격이 되어 하루라도 빨리 출가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죠. 졸업하자마자 출가하려하였는데. 뜬금없이 예비고사 제도가 생겨 졸업전에 시험을 치뤄야 했습니다. 만약 예비고사에 불합격하면 대학에 떨어져서 출가했다고 할 것이니 그것은 자존심이 용납을 안했어요. 몇 개월 동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공부를 해서 운 좋게 합격통지서를 받게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출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에 가서도 공부를 계속하셨습니까.

제가 출가했을 때 성철 스님께서 백련암에 계실 때였기에 자주 친견을 하게 됐습니다. 큰스님께선 죽을 힘을 다해 좌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원에서 강사스님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가 크게 꾸중을 듣고 좌선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허리를 다쳐 앉아서 정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는 저 때문에 은사스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척추 디스크와 싸우며 뒷방에서 〈치문〉 한 권을 다 배웠고, 출가한지 5년 만에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겨우 강원을 가서 민폐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도 강원생활은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강원 졸업 후 얼마 뒤에 비구니대학이 설립되어 다시 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구니대학을 다니면서 접어두었던 강사의 꿈을 조금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불교학 연구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던 일본서적이 공부에 도움은 주었지만 짧은 일본어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앞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어른스님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외국어 하나쯤은 능통해야 되니 일본어를 배우고 와서 강사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크게 용기를 내 일본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 나고 죽음 없는 세상 꿈꾸며 출가 결심
> 대학 떨어져 출가했단 말 싫어 공부 끝에
> 진주사범대 합격 통지서 받고 출가해

2~3년을 계획하고 갔습니다만, 조금 지내다보니 그곳에서 학비와 숙식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젊은 학생들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재미 있었습니다. 어차피 늦게 시작한 공부 끝까지는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박사과정을 끝내고 10년 만에 귀국을 하였으니 결국 출가해서 계속 글공부를 한 셈이 됩니다.

탁연 스님은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인사 국일암에서 현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6년 수원 봉녕사 강원을 졸업하고, 1983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 1986~1996년 10년간 일본 도쿄(東京)의 리쇼(立正)대학에서 불교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학위를 받고 대학으로 갈수도 있었지만 스님은 원래 꿈인 강원 강사의 길을 선택했다. 스님은 한동안 봉녕사 강사 소임에만 충실히 임했다. 2003년 3월 봉녕사 강사 휴식년을 맞아 벽해 스님이 계시는 산청 심적사로 내려가던 중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소임을 맡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수원 봉녕사 강사로써 6개월간의 휴가를 받았던 기간이었기에 그 기간 동안만 살겠다는 조건으로 소임을 맡겠다고 했다. 조계종 종단 최초로 여성으로서 지도자급 임명이었다.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공약으로 비구니부 신설을 내세웠다. 법장 스님은 공약대로 비구니부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혔고 대신 문화부장에 비구니를 임명하게 된다. 비구니 임명은 파격적이었다. 조계종단에 여성의 진출은 사회 이슈가 됐다. 하지만 종단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충돌이 이어졌다.

비구니를 최초로 부장에 임명한 것은 파격적이었기에 반발도 심했다고 하던데요.

"종단에서 부장 소임은 본사 주지급이라고 합니다. 본사 주지격인 자리를 비구니한테 준다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비구니에게 주기에는 아까운 자리라고 생각했고, 조계종단은 비구스님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걸핏하면 팔경계법을 들어 말문을 막게 하려던 비구스님들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행정상에 서열을 따지자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고 철없이 자리만 믿고 비구니가 기고만장할까봐 염려도 됐을 것입니다. 모두가 종단을 사랑하는 애종심의 발로였고, 또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9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보는 눈도 높아지고 듣는 귀도 많이 열려 엄청나게 변화 됐다고 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명장을 받기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길. 기자들의 축하 전화가 쇄도했다. 스님은 "보통이 넘는 자리로구나"라고 생각했다. 일부에서는 "(총무원에)들어오기만 들어와 보라"며 협박하는 이들도 있었다.

탁연 스님은 총무원에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임명장 수여식 당일 새벽 1시 "임명장 수여 시간인 아침 9시까지 우선 기다려 보고 (총무원에) 갈 때는 누구라도 대동하고 같이 가라"는 전화가 왔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서야 임명장을 받으러 오라는 총무원 측의 독촉 전화를 받았다. 스님은 여차하면 달아나야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신분증과 비상금, 손에는 가사장삼만 든 채 총무원에 들어섰다. 다행이 총무원은 조용했고, 총무원장 스님 접견실에는 수십 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문화부장 재직 중 현 조계종 총무원 건물인 불교문화역사박물관 공사를 마무리, 문화재 발굴, 보존 등의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비구니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화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구 스님에게도 문화부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방도 폐쇄도 없습니다. 제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비구니가 처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각 부실장 스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등 정부 예산심의 과정 등의 일을 비구니 혼자서 하기에 벅찰 때는 다른 부장 스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은 처음 접하는 일이라 항상 묻고 의논을 했어요. 어떤 일이든 부서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배짱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 문제를 만들기 전에 대화의 창을 넓혀서 즐거운 마음으로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었기에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비구니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주어진 일을 감당 못할 비구니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서로 보완해 주고 모르는 것은 깨우쳐주고 일깨워 주면서 서로가 힘을 합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로만 화합해야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아량이 넓은 비구 스님들께서 먼저 실천해 보이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아무리 한 부서가 커진다 해도 종단안의 일이기에 종단 스님들이 상생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최초로 비구니가 총무원의 부서장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비구니라는 대명사앞에 가로놓인 큰벽은 21세기라는 시간앞에서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스님은 복장 터질 옛 이야기를 쏟아냈다. 지난 일을 추억하기 보다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생긴 지혜와 아쉬움도 함께 털어놨다.

2006년의 일이다. 스님은 문화부장으로서 3·4급 승가고시를 준비하는 비구·비구니에게 성보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다. 강의를 하기 위해 강의 장소까지 갔는데 "비구니에게만 강의를 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비구가 비구니에게 예를 갖추고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율사 스님의 반대 때문이었다. 탁연 스님은 납득 할 수 없었다. 율법에는 어긋날 수 있어도, 조계종법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의 문화부장으로서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러간 것이기에 제지를 당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비구니에게만 해야하는 강의라면 못하겠다고 돌아와 버렸단다. 스님은 "대학에서는 비구니 교수한테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문화부장이 성보관리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질타했다.

탁연 스님은 이 문제를 몇몇 비구 스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가볍게 대꾸했다. 처음 사과라도 받겠다던 생각도 포기했다. 대신 이런 부분이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조계종법이구나' 라고 넘어가고 말았다. 탁연 스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비구니 스님들에게라도 강의를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었다. 그때만 해도 젊어서 참기가 어려웠다. 우리 종단엔 종법과 율법이 섞여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처음 임명장을 받았을 때 총무원장스님과 함께 해인사 종정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랬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중앙종회의원 상임분과위원장 스님들의 모임에서도 역시 총무원장스님이 비구니부장을 임명한 것을 놓고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다. 스님들은 종헌종법에 '비구' 라는 단어 옆에 '(니)' 를 넣어 '비구(니)' 라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야단들이었다. 함께 자리하고 있는 탁연 스님도 곱게 보지는 않았다.

어떤 스님들은 "임명은 원장스님께서 하셨지만 소임을 살고 못사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또 "강원에서 강의만 했으니 무슨 행정을 알겠느냐"는 등 무시와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거침없이 했다. 스님은 몇 번이고 벌떡 일어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최초 비구니 부장이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

사회 여성에 비해서 비구니의 종단 내 위상은 10여 년 전과 같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마도 처음 출가 때 부터 오직 한 마음 다스려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들어온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다 버리고 왔는데 새삼스레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두 번째의 이유가 아닌가합니다. 굳이 율법과 종법이라는 큰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는데 힘겹게 그 벽을 부수고 넘고 싶은 욕심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관습을 파하려면 일단은 깨고 부딪히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며 앞장을 서야하는데 아직은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각자의 길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에 연임된 탁연 스님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1994년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단법개정특위가 만들어지는 등 종헌법의 개정을 종단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개정과 관련한 어떤 제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종헌종법을 개정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 세속의 세간법과 달리 출세간법에서는 종단을 운영하기 위한 종법과 성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종법을 개정하려하면 율법을 들어 반대를 하기도 하니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그 시대와 지역에 맞게 법을 개정하라고 하셨으니 현 시대에 맞춰서 율법과 종법을 놓고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워낙 예민한 일이라.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성원간 대화 통해 지혜 모으면
아무리 조직 커져도 일 못할 비구니 없다
비구니부 설립은 한국불교 발전에 도움돼

비구니의 위상에 비구니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구니부가 설립이 되면 안으로는 총무원의 한 부서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종무행정에 가교가 될 것입니다. 밖으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구니의 특성을 살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개인의 적성에 걸 맞는 교육과 수행과 포교의 영역을 넓혀 간다면 비구니의 위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4년부터 이런 주장들은 있어왔지만, 많은 비구니스님들의 대부분이 전국비구니회에서 비구니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비구니부가 설립되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구니부가 설립되면 우선 안정적으로 총무원 집행부내에서 종단이 돌아가는 여러 모습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종단차원에서 비구니의 역할을 찾아 활동영역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서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재가자가 왜 나서서 출가자의 일을 이야기하느냐고도 합니다.

"종단을 이끌어가는 구성원은 사부대중인 비구.비구니. 우바새. 우바니입니다. 조계종단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는 구성원으로서 종단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출가와 재가라는 엄연한 구분이 있으니 서로가 지킬 선을 지키면서 정확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데 무작정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구니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후배 비구니들이 교단 내에서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각자가 "나 답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스승은 스승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갈 때 누군가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되리라 봅니다. 수행자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쉼 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 진정한 인격체가 갖춰질 때 자연히 지도자가 되리라 봅니다. 올곧은 신심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지도자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불교여성들에게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은 현실주의자이십니다. 과거는 지나가버렸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으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더 잘하겠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어제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니 언제 어디서 되돌아보아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 되겠지요.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참고 견딤으로서 이루어집니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세가지 병



동국대 선학과 교수

속살을 드러낸 목화송이 마냥 새하얀 뭉게구름을 본다. 교정의 유리벽에 반사되는 구름을 관찰하는 여유로움은 사색의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높은 벽에 앉아 낮잠을 즐기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노라면 휴식이란 저런걸까 생각하게도 한다. 몹시 더운 삼복에 시원한 산들바람이 초록의 잎을 나부낄 때 형체 없는 것의 위대함을 느끼곤 한다. 쉼 없이 솟아나는 옹달샘에서 갈증을 해소 했을 때의 물맛이란 어느 산해진미에 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육신의 눈과 귀와 입으로 느끼는 경험은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원천이 되기 마련이다.

에머슨(R. W. Emerson)은 말했다. "건강한 하루를 달라. 그러면 어떤 제왕의 영광도 일소(一笑)에 부치리라." 아마 그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다. 언젠가 병(病)이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자문(自問) 해 본 적이 있다. 병은 dis와 ease의 결합어이다. 안심(ease)에서 동떨어 짐(dis)이 병이 된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안심하고 편히 쉬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산소마스크를 쓰고 숨쉬는 환자를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범어로 병은 vy?dhi 라고 한다. 동사는 vy?dh 이다. '떨다, 떨리다' 혹은 '흔들리다, 동요하다' 의 뜻이다. 즉 육신이든 숨결이든 정상의 상태를 벗어났을 때 병이라고 말하고 있다. roga 는 동의어 이다.

현사(玄沙) 스님은 둔근기(鈍根機)의 수행자를 세 가지의 신체장애에 비유하여 말한 적이 있다. 스님은 설봉(雪峰)의 법을 받았으며 휘(諱)는 사비(師備)이고, 속성은 사(謝)씨이다. 현사스님은 스승의 권고에 따라 제방을 다니고자 짐을 꾸려 나섰다. 마침 고갯마루를 지나다가 돌부리에 발가락이 치이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아야~' 하는 자신의 소리에 기연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현사 스님이 수행자들에게 말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수행자들이 모두 포교다 전도다 하고 남을 돕는다고 하는데, 세 가지 병을 앓는 자가 불쑥 찾아오면 어떻게 교화시키겠느냐, 시각장애인에겐 쇠몽치를 쥐고 총채를 세운들 보일 리가 없고, 청각장애인에겐 입이 아프게 말해 봤자 들릴 리 없으며, 벙어리에겐 아무리 말을 하라고 한들 말할 리 없으니 대체 어떻게 교화시키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없다면 불법의 영험 따위란 없지 않느냐."

한 납자(衲子)가 현사 스님의 말뜻을 알 수 없어 운문 스님에게 가서 그 문제를 물었다. 그러자 운문이 말했다. "네가 그걸 알고 싶다면 먼저 절을 하거라!" 납자는 그러면 가르쳐줄 줄 알고 절을 하고 일어나니까 운문이 주장자로 치려 했다. 납자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너 장님은 아니구나" 하고 말하면서 다시 앞으로 다가오라고 불렀다. 다가오자 운문은 "너 귀머거리도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는 이어 "어때 알겠느냐" 하고 물었다. 납자는 "모르겠는데요" 하자 "허, 벙어리도 아닌데!"라고 운문이 뇌까렸을 때 수행자는 비로소 조금은 눈앞이 트였다. 위 내용은 〈유마경〉 제자품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 못한다고 하면 혀를 차며 안쓰러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로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참된 빛깔이 보이고 귀가 멀었을 때 비로소 참된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오히려 눈이 터져있으므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귀가 뚫려 있으므로 들은 것에 집착하기 쉬운 것이다. 보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말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히 도인이라 할 만하다.

테니스 라켓을 잡아 본 적이 없는 필자는 체

"보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말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히 도인이라 할 만하다"

육 원서 가운데 테니스 부분을 번역한 적이 있다. 그 흔한 love란 단어에 막히고 말았다. 테니스에서는 영점을 말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사전을 들었다.

테니스 경기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모두 소유하려고 하면서도 이 경기에서만은 자신에게 넘어 온 공을 상대 선수 쪽으로 부지런히 쳐 넘겨 댄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다. 그것도 서브하는 법과 백핸드, 포어핸드 사용법을 배우고 지구력과 반사 능력을 키워서 능숙하게 넘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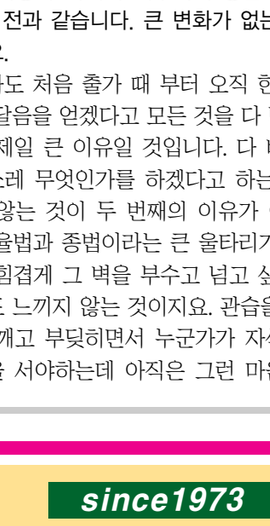
공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테니스 경기와 수행은 일맥상통 하는 점이 신기하기도 하다. 수행은 덜어내기의 닦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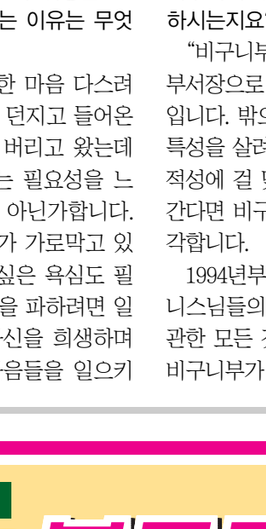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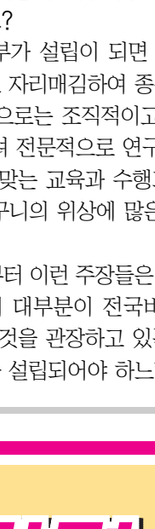
듣는 자 보다 듣지 못하는 자, 보는 자 보다 보지 못하는 자, 말 잘하는 자 보다 말 못하는 자야말로 세 가지 병에서 완치된 탈속한 사람이다.

since1973
2012년 불교달력 주문받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불교달력을 생산원가로 공급해 드립니다."


12절 반야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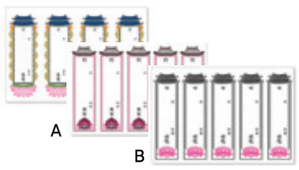

수첩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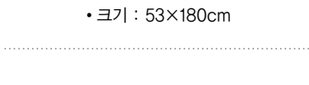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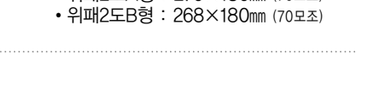

미니달력

★전화 주시면 달력 · 용품카다록 발송 해드립니다.
TEL.(051)515-8888 / H.P 011-554-2988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cm


위패칼라/위패2도 A형/B형
정 가 3,000원(100매)
• 위 패 칼 라 : 268×180㎜ (70모조)
• 위패2도A형 : 270×180㎜ (70모조)
• 위패2도B형 : 268×180㎜ (70모조)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옷/여자옷/위패


종이신발(남/여) 종이짚신 1켤레
할인가 1,300원 (100켤레 이상)
정 가 1,6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우리말)
할인가 1,800원 (100권 이상)
정 가 3,000원 (102페이지)


금강경 독송용
할인가 2,400원 (50권 이상)
정 가 4,000원 (144페이지)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C형-남 정가 1,200원 D형-여 정가 1,1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6

세상 밖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방법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는 지금보다 더 월등한 세계화정신이 깃든 때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깨어난 세계인이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8세기 신라의 혜초 스님이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당나라로 가서 스승 금강지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천축국행을 결행한다. 사실 천축국에 관해 혜초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의 법현과 현장 스님이 갔다 온 기록이 있다. 그들과 다르게 혜초 스님은 지금의 불교성지인 인도만 다녀온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등지까지도 폭넓게 다녀왔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은 세계 4대 여행기로 손꼽히는 우리의 소중한 기록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앞선 기록이라 그 의미가 크다. 그는 부처님성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은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종교의 지역을 넘나들었다. 무려 40여 개의 나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역의 길을 순례하면서 20대의 젊은 구도승 혜초가 풀고자 했던 화두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혜초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경계를 허무는 그것. 그것은 세상이었다. 아니 세상 밖의 또 다른 세상이었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는 불교성지에 대한 묘사로 시작해, 힌두교·이슬람교 등을 관찰한 내용이 나온다. 또한 각 지역의 특이한 문화형태나 기후, 자신의 소감 등을 표현하고 있다. 혜초 스님은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 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려 했으며 이를 소개한 진정한 세계인이었다.

요즘 사찰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별 여행, 템플스테이 등으로 외국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사회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홀하고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돈이 되는 상품화에는 반짝하면서,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문제점에 대한 모색과 이해, 그리고 자비심있는 활동 등에는 그 빛이 너무나 미약하기 짝이 없다.

소위 불교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도 거의 다 교회로 가고 있다. 북한 동포들도 손 내밀어주는 곳에 의지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의 자비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대화상대가 돼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아이들도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터전을 스스로 막고 있다. 몇몇 열심히 뛰고 있는 스님들만으로 부족하다. 전 종교차원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하고 싶어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하고 있다. 체계적인 대안마련과 실행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대대적인 일을 펼쳐나가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민간단체는 그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기 마련이다. 서로가 협심해 나아갈 때 우리사회가 올곧게 발전하여 나갈 수 있다. 모든 문화의 선두는 불교였음을 새삼 느끼며 21세기에 우리 불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는 불교 성지에 대한 묘사로 시작해, 힌두교·이슬람교 등을 관찰한 내용이 나온다. 펠리오가 발견한 〈왕오천축국전〉.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정치전 건강칼럼⑪

잠 충분해야 기미 안생긴다

피서철이 되면 산이나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강렬한 햇볕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한 자외선이 피부의 노폐물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멜라닌 색소의 분비를 증가시켜 '기미'가 생기는 탓이다. 그렇다고 '방콕'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걱정 근심 불안 긴장 짜증 등이 많은 경우에 위장과 간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 기미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신경과 관련 있어 신경을 쓰면 색소가 많이 나온다.

의외로 전체 기미 환자의 10~15% 정도가 남성이다. 더욱이 일단 생긴 기미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과로할 경우 더욱 진해져 보이기 쉽다. 기미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햇볕의 자외선을 직접 강하게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리고 임신 1~2개월에 심하게 생겼다가 출산 후 몇 달 지나면 없어지지만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자궁이나 그 부속기관들의 질병으로 인해 생기기도 하는데, 생리불순 냉증 유산 자궁수술 등이 원인이 된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위장이나 간장 등의 만성 질병, 피임약의 부작용, 화장품, 약물 등도 원인이다.

기미에 대한 대책은 햇볕을 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궁 계통의 질환이나 위장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지를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미가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격이 조급하고 옆구리가 잘 아프며 생리가 좋지 못한 경우는 간장의 기가 맺히고 어혈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기와 혈을 소통시키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쓴다.

만약 몸이 무겁고 찌뿌듯하며 피곤하고 얼굴색이 창백하거나 누런 사람은 비장에 습기가 많은 것이 원인이므로 땀이나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약을 쓴다. 그리고 기미가 생긴 지 오래되고 얼굴색이 검어지며 허리와 무릎이 약하고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은 신장의 기가 허약해진 탓이므로 보약이 필요하다. 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둥굴레차와 솔잎차, 수박껍질

삶은 물 등이 있다. 귤 토마토 배추 피망 감자 고구마 등의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주고 미백(美白)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기미를 비롯한 피부 질환의 치료에는 찬 성질을 가진 약재를 써야 한다. 오이를 잘게 썰어 붙이거나, 팥과 녹두를 가루 내 꿀이나 계란 흰자에 반죽해 얼굴에 붙인다. 다시마, 감자도 열을 내려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므로 좋다. 감자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으며 손상된 피부를 되살린다. 쌀뜨물로 얼굴을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 술, 담배 등은 혈액을 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고, 신경안정제, 두통약, 진통제, 항생제 등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대변이 잘 나와야 한다. 변비가 있으면 대장의 독소가 혈액을 타고 피부로 가서 피부에 장애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과, 복숭아를 즐겨 먹는 여성은 변비가 없으면서 피부도 곱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경을 지나치게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걱정이 지나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기미가 더욱 심해지고 진해지게 된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화내지 않으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웃으며 지내고 적당한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비결이다.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5 – 현재를 알아차려라

현재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려라

위빠사나 수행은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다.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sati)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아차림은 대상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게 해 대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활 속의 위빠사나 수행은 현재 자신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

내 몸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일어나는지 등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차리면 된다.

예를 들면 나아가고 물러날 때, 앞을 보고 돌아볼 때, 의복을 입을 때, 잠을 자

수행은 긴장없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은 가능한 만큼만
노력하면 알아차림 강해진다
생각 내려놓고 현재에만 집중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고 깰 때, 대소변을 볼 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 볼 때 등 몸[身]을 분명히 알아차린다.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지, 느낌[受]들을 분명히 알아차린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린다. 탐욕이 일어나는지, 탐욕이 없는지, 화가 일어나는지, 화가 없는지,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 어리석음이 없는지 등 마음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음[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또한 어떤 의도가 일어나는지, 어떤 장애요소가 일어나는지, 법(法)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현재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긴장을 하거나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한다 생각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알아차려야 한다.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가서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한걸음 물러서서 거리를 두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치 영화관에서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영화를 볼 때처럼,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한걸음 물러서서 알아차리면 된다.

이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알아차리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긴장이 심해져서 두통이 오거나 몸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력하다보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서 점점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과거의 생각, 기억, 아픔 등이나 미래의 걱정, 계획, 근심 등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연연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떠돌아다닌다면 실제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환상을 자기 모습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셋째 대상을 취사선택하려고 하지 말라. 원하지 않는 대상이든지 원하는 대상이든지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번뇌가 일어나면 싫어한다. 그러나 아라한이 아니라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새로운 번뇌인 성냄이 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단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원하는 대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새로운 번뇌인 탐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든지 취사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이상에 주의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자신의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 즉 오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오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출발점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빙의 등

미국 스탠톤대학교 부설 최면연구소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현재 접수중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

(사)일붕법왕문도회
정식 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회가 정식 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일붕법왕문도회에서는 앞으로 큰스님으로 부터 정식으로 건당을 받은 제자들로 구성하여 문도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문도회에서는 앞으로 큰스님에 대한 업적 사업은 물론 문도록을 제작하여 문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도회에서는 일붕문도신문을 발행하여 배포 할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문도들 간에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일붕선교종과 함께 호국불교효예종,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일류평화불교연맹 등 기타 종단과 함께 저희 일붕법왕문도회에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도회 공동의장에는 영주 관음사 도기 대종사와, 팔봉사 월호대종사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문도들이 정식으로 동참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문도회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어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식 후원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통장으로만 접수 합니다.

후원금은 문도록 및 신문제작 그리고 비석, 흉상, 동상 보수 및 큰스님의 자료수집에 소중히 쓰여 질 예정입니다.

◇ 후 원 금 ◇

· 은행명 : 하나은행, 후원금계좌
· 예금주 : (사) 일붕법왕문도회
· 계좌번호 : 011-3417-1010-604 입니다.

저희 문도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면
은행 계좌번호는 쉽게 기억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사)일붕법왕문도회 ☎ 02)3417-1010

삼사일체-일붕일붕 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원진 명단 ◇

공동의장 : **김도기 대종사, 박월호 대종사**
명예총재 : **장봉암**
사무총장 : **석무각**
이 사 : **신법진, 김혜운, 주도화, 박지광, 정철, 윤붕안**
감 사 : **박도천, 김청산** 이사장 : **이담화**

중국구화산 김지장왕보살앙찬비 재건립불사 회향대법회 동참안내

금번 사단법인 일붕법왕문도회 설립 기념으로 중국 구화산「일붕존자님 김지장왕보살 앙찬시비」를 재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중국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를 받아 비석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구화산김지장왕보살앙찬비」는 일붕존자님께서 신라왕자로 단신 중국에 건너가 구화산을 중심으로 오랜 수행과 불교를 홍포하여 불교사에 큰 성인으로 추앙 받고 계신 김교각지장왕보살님의 높으신 공덕을 찬양하고 영구히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지난 1992년에 큰스님께서 중국 구화산 자락에 손수 건립하셨던 앙찬시비로서 20여년이 지난 현재 비석이 훼손 되어 큰스님을 존경하는 대덕 큰스님 및 불자들을 중심으로 사부대중들이 합심 동참하는 가운데 범 종단, 범불교도 차원에서 우리나라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이 시대의 우리의 큰 스승이신 일붕존자님의 그 숭고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현재 비석이 위치해 있는 구화산에 비석을 새롭게 제작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불사를 추진하여 오는 8월 22일에 구화산 현지에서 회향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방각처의 일붕존자님 제자는 물론 뜻 있는 불자 사부대중은「구화산 회향 대 법회」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번 불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대덕큰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석에 이름을 새기실 분은 1인당 십만원이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현지에서 제막식에 참여 하실 스님 및 불자님들은 아래 지정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 여행기간 : 2011년 8월 21일 ~ 8월 25일
■ 여행지역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상해
■ 여행경비 : 한화 990,000원(항공할증료, 팁 등 일체포함)

■ 주 최 : (사) 일붕법왕문도회 김지장왕보살앙찬비 재 건립추진위원회
■ 공동대표 : 총재 김도기, 박월호 합장
■ 후 원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사)세계일류평화불교연맹 / 현대불교신문 / BTN / 법왕청신문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 암 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 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直指' 이제는 한글로 본다

〈직 지〉





대강백 무비 스님, 원문 완역에 명쾌한 강설 더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가 한글로 완역됐다.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사진)은 최근 〈직지〉를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쓴 〈직지 강설〉 상 · 하권을 펴냈다.

〈직지(直指)〉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줄여서 〈직지심경(直指心經)〉 또는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고 부른다. 〈직지〉에는 과거 7불의 가르침과 인도의 28조사의 가르침, 중국의 100 선사의 가르침이 모아져 145가(家)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부처님 말씀[法]과 〈육조단경〉처럼 그에 버금가는 조사(祖師) 스님들의 어록에만 허락한 '경(經)'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달고 있는 책은 고려 말 백운경한 스님이 불조의 가르침을 가려 뽑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직지〉를 인류 최고의 금속활자본 정도로만 기억한다.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 조상들이 왜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만들어 〈직지〉를 널리 퍼뜨렸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무비 스님은 "〈직지〉는 팔만대장경과 모든 조사 어록의 요점만을 집약한 만고의 보물임에도 인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만이 조명돼 왔다. 이에 〈직지〉가 문화유산의 가치보다도 천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류의 정신을 구제할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강설을 시도해 봤다"고 말한다.

무비 스님은 책을 통해 선불교의 핵심을 꿰뚫어 보여준다.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사람들이 부처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 인생의 가치관이 심하게 혼미해진 인류의 정신을 구제하고 가치관을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가 선불교"라며 "미래 인류의 정신적 대안인 선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데 다행히 〈직지〉가 있었다"고 말한다.

무비 스님은 〈직지〉는 방편을 조금도 빌리지 않고 불조의 깨달음을 바로 가리킨 선불교의 모범이라고 찬탄한다. 그 이름처럼 〈직지〉야 말로 인류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정신을 구제할 선불교의 최고의 교과서라고도 말한다.

스님은 책 서문의 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직지(直指)〉와 인연한 모든 분들이 혜안이 통투(通透)하여 지혜로운 삶을 누리며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의 원력을 세워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지는 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이은 대강백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대 역경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 중인 스님은 인터넷 카페 염화실(cafe.daum.net/yumhwasil)에서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무비 스님은 최근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발행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을 중앙승가대학교 와 전국 강원 등에 대량으로 무주상 법보시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무비 스님은 "적어도 공부하는 강원이나 승가대학의 학인스님들은 한 권씩의 불교사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직지 강설 | 무비 스님 | 불광출판사 펴냄 | 상 · 하 각권 2만3000원 조동섭 기자





선의 황금시대 순례기

정찬주 작가의 '행복한 선 여행'

지난 세기말부터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하고 선(禪)이 조명을 받고 있다.

선은 6세기 초 인도의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해 당송시대를 거치며 5가 7종의 독특한 중국 선종으로 발전한다. 이 당송 시기를 선의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빛나는 별 같은 수백, 수천 명의 고승이 출현해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행복한 선 여행〉의 저자 정찬주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라며 "불교는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말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에 선의 황금시대는 더 크게 꽃 피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찬주 작가와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선원의 재가불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순례를 마쳤다. 이들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석했던 열두 사찰을 돌아봤다.

순례 일행은 짙은 비구름 자락을 뚫고 남악 형산 척발봉의 남악회양선사묘탑에서 순례를 시작해 남악형산, 밀인사, 석상사, 서은사, 백장사, 황벽사, 보리사, 보통사, 보봉사, 진여사, 우민사 등을 순례했다. 이들이 함께한 순례에는 1000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한 21세기 제자들이 참나를 찾는 행복한 구도의 향연이 펼쳐진다.



행복한 선 여행|정찬주 지음|미들하우스 펴냄|1만5000원 이나은 기자

내 안의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염불하라

덕산 스님, 체험 통한 염불선 수행의 이론과 실제 밝혀

"염(念)이란 각 사람마다 일으키는 현재의 한 생각이고, 부처(佛)란 사람마다 깨달은 참 성품이다. 지금 한 생각으로 불성을 깨달아 간다면, 이는 곧 근기가 수승한 사람의 염불로서, 부처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본래 부처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수행이다."(〈대지도론〉)

〈염불선〉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등을 통해 염불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던 청원 혜원사 주지 덕산 스님이 염불선 수행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밝히는 책을 출간했다.

스님은 그간 염불선을 역사적, 이론적 근거를 밝혀 현대적인 염불선의 기초를 설명해왔다면, 이번 책에서는 염불선 수행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덕산 스님은 염불과 참선의 장점을 결합한 염불선에 대해 "기존의 정토염불로는 자성을 깨닫기 힘들다. 또 간화선에서 '무(無)'나 '이 뭣고?' 등의 화두들이 의심이 잘 되지 않아 득력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염불정근으로 업을 녹인 후,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챙기면 훨씬 수월하게 득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책에서 재가자들이 자주 묻는 수행법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명쾌한 답변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수행으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발심이 중요하다. 발심은 죽음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며 "간절한 발심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라고 말한다.

덕산 스님은 무엇보다 "염불선 수행자는 현생과 극락에서의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님은 "내가 본래 부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정토 염불이 아닌, 내 안의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염불해야 한다. '아미타불' 또는 '지장' '관음'을 입을 움직이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염하되, 우주의 주인인 '염불하는 그 놈'에 마음을 두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잠드는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덕산 지음|비움과 소통 펴냄|1만3000원

이은정 기자

일러스트로 배우는 명상

300여컷 독특한 편집 돋보여

불교 수행방법중 하나인 명상은 수천 년 동안 효과를 입증해 오고 있는 해탈 법문이다.

심리 전문가이자 재가불자인 란메이(藍梅)가 그의 저서 〈불교명상〉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각종 일러스트와 도표를 이용한 〈불교명상〉은 독특한 편집 수법을 사용해 독자가 간단한 명상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활과 자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유쾌하고도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자들은 정밀한 300여 컷의 일러스트와 100여개의 도표를 따라 이 책을 읽어가면서 평온하고 행복한 정신적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명상법은 불교 명상 수련법의 정화 가운데 실천적인 방법만 가려낸 것들이다.

도시에서 유행하는 마음의 수련에 관한 각양각색의 수련법 중에서도 명상 수련법은 특히 일상생활이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내면의 근심이나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 수련자의 의식과 정신을 이완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불교명상|란메이 지음|김진무 옮김|일빛 펴냄|2만5000원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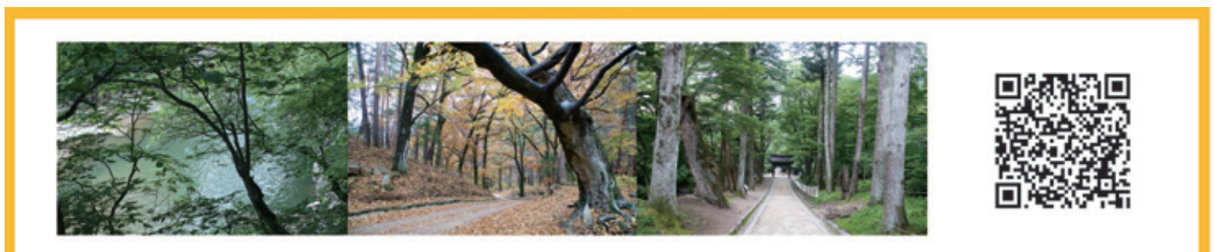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3~7/1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4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김상백	운주사
5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6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7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8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쾨게 랜스제	21세기북스
9	세 관문을 통과하다	한경혜	작가의집
10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성전	마음의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대한민국 음성포교 1인자의 세번째 음반

정율 스님, 5년간 미국 음성포교 활동 접고 귀국

'노래하는 스님' '성악가 스님'으로 유명한 정율 스님(사진)이 5년간의 미국 음성포교를 마치고 3집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3집 앨범 '오늘은 좋은 날'은 정율 스님이 불교TV에서 3년간 진행했던 '정율 스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교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을 모아 만든 것이다.

앨범에는 정율 스님이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부른 △무상 △길을 갑니다 △님께로 가오니 △빛으로 돌아오소서 △구름걷힌 달처럼 등 12곡이 수록됐다.

대한민국 음성포교 1인자로 꼽히는 정율 스님은 노래로 포교를 해온 지 25년째다. 스님은 불교TV찬불가 지도활동을 비롯해 음악회 공연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방송을 탔다.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2004년 대만 국부기념관에서 열린 봉축행사와 태국 행사장에서 스님이 부른 찬불가로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국에서 음성포교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은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메타 수행을 하고 있던 2006년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다. 전등사 보광 스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봉축법회 연합합창단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 한 것.

미국으로 가게 된 인연에 대해 정율 스님은 "한번 스쳐간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한생각을 잘 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스님이 해외 포교를 결심하게 된 것은 수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잊지 못할 기억 때문이다.

정율 스님이 토론토에서 불교음악에 대해 강의를 할 때 찬불가의 환희심에 감동한 불자들이 찬불가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때 스님은 "기회가 오면 외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낸 한생각으로 스님은 5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월 1~2회 찬불가합창단을 지도하고 뉴욕 불광선원, 뉴저지 원적사를 비롯해 텍사스, 하와이, 애틀란타, 시카고 등지를 순회하며 150여 회의 초청공연과 강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미국 포교의 어려움은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한인들은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심이 있어도 바쁜 생활 때문에 법회를 나오기 어렵거든요."



불모지나 다름없던 미국 포교의 현장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다. 2009년 9월 샌프란시스코 성마이클SF한인성당에서 열린 사랑·자비·희망 콘서트가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천주교 성가대와 불교합창단이 함께 참여한 이 공연에는 한국불자들뿐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인, 미국인, 멕시코인, 중국인 등 인종과 종교를 넘은 1000여 관람객들이 모였다.

정율 스님은 이 공연에서 모인 수익금을 지구촌 공생회, 티베트 어린이 돕기,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돕기 등에 지원했다.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한 정율 스님은 "미국은 수행자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다. 생활하기 바빠 삭막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앞만 보며 달려왔던 미국은 내게 기도를 주로 하게 만들어주었으며 불자들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곳"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스님은 "이 세상에 억지로 되는 것은 없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대로, 노래하는 것 자체를 나의 수행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율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원광대 사범대학 음악교육학 성악과와 동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대만, 중국, 캐나다, 방콕 등지에서 500여 회의 음악회 연주를 가졌고 KBS-TV, 라디오, 불교방송, 원불교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목인박물관, 여름맞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展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13억 4000만)가 살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다. 다양한 민족과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만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길 기원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의 안위를 간절하게 빌었다. 때로는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며 높은 관직에 올라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이런 간절한 믿음들은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늘 함께 했다.

나무로 조각한 민속조각들을 모아 전시하는 목인(木人)박물관에서 여름맞이 특별전 '비나이다 비나이다 展'을 연다.

중국에서 부를 가져다주는 재물신, 아이를 보내주는 송자관음, 시험합격 기원과 출세를 기원하는 문신, 가족들을 지켜주는 조상신 등 다양한 중국 목인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우리에게 친근한 포대화상 조각을 볼 수 있다. 항상 잡동사니들을 쑤셔 넣은 포대를 지팡이로 메고 시내를 배회한 포대화상은 미륵의 화신으로 근세 중국에서는 재신(財神)으로서 일반인들의 신앙을 모으고 있다.

연밥은 연꽃의 열매로 씨앗이 많이 들어 있는데, 생식이 번영하는 것과 더불어 풍작 기원을 상징한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호신조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녔다.

박물관에서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복을 불러 오는 다양한 목판, 부적 찍기와 이번 전시의 마스코트인 포대화상으로 책갈피 만들기를 실시한다. 전시기간은 8월 31일까지. (02)722-5066 이나은 기자


포대화상

조상신

일반에 최초 공개되는 외규장각 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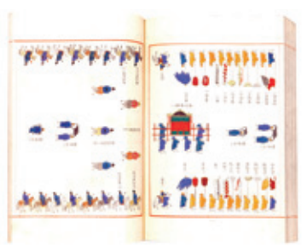
9월 18일까지 국립중앙博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7월 19일~9월 18일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개최해 외규장각 의궤를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풍정도감의궤〉 등 71점의 외규장각 의궤를 중심으로 전시되며 의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강화부 궁전도〉 등 관련 유물을 함께 배치해 총 165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조선왕조 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미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다. 조선왕조 내내 의궤는 꾸준히 제작되어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의 특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통치 철학 및 운영체계를 알게 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기록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그동안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알리고 무엇보다 의궤 귀환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1725)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⑨

콩국수

우리집은 여름철만 되면 콩국수를 꼭 만들어 먹었다. 여름철 별미기도 하지만 콩국수는 아버지 생신 상에 오르는 단골 메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생신은 음력으로 항상 7월에 돌아왔다. 엄마는 아버지 생신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항상 콩국수를 대접했다.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게 귀찮을 법도 한데, 싫은 내색을 하신 적이 없었다. 아빠는 은근히 '엄마표 콩국수'를 자랑스러워했다. 엄마의 콩국수를 맛 본 분들은, 어김없이 칭찬일색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올해는 아빠 생신이 언제 돌아오냐며, 먼저 물어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어릴 때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콩물의 맛을 잘 몰라, 엄마가 만들어 주는 콩국수를 잘 먹지 않았다. 엄마의 콩국수 맛을 제대로 알게 된 건 20살이 넘어서부터였다. 사람들과 섞여 이곳저곳의 식당에서 콩국수를 맛보니, 엄마가 만들어 준 콩국수가 '진짜 콩국수'라는 걸 새삼 알았다.

사실 콩국수 만드는 일은 여간 해선 쉽지 않은 일이다. 밀가루 반죽을 해 면을 만들어야 되고, 콩은 불리고 삶고 갈아 콩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콩의 고소한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생각해 보니 엄마입장에선 정말 귀찮은 일이었을 텐데, 여름이 다가오면 얼음을 동동 띄운 '엄마표 콩국수'가 생각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야 '이번 여름도 잘 먹고, 잘 지냈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알고가기 콩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만인 사람들에게 좋다. 특히 콩의 이소플라본은 성인병예방과 노화방지에 탁월하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은 고단백질 식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콩은 껍질이 얇고 깨끗하며, 색이 노랗고 윤기가 많이 나는 것이 좋다. 보통 말린콩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불린 뒤 요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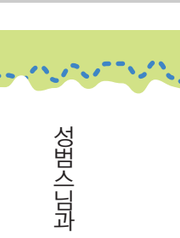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콩250g, 밀가루 2컵, 콩가루 4분의1컵, 들깨 3큰술

음식 만들기
①콩은 물에 담군 후, 6~7시간 불린다.
②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 반죽한 뒤, 밀대로 밀어 적당한 굵기고 썰어준다.
③불린 콩은 냄비에 넣어 7~10분 정도 다시 삶아 낸다.
④삶은 콩과 들깨가루를 섞어, 믹서기에 넣고 갈아준다.
⑤갈아낸 콩은 채에 한번 걸러낸다.
⑥썰어낸 면발들은 끓는 물에 삶아 낸 뒤, 콩물을 부어 준다.
⑦콩물은 입맛에 따라 소금으로 간한다.



성법스님과 함께 보는 금강경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저자 성법 스님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밌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걸상



8각좌대 천보부처님 전문업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천보소불도매

있는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손알리미 : 010-5595-8533
알하는곳 : 054) 773-8533

백제가 사라지자… 절이 그들의 백제가 되었다

⑫ 연기 비암사(碑巖寺)

장마가 지나간 숲길은 앓고 일어난 몸처럼 선명했다. 숲길이 끝나자 돌계단 위로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사천왕처럼 서있다. 800년을 넘게 살았다고 적혀있다. 돌계단을 오르자 산새 한 마리가 느티나무 가지에 날아와 앉더니 고개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한다. 제 집이라고 들고 나는 이를 살피는 것일까. 산새가 날아간 빈 가지 너머로 극락전이 보인다. 비암사다.

비암사는 창건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멸망한 백제의 유민이 세운 백제의 마지막 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비암사에서 발견된 국보 제106호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 삼존 석상(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에 "전(全)씨들이 마음을 합쳐 아미타불과 관세음, 대세지보살상을 삼가 석불로 새긴다. 계유년(673년) 4월 15일 (중략) 목(木)아무개 대사 등 50여 선지식이 함께 국왕, 대신, 7세(七世) 부모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절을 짓고 이 석상을 만들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가 창건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무튼 나라를 잃은 백제의 유민들은 이 곳 비암사에서 백제의 재건을 염원했고, 부처님께 의지했다.

햇볕에 바짝 마른 석탑엔 박새 한 마리 날아와 앉았고, 박새가 날아온 파란 하늘엔 뭉게구름이 흘러간다. 커다란 용이 떠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구름은 흰 고무신 같기도 하다. 설선당 댓돌 위에도 하얀 고무신 한 켤레가 세워져 있다. 비를 맞았던 것 같다. 두어 시간이 지났지만 도량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참배객 하나 없다. 박새 한 마리, 댓돌 위에 흰 고무신 한 켤레, 잔디 위에 나비, 잠자리. 적막을 깨고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이 극락전 돌계단을 내려온다. 저녁예불이다. 종이 울리고 예불 소리 들려온다. 멈췄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 혼자 적막 속에 있는 동안은 시간의 흐름도, 걸어온 길목도 없는 듯 했다. 시간과 자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흘러가고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옛날 백제라고 불렀던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를 잃은 그들은 이곳에 모여 서로의 시간과 자리가 되어줬다. 서로의 옛날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겹다면 비암사에 가볼 일이다. 고요한 시간이 그 시간을 잊게 해줄지도 모를 일이다. 뭉게구름 고무신은 사라졌다. 댓돌 위에서 하얀 고무신이 빛나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800년 묵은 느티나무가 품고 있는 비암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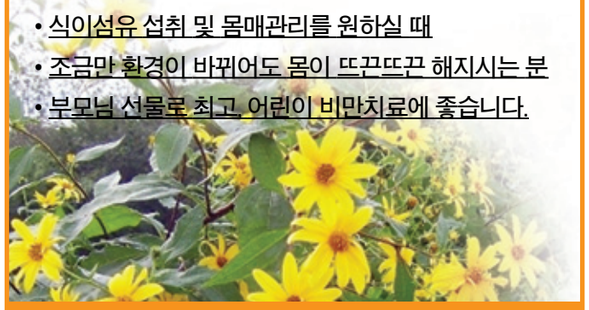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
是貴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엄선된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 · 향 · 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 · 체력증진 · 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特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地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良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參 氣勢元
6년근 명품홍삼 기 세 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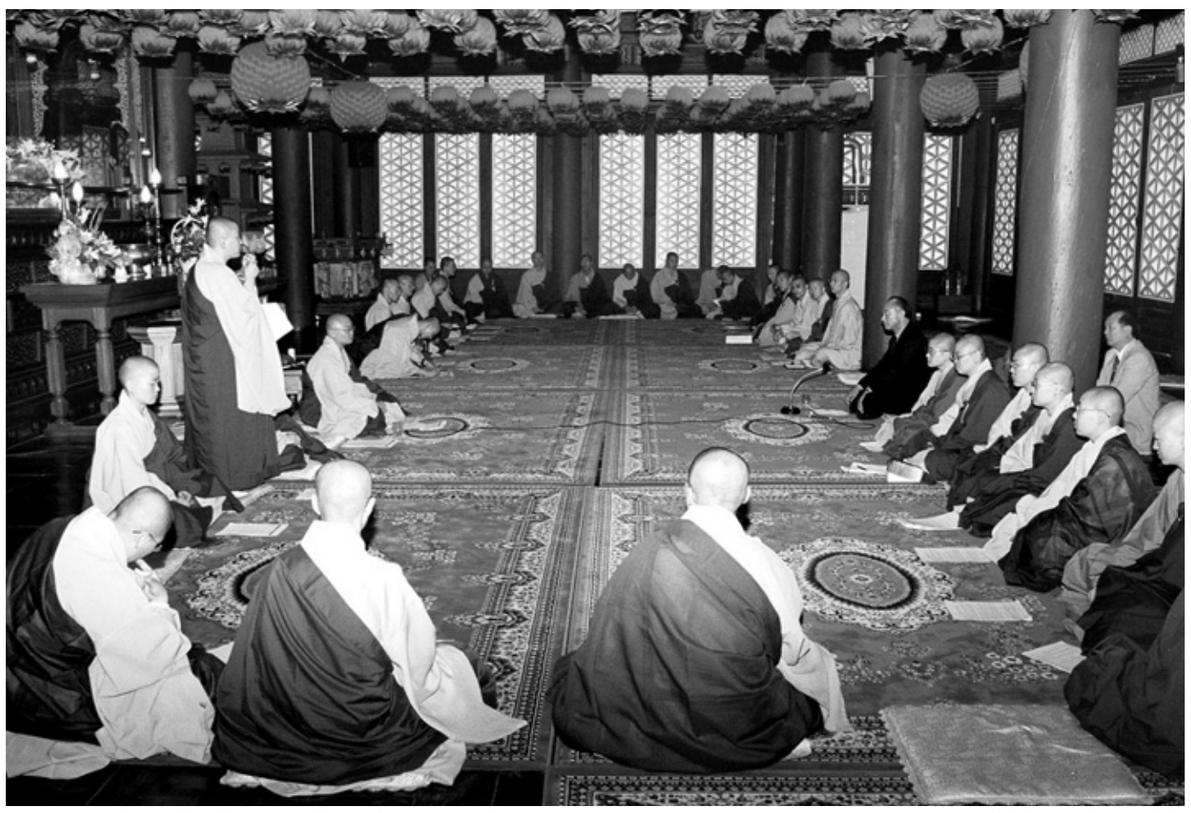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㊴

벌칙과 추방

제도할 수 없으면 추방한다



승가에서는 계를 범했을 경우 대중공사를 붙여 추방한다. 사진은 2000년 동국대 훼불관련 대중공사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승가에서는 5계 가운데 살생(殺生), 투도(偷盜), 음행(淫行), 망어(妄語) 등 네 가지 계를 범했을 경우 대중공사를 붙여 추방한다. 이것을 율장에서는 '사바라이(四波羅夷)'라고 한다. '사바라이'란 '네 가지 중죄(重罪)'라는 뜻으로서 '사중죄(四重罪)' 또는 '사중금계(四重禁戒; 네 가지 중요한 금기사항)'라고 하는데, 승가에서 가장 중시, 엄금하는 계율이다.

그 밖에 승단을 뒤흔들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즉 승가의 화합을 깬 경우에도 당사자가 참회, 개선하지 않으면 사바라이와 같이 중죄(重罪: 추방, 퇴출)로 다스린다.

추방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도첩(度牒: 승려신분증)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여 '체탈도첩(剃奪度牒)'이라고 하고, 율장의 용어로는 '멸빈(滅擯, 승적에서 이름을 멸살시키고 축출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규에서는 '빈출(擯出, 물리쳐서 내쫓음. 축출),' '빈벌(擯罰, 축출의 벌칙)' '삭적(削籍, 승적에서 삭제함)' '멸빈(滅擯)' '구빈(驅擯, 내 쫓음)' '출원(出院, 선원에서 축출함)' 등이라고 한다.

총림에서 승려를 추방, 축출할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축출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규율담당인 유나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당사자를 불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기회를 준다. 참회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뉘우치지 않을 경우 축출하게 된다.

축출과정은 매우 특이하다. 타인이 보면 매우 흥미롭지만 당사자에겐 이만저만한 모욕이 아니다. 총림의 기강 담당인 유나(維那)가 대중을 동원해 당사자를 포박한 후, 모든 대중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승복을 벗기고 곤장을 친다. 그런 다음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가사와 발우 등 소지품을 모두 불태워 버린다. 타인이 물들 수 있으므로 흔적을 없애 버리는 의미이다. 이어 속인복을 입혀서 정문(正門)이 아닌 편문(偏門)으로 내 쫓아버린다. 편문이란 선원에서 규칙이나 계율을 어긴 승려를 추방하는 문으로 쪽문이다. 중죄를 범했으므로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문은 정식 스님만 다니는 곳이지 승려가 아닌 죄인은 다닐 수 없다는 뜻이다.

송대의 선승 장로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1103년) 10권 '백장규승송'에는 추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혹 규칙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대중 앞에서 주장(拄杖)으로 이를 치도록 하라. 도구(道具, 가사와 발우 등 일체)를 불태우고 축출할지어다. 편문(偏門)으로 내 보내는 것은 치욕을 드러나게 함이다."

"중계(重戒, 四重罪: 殺盜婬妄)를 범하면 의발(衣鉢, 가사와 발우)을 거두어서 태워버리되, 응당 중인(衆人, 대중)을 모을지어다. 산등(山藤, 막대기)으로 치는 것은 오로지 치욕을 드러나게 함이니, 구빈(驅擯, 곤장으로 쳐서 축출함)하여 편문(偏門)으로 내 보낼지어다."

도구(道具) 일체를 불태워 버리고 곤장으로 쳐서 산문 밖으로 내 쫓는 것을 '추빈(箠擯, 채찍질하여 내 쫓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산문출송(山門黜送, 산문 밖으로 추방함)'이라고 한다. 축출사건으로 유명했던 것은 1922년 당시 수원 용주사 주지로서 일제시대 때 불교계의 실력자였던 강대련 스님의 친일행위를 문제 삼아 대중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축출한 사건이다. 이때 강대련 스님의 등에 북을 지워 그 북을 치면서 서울 종로통을 돌았는데, 이것을 '명고축출사건(鳴鼓逐出事件)'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추빈을 당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남 치욕이어서 이것을 사형(死刑)과 같다고도 한다. 비록 환속하여 살아간다고 해도 그 순간을 잊고 살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추방할 때 대중이 보는 앞에서 승복을 벗기고, 곤장을 치고 가사와 발우 등을 불태운 다음 편문(쪽문)으로 내 쫓는 것은, 공개적으로 빈척(擯斥)하여 다시는 불문(佛門)에 들어온다거나 총림 부근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사찰에 가서 풍기를 문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대중들에게 누구든 중죄(重罪)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도 적지 않다.

> 사바라이는 엄금하는 계율
> 참회하지 않으면 퇴출돼
> 속인복 입혀 편문으로 내쫓아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총림에서 무조건 체탈도첩하거나 추빈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할 기회를 주는데,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거나 거짓을 둘러댈 때 더 이상 제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하는 것이다. 몇 백명이 수행하는 도량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기강이 해이해 지고 문란해져 대중을 이끌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로종색선사의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에는 '멸빈(滅擯)' '빈출(擯出)' '빈벌(擯罰)' 등 벌칙에 관한 내용이 여러 곳 나온다. 이렇게 벌칙이나 징계규정이 많다는 것은 그런 일이 종종 있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총림의 규율이 매우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대중이 별 탈 없이 수행하자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밖에 없다. 원칙이 무너지면 총림은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비(是非)를 일으켜서 화합을 깨뜨리는 자는 추방하라.

"총림의 청중(淸衆, 대중)은 주지가 산문을 장악(掌握, 사중의 일을 집행하는 것이)함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대중을 따라 일을 하고 아침과 점심공양 외에 마땅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저마다 분업(分業, 맡은 바 소임)을 지키며 덕을 쌓고 도(道)를 융성하게 해 총림을 빛나게 해야 한다. 자기 일이 아닌데 간섭하며 함부로 일을 만들며, 시비(是非)를 부채질 하여 대중을 어지럽혀서 안정을 해치는 자는 총림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라.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추방하라.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투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승당이나 요사에서 옷이나 물건 등을 도난당했을 경우 의물(衣物)의 색깔과 개수(個數), 잃어버린 장소와 때를 정확하게 적어서 요주(寮主, 그 당우의 관리자)에게 고(告)하라. 요주는 분실한 물건의 유무와 허실 등 사실여부를 확인해, 상황이 중대하면(잃어버린 물건이 매우 중요할 경우) 유나(維那)에게 알려서 대중을 동원해 승당과 요사를 수색하라. 훔친 자에게는 공행(公行, 규율대로 처리)할 것이며, 만일 허위로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자에게는 추방하든가 아니면 거처를 옮겨라."

절도는 불투도(不偷盜)의 계를 범한 것이므로 이는 추방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도난당했다는 것이 허위일 경우 그 역시 추방하든가 멀리 떨어진 요사로 옮겨서 별리(別離)시키라는 것이다. 허위에 관한 조항도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당했다고 신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도난당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부터 조사한 다음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만일 잃어버린 물건이 가벼운 것일 경우 대중을 동원하여 수색하기보다는 가능한 잃어버린 사람을 달래도록 하라"는 것이다. 사실 대중을 동원하여 승당 등 요사를 수색한다는 것은 여간 소란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본다면 조사 및 처리과정은 매우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벌칙과 징계 규정 많음은
> 총림 규율 엄격함 뜻해
> 원칙 무너지면 총림 와해되는 탓

주색(酒色), 투쟁(鬪爭), 오중(汚衆, 규율을 더럽힘), 훤란자(喧亂者, 소란)도 추방하라.

또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에는 절도는 물론 주색(酒色)을 탐닉한 자, 싸움, 소란 등을 저지른 자도 추방하라고 한다. 그냥 두면 대중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중 가운데 혹 남의 물건을 훔친 자나 주색(酒色)질을 하는 자나 투쟁(鬪爭), 오중(汚衆), 훤란(喧亂) 등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대중을 모아 놓고 축출, 퇴원(退院, 추방)시켜라. 재물을 도둑질하고 투쟁(싸우면)하며 술과 여색을 가까이하여 승가의 규율을 더럽히면 속히 추방하여 대중으로부터 떠나게 하라. 머물게 하면 대중을 부패하게 하리라."

가짜승려도 추방하라.

〈선원청규〉 10권 '백장규승송'에는 가짜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혹은 신분을 사칭(假號)하고, 외모를 가장(竊形)하여 청중 속에 섞이며, 훤요(喧擾,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하는 일이 있으면 유나(維那)는 해당 승려의 자리와 소지품을 점검해 선원에서 내쫓으라. 내쫓는 것은 청중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다. 천진불을 믿지 않고 선원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비구를 꾸미면 즉시 괘탑(입방 여부)을 가려낼지니 떠나가서는 머리를 돌리지 말라(가짜승은 다시는 입산하지 말라는 것.) 혹 범하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대중 앞에서 주장으로 이를 쳐라. 도구(道具, 가사, 발우 등)를 모두 불태우고 쫓아낼 지어다. 편문(偏門, 쪽문)으로 내 보내는 것은 치욕을 드러나게 함이다."

그런데 총림에도 후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기강이 문란해져서 장원(莊園)을 담당하는 장주(莊主)나 총림의 재정 등 살림을 담당하는 고사(庫司), 혹은 지사, 집사 등 총림의 요직을 맡고자 했으나 주지가 임명하지 않자, 주지 입적 후 그 원한을 보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칙수백장청규〉 주지장에는 "근래는 풍속이 박악(薄惡)하다. 승도(僧徒)가 장주(莊主)나 고사(庫司), 혹은 집사(執事)에 임용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자, 혹은 사중(寺中)의 물건을 도둑질한 일(횡령)이 있어서 주지가 공명정대하게 빈벌(擯罰)했는데, 악도(惡徒)는 자신의 허물은 놔두고 다만 분한(憤恨)만 품는다. 주지가 천화(遷化, 입적)하자 즐거운 듯 악언으로 매도하고 심하게는 관(棺)을 부수고 주지가 쓰던 가사와 발우 등을 가져가는 등 흉폭하기를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여 말세임을 탓하고 있다.

인도 초기불교에서도 사바라이를 범한 중죄일 경우 추방했다. 그리고 중죄보다는 가벼운 죄일 경우 대중 모두가 일정 기간 그 사람과 일체 말을 하지 않는 묵빈(默擯)의 처벌을 내렸다. 중국 총림에서는 묵빈의 벌칙은 없고, 곤장만 치는 벌칙(추방은 아니함), 벌전(罰錢, 벌금형), 벌향(罰香, 佛前에 향을 사서 올린다거나 대금을 내는 것), 벌유(罰油, 佛前에 올리는 등유나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내는 것), 벌차(罰茶, 차를 사서 대중에게 공양함), 또는 108번 참회를 시켰다. 중국 선원의 벌칙을 보면 벌금형으로서 역시 중국인 특성답게 현실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벼운 죄는 주로 108참회, 천 배 등 참회를 시킨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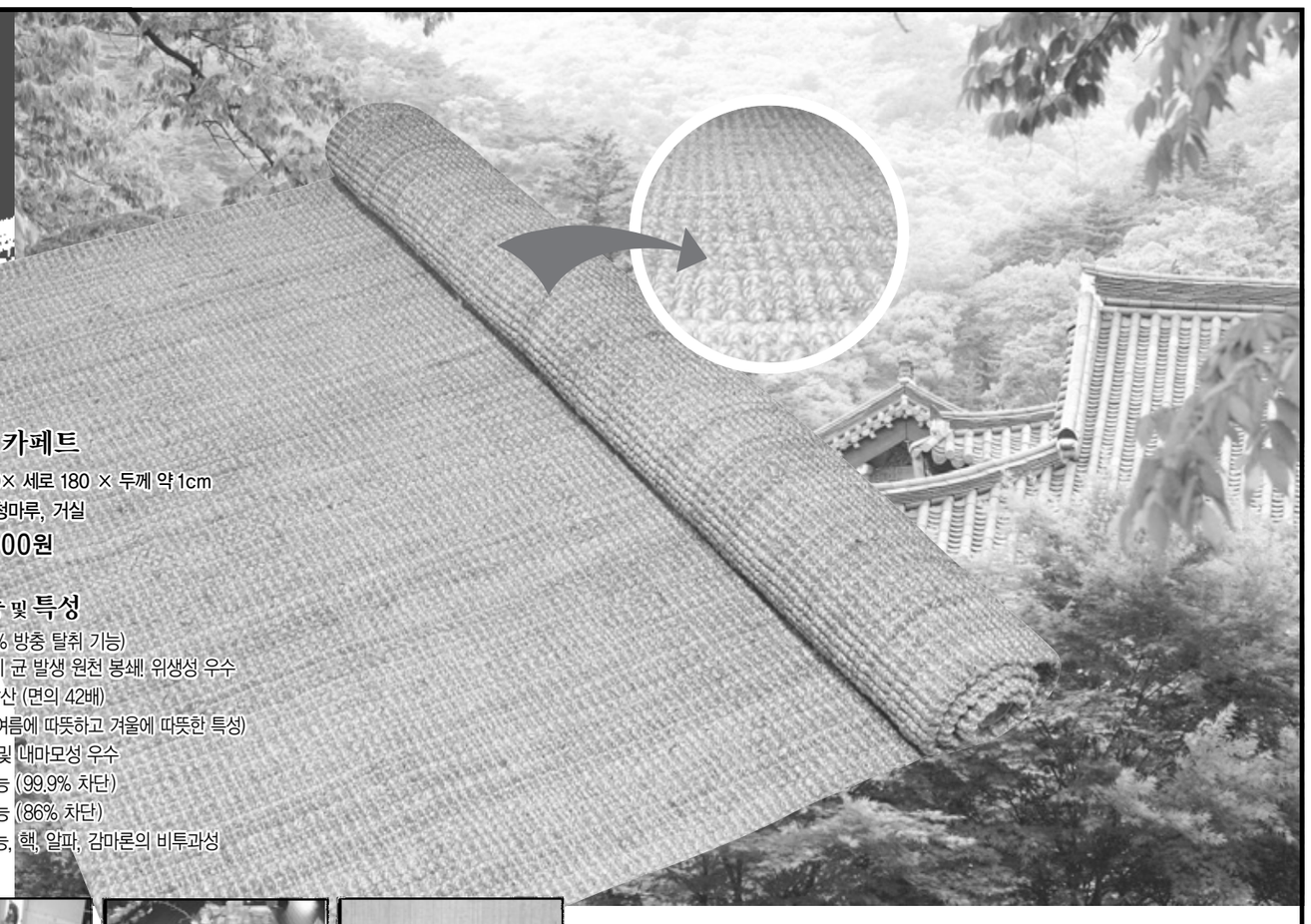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구술인물사⑭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 1970년대 중반 불교운동

‘민중불교론’ 감화… 민주화운동 동참으로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재성은 민중불교의 근거를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찾고자 했다. 1970년대 중반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중신학이 유행했음을 잘 알았다. 그는 파울로 프레리의 〈페다고지〉라는 책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본회퍼의 신학론에 관심이 깊었던 전재성은 한국불교에서 민중 개념을 찾고자 했다. 원효가 천촌만락에 다가가는 행위에서 민중개념을 찾고자 했다. 또 만해의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민중불교’의 근거를 찾았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해 보려고 중간에 어떤 교량역할을 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때 거기에 참여해 상당히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조금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인제 굉장히 강했죠. 저도. 그래서 〈민중불교론〉을 쓰게 된 것…”

많은 불교인들이 자신의 〈민중불교론〉을 읽고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게 됐다고 술회한다. 또한 의식 있는 스님들이 자신의 글을 읽었노라고 고백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민중불교론〉을 읽고 출가했다고도 한다.

그 글이 불교인을 향한 반향이 컸다. 1970년대 말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대불련의 활동이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신군부의 등장으로 국가적 혼란이 이어졌을 때 〈민중불교론〉 지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연대에 김유철 동양사학과 교수하고 또 지금 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 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치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양반 그 친구들이 서울대 불교학생회 데모를 주동을 했죠. 대학사회에서 불교 이름을 걸고 시국관계 담화를 발표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 당시 칠십 아마 70년대 후반인데 그러구 인제 또 동국대서도 이희선 씨니 뭐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그러고 또 지금 80년대 운동권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벌써 칠십년대 말에 그 불교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민중불교론〉을 읽었던 거 같애요.”



전재성 박사가 기고했던 민중불교론이 실린 월간 〈대화〉

〈민중불교론〉 발표 이후 전재성은 여러 잡지사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게 된다. 〈씨알의 소리〉 혹은 〈뿌리깊은 나무〉 등 진보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당시 고은, 함석헌 등 쟁쟁한 인사들 사이에서 학생신분인 전재성(전서암)의 글도 게재됐다. 특히 ‘스님 제발 들어보오’ 글은 스님들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글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인 원의범 교수의 권고도 있었지만, 전재성은 요가수행자의 글을 읽고 인도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방향을 돌린다.

“빠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오토바이오그라피(자서전)라는 책이에요. 그 때는 인제 우리나라 그 몇 년있다가 몇 십 년 있다가 우리나라 번역이 됐지만은(1987) 그 당시에는 영어 원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조소야)가 영어 원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읽었어요. 사전 찾아가면서 읽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가 그 인도철학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가 오토바이오그라피라는 〈요가수행자의 일대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나서예요.”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⑤ – 등장인물 소개 ‘천룡팔부2’

사람 해치는 귀신 ‘야차’가 중생을 보호하게 된 사연은?

일본의 여성 만화가들로 이루어진 ‘클램프’의 데뷔작 〈성전(聖戰) - 리그베다〉는 천계 신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일개 무장에 불과했던 제석천(帝釋天)이 반역을 일으켜 선제를 살해하고 도리천의 주인 자리에 앉았다”는 매우 파격적인 성정으로 시작된다.

신화 속에서 제석은 매우 매력적이며 불경 속에서는 언제나 불법의 수호를 자청하는 늠름하고 든든하며 선량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도리천의 주인이 되기까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거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전(聖戰) - 리그베다〉에서는 이미 신화에서 상세하게 기록된 이 ‘전쟁’에 ‘상상력’이라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실컷 발휘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주인공으로 제석이 아닌 팔부신장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작은 편에 속하는 야차왕(夜叉王)을 내세움으로써 그가 가진 선량한 면을 한껏 부각시킨다.

비밀스럽게 중생을 보호해주는 야차

팔부신장(八部神將)의 으뜸인 천(天) · 용(龍) 다음으로 등장하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환상적’이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감 있는 존재를 꼽자면 간신히 ‘야차(夜叉)’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차’라는 이름은 본래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첩하고 교활하며 용맹함과 비밀스럽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인도 신화에서 야차는 본래 신이긴 신인데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다. 그래서 불경이 아닌 곳에서는 무섭기 짝이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며 주로 악귀(惡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야차는 다른 귀신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귀신들도 야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불교에 수용된 후 야차는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보호하는 매우 좋은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선량한 신으로써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도 좋을 텐데 야차는 자신 본연의 모습을 꿋꿋하게 지킨다. 무서운 귀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름처럼 ‘비밀스럽게’ 악귀들로부터 중생을 보호해 준다.

〈성전(聖戰) - 리그베다〉에서도 야차는 아쉬울 것 없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인해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결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의리있고 ‘착한’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순정만화 주인공’에 걸맞게 훤칠한 미남의 모습을 하고 있어 겉모습으로는 결코 악귀(惡鬼)를 연상할 수 없게끔 장치해 놓았다.


건달바. 삽화=김영수

향기(香氣)를 먹고사는 우아한 건달파

건달파(乾達婆)란 범어로 변화무쌍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식향(食香)’이라고도 부르는데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농염한 향기를 풍긴다고 한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자리에 ‘친구’격인 긴나라와 마후라가 등과 어울려 음악과 향, 꽃 등으로 공양을 올리곤 한다.

본업은 음악의 신으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악사(樂士)나 마술사를 건달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예능인을 천시하는 풍습과 맞아 떨어져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먹는 사람’을 ‘건달(乾達)’이라고 부르게 됐다. 향기를 먹고 사는 우아한 천계의 음악신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 들어와 이처럼 전혀 다르게 사용되다니 참으로 절묘한 변화구라고 할 수 있다.

건달파는 천상의 음악을 담당하는 동시에 천상의 물 소마(Soma)를 지키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부업으로 밀교에서는 어린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귀신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㊱ 불국사

신라 땅이 곧 불국토

석가탑과 다보탑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신앙불교의 응축이다. 통일신라시대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교의 흐름에서 또 다른 신앙의 발전을 보여준다. 바로 아미타 불신앙이다.

아미타불 신앙 역시 불국사의 건축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국사 대웅전은 건립이후, 점차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영역이 조성됐다. 하나의 건축구조에 덧대어 늘리듯 지어진 공간은 불국사 건축의 또 다른 묘미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옆에는 아미타부처님, 뒤쪽에는 비로자나불을 비롯해 관세음보살이 각각의 영역을 유지하며 새로운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아미타세계의 중심에 있는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166cm의 불상이다. 원만하고 자비스러운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눈썹은 반원형이고 콧날은 오뚝하다. 신체 표현은 장중해

석가탑 · 다보탑은 법화 신앙
불국사는 아미타 신앙 상징
불국토 향해 종파 초월해

건장한 남성의 체구를 연상시키며, 두무릎은 넓게 퍼져서 매우 안정된 느낌을 준다. 떡 벌어진 어깨, 양감 있는 당당한 가슴, 잘록한 허리 등에서 사실적이면서 세련된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제28호)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린다. 부처님의 손 모양(手印)은 아미타부처님의 9품인(九品印) 중에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보이며, 양손의 위치에 있어서 좌우가 서로 바뀐 것은 국보 제26호 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보이는 공통된 점이다.

불국사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불은 177cm로, 얼굴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인상을 풍긴다.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은 매우 얇게 표현돼 당당한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손모양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어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 모양과는 반대로 표현됐다. 이 두 부처님은 8세기 중엽 작품인 석굴암본존불(국보 제24호)의 특징과는 다르며, 9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최치원이 지은 〈불국사고금역대기〉에는 이 두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돼 있지만, 이를 두고 학계에 대한 반응은 분분하다. 이 기록에는 불상이 9세기경 조성된 불상의 양식과의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불국사의 종파문제도 학자들 간에는 논란 거리인데, 〈삼국유사〉에서는 화엄종과 법상종 두 계통의 기록해 놓았다. 근래에 발견된 ‘묵서지편’ 공개 이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는 화엄종 계열 사찰로 알려진 불국사가 유가업, 즉 법상종 계열에 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한 신라인들의 마음은 종파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수많은 사상을 엮고 세월을 더해가며 구축해 놓은 그들의 세계는 토함산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하던 신라인들의 이상이 결합돼 우리들에게 전해준다. 현세의 부모를 위해 건립한 불국사와 전생의 부모를 위해 건설했다는 석굴암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추선을 넘어 이상향을 신라 땅에 건설하고자한 신라인들의 신앙이 서린 것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2011 길상사 여름선수련회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달이 지났는데,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냐?

–법정 스님의 ‘오두막편지’ 중에서–

길상사의 준비된 여름선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의 자리와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려보십시오

구분	날 짜	기 간	모집대상(정원)	참가비
선수련회 1차	7월 22일(금) ~ 7월 23일(토)	1박 2일	마감	마감
선수련회 2차	7월 25일(월) ~ 7월 27일(수)	2박 3일	마감	마감
선수련회 3차	**7월 28일(목) ~ 7월 31일(일)**	**3박 4일**	**일반인(70명)**	**12만원**
선수련회 4차	8월 1일(월) ~ 8월 3일(수)	2박 3일	마감	마감
선수련회 5차	**8월 4일(목) ~ 8월 7일 (일)**	**3박 4일**	**일반인(70명)**	**12만원**

◆ **참가 및 신청방법** : *http://www.gilsangsa.or.kr*
-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클릭 → 신청서작성 → 신청차수 결정 → 신청자명 입금
- 준비물 : 수건, 세면도구, 메모용 필기구, 우산, 개인컵, 반팔티셔츠 (흰색)여벌, 운동화
- 참가 및 문의전화 : **02)3672-0036** / 담당자 곽현준

◆ **주의사항**
- 참가를 원하시는 희망 차수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입금 시 입금자 명은 참가자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안내 : 신한은행 100-021-1136827**」
- 환불기준 각 차수별수련회 시작 2일전까지 환불가능.

◆ **신청접수 확인**
- 홈페이지 우측 상단 신청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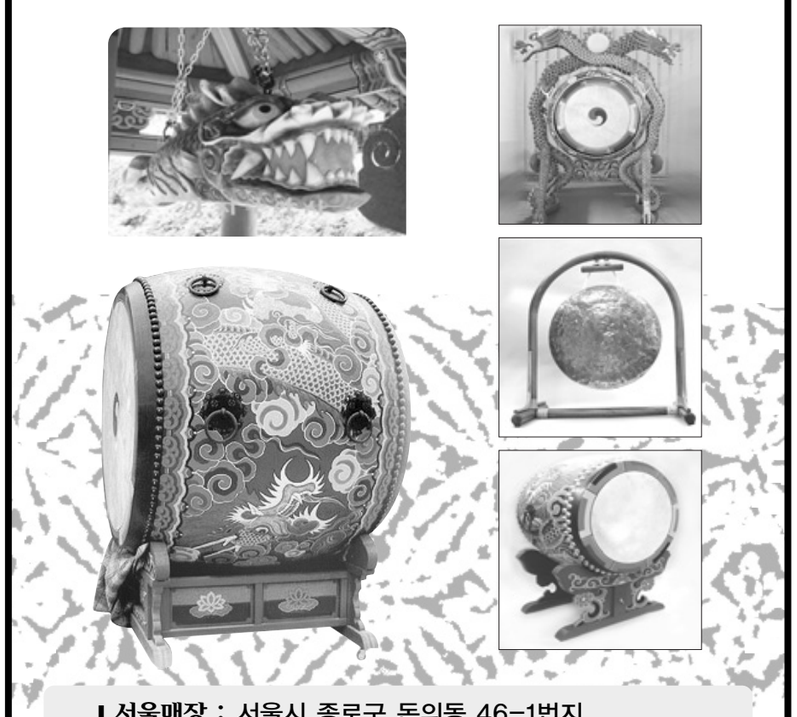
사)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 도 모 집
상부, 상조, 상생의 이념으로
참나를 찾는 도반으로 함께 하실
종도 님을 모십니다.

✲ **연수원 (기도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설산) 기도원에서
수행하실 참신한 스님, 청신사, 청신녀님을 찾습니다.

✲ **총무원**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장원스님 011-677-852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법당 : 17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0평
- 납골당 1500기 완공

- 위치 : 경기외곽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대구
- 법당 : 60 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2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8천만원됩니다)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 건물 두채, 임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시설비포함 4년, 8백만원

011-9393-496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대라리 시장입구
- 평수: 97평. 4층에 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031-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대전시내
- 부지 : 1500평
- 건평 : 500평 신축
- 납골 : 5000기
- 가액 : 가격협의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041)551-8672
011-9413-8040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및 토굴안내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2,400평(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6억 8천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954평(도로포함), 공유 500평
- 법당: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구미, 대구 30분
- 전망 낙동강정비 후 경관 최고 예상
- 가액: 3억 8천 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600-04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에서 5분
- 2층 27평
- 방사, 불단, 후원, 방 1개, 화장실(내부)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전세도 가능)
- 시설비 1200만원

010-8775-1156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70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절충가능)

011-9901-3530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4층의 4층
- 삼존불
- 50평(요사채 25평, 법당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8만원
- 시설 A급, 시설비 절충가능

010-8897-671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의성 비봉산 자락)
- 대지 220평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 창고...
- 가액: 7천만원

010-4786-8257

포교원 및 명상원(급)안내

- 위치 :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층건물 3층
- 평수: 80평
- 보증금: 4,000만원 / 월70만원
- 약만이천세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메인 대상가.
- 포교활동 최상급 지역(주변 불자 많음)
- 인연되시는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 가능

010-2425-04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천구 신월동 곰달래길
- 4층중 2층 사용
- 현재 운영중 (뜸, 대체의학, 상담)위주로 하실분
- 삼존불, 탱화, 에어컨 구비되어 있음
- 시설비 無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6425-3885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 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66년 된 토굴(무허가)

- 위치 : 부산
- 법당1동, 공양간1동,
- 요사채 1동 , 산신각
- 나한적 각 1동

※법당에 약물 나오는 용궁 있음

010-7309-730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관광지
- 총 72,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요사체 부속 건물3동
- 부도탑 700기 허가득함
- 산세수려 경관좋음
- 가액: 12억

017-511-0074
010-3333-16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앞)
- 2층 26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가능

02)955-2266
011-375-4848

포교원운영하실분

부산 해운대 신도시
최고의 요지
2층에 200평에
법당과 불교회관
으로 시설완벽

010-9025-323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에서 원주가는 국도변
- 평수 : 총 600평
- 법당, 지장전(같은조물) 약 20평
  요사 15평
- 총계 1억 8천 5백만원 (현시세는 2억5천이상)

010-2763-3816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171평,건물단청,수미단,영단
- 법당,종무소 : 20평씩 2층건물 1동
- 요사채,공양간 : 30평씩 2층건물 1동
- 마을 산아래 조용하고 깨끗한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 1억7천5백만원(융자1억포함)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80년된 사찰. 등산로 입구
-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법당30평,요사채40평,창고10평 옥탑, 해수관음상
- 주차장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5천

010-4601-7881

최고위치, 시설 신설포교원안내

- 부산 해운대 신도시 인구 밀집지역
- 7층 건물에 6층 60평, 전철역세권, 특급시설
- 법당 3자반 개금 삼존불, 원목 수미단, 최고급음향시설
- 신중단, 영단, 호신불 250불, 공양실, 방사3개
- 모든 것이 장엄하게 완벽히 구비되어 있는 포교원
- 인연있고 능력 있는 스님은 대성할 수 있는곳
- 전세 2000만원, 월세 150만원, 시설비 3800만원(절반가)

010-4079-7994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40평, 건평 30평
- 삼존불, 후불, 산신,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법당, 접견실1, 방3, 부엌2개, 도시가스
- 총액: 1억 6천 5백만원 (6천 5백 융자)

010-4935-3779
010-2202-2222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세권
- 대형포교원(10년 운영)
- 4층중 2개층 사용, 140평
- 옥상 80평 (지소대, 텃밭, 창고)
- 차고 有, 주차 100대 可
- 現불교대학, 서실, 다실운영중
- 큰방 5(초 특급)생활불교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6천만원(가격절충)

010-6797-322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010-8993-3596

저렴한 토굴(급)안내

- 가액: 400만원
- 충북 옥천군
- 방2개, 입식부엌, 화장실, 양변기
- 마루, 텃밭, 헛간
- 대전에서 30분거리
- 옥천읍에서 5분거리
- 1년 세 30만원

010-9497-3476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 병산리 878-50, 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가구단지길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전체 12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150만원
- 시설비는 상담 후 결정

032)519-1108
010-2045-9590

사 찰 안 내

- 위치: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7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4억불사이룩하여,스님이나보살님께양도

010-8667-1200

암자터.절터(급)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용문면 OO리
- 단독 계곡 상류, 수목원 절골
- 경관 최상, 토목공사 완료
- 관리: 전 3100평
- 평방 12만
- 양도가 당 8만원

054)655-4405

선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75-27(2층)
- 평수: 38평(백령선원) (아미타불 및 3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859-555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0-4085-1119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포교에 원력을 갖고 개원하실 비구니스님 환영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비산동 서문시장2지구
- 2층건물 2층위치(약40평)
- 법당,방2,주방1,다용도실2,욕실
- CCTV 등 보안시설 갖춤
- 보증금200만원,월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3693-5543

농가주택(급)안내

- 위치표시 경북 영양군 영양읍 관내
- 물건구분 대지 194평, 건물 4동 45평
- 입지조건 대형차 회전 진출입 가능
- 교통도로 포장도접, 전면 계곡흐름
- 건물용도 가구 살거나 암자가능
- 자연환경 산밑 3가구 농구주택 있슴
- 가액: 6500만원 거품없는 최저가

010-3538-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 대지 464평
- 콘테이너 건물 2동
- 인법당 삼존불
- 청정하고 조용한 생기복덕 명당
- 유실수, 가시오가피, 두릅도 있음
- 가액은 융자 7천5백만원포함 하여 1억 5백만원(절충안됨)

053)617-0666
010-8890-68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4호선 당고개역 이용)
- 평수 : 70평,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에 3층
- 법당,방3,사무실1,공양간,욕실,창고
- 삼존불및후불,산신,칠성탱화
- 지장, 관음, 호신불 각 108위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 전화 상담

010-3422-2575

도심속에 사찰안내

- 위치: 청주 상당구
- 대지 62평, 요사채 30평, 기와건물법당 27평
- 마당 작은 연못, 옥상휴게소, 방5, 거실음향실
- 주지접견실, 최고시설 3억, 직접실사방문
- (불교대)2층 50평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최고시설, 모든집기포함, 10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0-5883-2255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11)



삽화 · 김홍인

용은 눈을 부릅뜨더니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큰 불길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진실과 거짓,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였다."

"이게 내 답이라고 말했잖아. 둘 다 진실도 거짓도 아니라는 것."

무니는 용이 내뿜는 불길의 위협에도 자신의 대답을 번복하지 않았다.

발걸음을 멈춘 난다는 조심스럽게 용의 눈을 쳐다봤다. 이제 겨우 그들의 근처까지 다다른 참이었다.

'무니 말이 맞아.'

난다는 생각했다. '질문을 한 우리'와 '답을 듣는 우리'는 같지 않다. '질문을 한 우리'에게 '답을 듣는 우리'는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답을 듣는 우리'에게 '질문을 한 우리'는 이미 과거인 것이다. 그러니 만약 '우리는 우리다'라는 명제를 진실로 선택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같다고 말하는 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다'가 진실이겠지만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는 것처럼 과거와 분리된 현재는 없다. 물론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대답은 용이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난다는 초조해졌다. 그때였다. 난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니가 용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런 이상하고 바보 같은 말장난으로 불장난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자 화를 꾹 참은 듯, 목소리를 낮춘 용이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너는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제 사라져라!"

무니와 난다가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미 세 머리 용이 뿜어대는 불길이 그들의 코끝까지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세상에 암흑이 찾아왔던 것이다. 난다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어둠이 온통 자신을 감싸고 있었고, 피부에 닿는 공기는 차가웠다. 몸은 붕 떠서 사지 어느 한 군데에도 힘을 줄 수 없었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눈동자가 보였다.

"괜찮아?"

무니였다.

"어떻게 된 거야?"

서서히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난다가 물었다. 눈도 어둠에 익숙해져서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몸만은 여전히 공중에 뜬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이것 때문인 거 같아."

무니가 뭔가를 꺼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그 물건은 수리아의 검 조각을 모은 목걸이였다.

"그때 칼키라는 아이가 준 바로 그 검 조각이야."

무니가 난다가 몸을 일으키도록 거들어주며 말했다.

"도대체 이 부러진 검 조각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 날 따라와 봐."

무니는 난다의 손을 끌고 암흑 속을 유영하듯 어딘가로 향했다. 그리고는 잘 보라고 말하며 쓱쓱 손으로 문질러 어둠을 지워냈다. 청회색의 투명한 유리막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 막 밖으로 여전히 불을 뿜어내고 있는 용이 보였다. 난다는 문득 한기를 느낀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용이 그들 눈앞에서 불을 내뿜을 때마다, 뜨거워졌던 막은 금방 다시 차가운 암흑으로 감싸졌다.

"분명히 하나의 검이었을 텐데 말이야. 다른 하나는 분명 아주 뜨겁고 거대한 빛이었다구.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차가운 어둠이야."

여전히 용을 바라보면서 무니가 말했다. 분명 괴로움이 없는 연못에서 검 조각이 내뿜었던 것은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빛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야. 저 녀석들은 애초에 어디든 불태울 생각인게 분명해. 이제 어쩌지?"

"아까 고대어를 쓰던 용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건 수리아의 검뿐이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조각 밖에는 없잖아. 그것도 8개 중에 2개라구."

"하지만 분명 여기에 수리아의 검이 가지고 있던 힘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거 같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그걸로 어떻게 용을 죽일 수 있겠어? 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의 입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

난다는 깜짝 놀라 무니를 쳐다봤다. 그는 목걸이에서 칼키가 줬던 검 조각을 빼내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빛을 뿜어내는 원래의 불투명한 색에서 투명한 느낌의 회색이 되어 있었다. 무니는 그 검 조각을 손에 쥐었다. 빛을 멈춘 것이다. 그러자 암흑의 크기가 줄어들더니 아까 그들이 보았던 청회색 막으로 변해갔다. 무니는 한 손에는 조각을, 다른 한 손으로는 난다의 손을 이끌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수영하듯 불길 쪽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이 사라지면서 몸이 점점 뜨거워졌고 옷자락 끝에는 불꽃이 일었다.

"얼굴이 타는 거 같아!"

난다가 외쳤다. 그건 무니도 마찬가지였다. 용의 입 속으로 가까이 갈수록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두 사람은 손을 더욱 꼭 쥐었다. 그리고 용이 불을 뿜어내기 위해 숨을 들이키는 순간, 빨려 들어가듯 용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무니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목걸이에서 나온 차가운 빛은 다시 두 아이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정신이 아득해져 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황량한 사막에는 두 소년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누워있을 뿐이었다. 제일 먼저 눈을 뜬 건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다. 처음 보는 소년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옆에 쭈그려 앉은 여자아이는 소년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툭툭 몸을 건드려 봤다. 잠시 후, 한 소년이 눈을 떴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용은 보이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소년은 그제야 누군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넌, 넌 뭐야?"

깜짝 놀라 소리친 소년은 바로 무니였다. 여자아이도 그 소리에 놀랐는지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아마, 용이 삼켰다는 사하라의 그 여자애인가 봐."

어느새 일어나있던 난다가 말했다. 여자애는 동그란 눈을 하고 두 소년을 번갈아 쳐다봤다.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게 생긴 꼬마였다. 한 여섯 살쯤 되었을까.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하얗고 커다란 보라색 눈동자와 오묘한 빛을 내는 황금색 동공은 신비로워보였다.

"용 안에 있었어. 여기서 주웠어."

두 소년을 빤히 쳐다보던 여자아이가 문득 생각난 듯 손에 쥐고 있던 뭔가를 그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마치 진주 같아 보였다. 그걸 받아든 무니는 한눈에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세 번째 검 조각인 것이다. 여자아이는 뚫어져라 그걸 쳐다보고 있는 무니의 옷깃을 다시 잡아당겼다. 자신을 따라오라는 뜻인 거 같았다. 무니와 난다는 여자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봤지만, 거기엔 아무 것도 없었다.

"어, 아까 여기서 반짝했는데?"

여자아이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바람이 휭~하고 불어오자 정말 잿더미 사이에서 석양빛에 반짝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걸 본 난다가 말했다.

"저건 꼭 칼 같은데. 혹시?"

무니가 먼저 가서 칼을 주워들었다. 그 칼의 정체를 확인한 난다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에 타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했던 말은 그들을 내려줬던 그 자리에서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다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두 소년과 여자아이를 태운 말은 다시 모래 바람을 뚫고 남카네 마을을 향해 단숨에 달려갔다.

그들이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다졌을 무렵이었다. 생각보다 오래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무니는 눈의 산에서 정신을 차렸던 때가 떠올랐다. 수리아의 검이 어떤 작용을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어쩌면 일종의 부작용일 지도 몰랐다.

마을은 조용했다. 그들이 며칠 전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우릴 용한테 먹여놓고도 문을 잠그고 사는군. 뭐가 무서워서."

무니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이미 두려움이 생활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나저나 남카는 어떻게 됐을까?"

무니와 난다는 촌장네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야! 남카! 문 열어! 이봐요. 촌장 아저씨, 용은 우리가 해치웠다고. 그러니까 문 열라고요!"

두 사람은 손이 아플 정도로 문을 두드려댔다. 무니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고맙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아. 남카 얼굴만 보고 가려는 거라구!"

그러다 결국 이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문을 발로 걷어차려는데,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의 남카였다. 그는 당장 쓰러질 것처럼 문에 기댄 채였지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보였다.

"계획이 성공했구나."

무니 역시 손을 들고는 웃으며 말했다.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뭐 성공은 했어."

도심 포교당(급) 안내

시대는 부릅니다.
山中불교에서 도심불교로!

산중큰절은 주말이면 수천에서 수만명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千年명산대찰이 몸살을 앓고 있구나. 빌딩을 숲으로! 가승은 입산,진승은 하산이라 했든가!

◆ 한국선종본찰에 모셨던 금동삼존불 봉안. 지장, 신중탱화, 원만상 봉안.
◆ 평수 : 101평. 백명이상 기도, 법회
◆ 18년 된 서울 수도권 인구 30만 신도시임.
◆ 교통 : 서울역에서 전철로 35분. 반포대교에서 자가용으로 35분. (산본역에서 도보3분).
◆ 품위있는 우아한 시설임.
◆ 도심선방 : 새벽, 낮, 저녁 30명 수용.
◆ 주지실. 기도법사실, 종무소 완비. 샤워룸, 공양간 및 고급복사기, 냉장고 2개, 김치냉장고1개, 살림집기 일체.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도심포교에 원력 세우신분 대 환영합니다.

010-3474-0057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인천 유일의 불교복지 재가기관 안내

사회단체 지장연꽃마을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노인복지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및 무의탁 노인후원, 복지용구지원, 환경개선지원 등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분들을 수발해 드립니다. 기타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아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방문상담합니다.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자원봉사자 모집
☎ 070)8248-0108, 032)548-0108, 010-4317-0108

태초의 신비,만트라기도,명상용CD출시

* 번뇌,갈등,병고 등, 심신이 힘들고 불안할 때 일이 꼬이고 집안이 탁할 때, 이제 고요 편안한 자세로
① 만트라〈옴〉CD를 그저 듣기만 하여도
② 만트라〈옴〉을 들으며 명상을 하여도
③ 만트라〈옴〉을 따라서 음송하여도, 모두 놀라운 가피와 경이로운 심신의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만트라〈옴〉은 번뇌, 망상을 차단하고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 고요하게 하며 선신이 옹호하고 소원하는 바가 자연히 성취되는 놀라운 원력과 가피가 있읍니다. 이 '옴' 만트라는 모든 만트라(다라니,明呪)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신성하다. *성월(手印)
* CD주문은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문받습니다. stmn@naver.com / 010-4317-0108
* CD보시금은 만원이며, 판매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소림선원 기공명상센터 관장 성월 스님 합장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⑮**

원장(垣墻)의 비밀

강원도 양양(襄陽)에는 바다와 산으로 어우러진 동양 최고(最古)의 관음도량 낙산사가 있으며 원통보전(圓通寶殿)을 에워싸고 있는 조선 전기(前期)의 담장이 있다. 이 담장은 높이 3.7m, 길이 220m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이다. 담장 안쪽의 담벽은 기와로 쌓고, 바깥쪽은 막돌로 쌓았다.

법당을 향한 담장 안쪽에는 하단에 2단의 장대석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다시 1단의 장대석 받침돌을 놓았다. 담벽은 강회진흙과 평와(平瓦)를 차례로 쌓아 담벽 전면에 기와로 가로 세로의 줄을 맞추고,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화강석을 배치한 세계 유일한 담장이다.

조선 세조(재위 1455~1468)가 낙산사를 고쳐 지을 때, 처음 이 담장을 지었고 대부분 터만 남아 있었던 것을 2005년 4월에 화재로 원통보전이 불탄 후 새로 보수했다.

보물 제1362호로 지정돼 있는 건칠관세음보살이 원통보전 안에서 좌정한 채로 바깥을 내다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담장이다.

몇 년 간 낙산사 불사에 전념할 때 매일 원장을 지나 원통보전에 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다.

첫째는 왜 화강암을 둥글게 조각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담장 속에 박아 넣었을까? 둘째는 원형의 화강암 아래 위로는 왜 평와를 넣어 선을 그어놓았을까? 셋째는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이다.

원장(垣墻)이라는 명칭을 한 이 담장을 한문으로 써보면, 담장 원(垣)자를 쓴다. 이 담장 원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흙(土)으로 아래 위에 평와를 넣고, 그 사이에 날 일(日), 즉 태양이 들어간다. 이 모습을 보면, 원장의 조성원리가 단박에 드러난다. 수평선과 파도, 하늘을 상징하는 평와를 아래 위로 두르고, 양양(일출, 또는 해오름)을 상징하는 태양을 넣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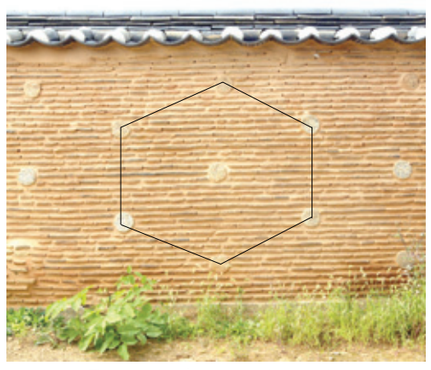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의 화강암을 아래 위, 양옆으로 맞추어 넣은 것일까?

이는 일출과 일몰, 또 정오에 뜨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긴 담장을 따라 연이어 박아 넣은 이유는 흐르는 시간과 세월을 보인다고 봐도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런 이후에도 원장 앞에 서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원형석의 구성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은 정확한 육각형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육각형의 모습은 평방과 창방부리의 매화점과 그 모양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동시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상징



낙산사 원통보전(圓通寶殿)을 에워싸고 있는 원장(垣墻). 둥글게 조각된 화강암이 표시된 육각형 모양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담장 속에 박혀있다.

수평선·파도·하늘 상징하는 평와에
해오름 상징하는 태양을 넣어
원통보전 잘 보호하려는 이상 표현

은 정확히 육각형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육각형은 다시 말해, 금강석(金剛石)의 상징과 형태인 것이다. 금강석의 결정구조 하나의 단위에는 정확히 정육각형이 내재한다.

담장을 지은 조선의 장인들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원통보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상(理想)을 품었음에 틀림없다.

깨달음의 목표와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매화점의 형상이자 〈금강경〉의 상징인 금강석의 형태를 지닌 원장은 실로 아름답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강원도는 눈의 고장이라는 점이다. 눈의 고장이기에 낙산사는 겨울마다 거의 1m가 넘는 눈에 파묻히는 경우가 많다.

눈은 알려진 바와 같이 그 결정 구조가 육각형이다. 냉각 수증기가 변해서 눈 결정이 생성되는데,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되건 최초로 나타나는 모습은 육각형 구조이다.

육각형 구조는 물 분자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 수소가 산소와 수소결합을 하고 그로 인해 대기압에서 물분자 6개가 서로 고리를 형성해 6각형의 구조를 이룬다.

그러고 보면 낙산사 원장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재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달빛

달빛 따라 길을 나선다.
길 위에서 바람도 만나고 꽃향기도 만난다.
산속이야기를 전해주는 개울물도 만나고
개구리들의 무진법문도 듣는다
나는 길 위에서 그들에게 길을 묻는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⑲ 조선 편양언기 선사의 '연화경을 외우는 스님에게 보이다[示誦蓮經僧]'**

베풀기를 기다리지 말라

金剛天德寺 (금강천덕사)
法侶誦蓮華 (법려송련화)
白雪諸天下 (백설제천하)
飛空作四花 (비공작사화)
六震焉無撼 (륙진언무감)
山河病眼多 (산하병안다)
毫光開佛眼 (호광개불안)
莫待設三車 (막대설삼거)

금강산 천덕사에
연화경을 송하는 스님
하늘에 가득한 흰 눈
허공을 날아 네 가지 꽃 짓네.
여섯 가지로 진동함에 어찌 감동이 없으랴.
산하에 병든 눈이 많네.
호광이 부처님 지혜의 눈을 여나니
세 종류의 수레 베풀기를 기다리지 말라

편양언기(鞭羊彦機;1581~1644) 스님이 금강산 천덕사에서 〈묘법연화경〉을 송하는 스님을 보고 지어 보인 시이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할 때 상서로운 징조로 하늘에서 네 가지 희고 붉은 연꽃이 비 내렸다. 이 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할 때 하늘 가득히 눈이 내리고 있었나 보다. 스님은 하얗게 내리는 눈을 상서로운 네 가지 연꽃에 비유해 〈법화경〉 독송하는 스님을 찬탄했다. 이어 우리 중생의 마음에 있는 탐·진·치·견·만·의 등 무명을 6가지로 흔들어 뒤쳐버리고 청정한 본래 면목을 보여주어 감동시킨 〈법화경〉 설한 공덕을 읊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계는 근본번뇌로 물든 병든 눈을 가진 자가 많다. 그 이유가 마지막 구에서 찾아진다.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나오는 빛은 부처님의 지혜를 열기에 충분하며 그 자체가 곧 불성인 것이다. 구지 양·사슴·소가 끄는 수레로 비유되는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을 시설해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 하는 〈법화경〉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을 여의고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경은 곧 나요, 불성인 것이다. 경에서 나를 보아야 하고 나에게서 불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에게 읽히고 있는, 경을 경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스님의 간곡한 당부가 저 독경 소리에 묵연히 스며든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더위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재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모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펴줍니다.
3. 둥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 하십시오.

◇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 무 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형)를 알려주십시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6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1,6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가이드, 기사 팁 $50

※ 단체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8월 16,19,24일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9월 16일 출발확정
9월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599,000원 부터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649,000원 부터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990,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 하 연 투 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대행 스님

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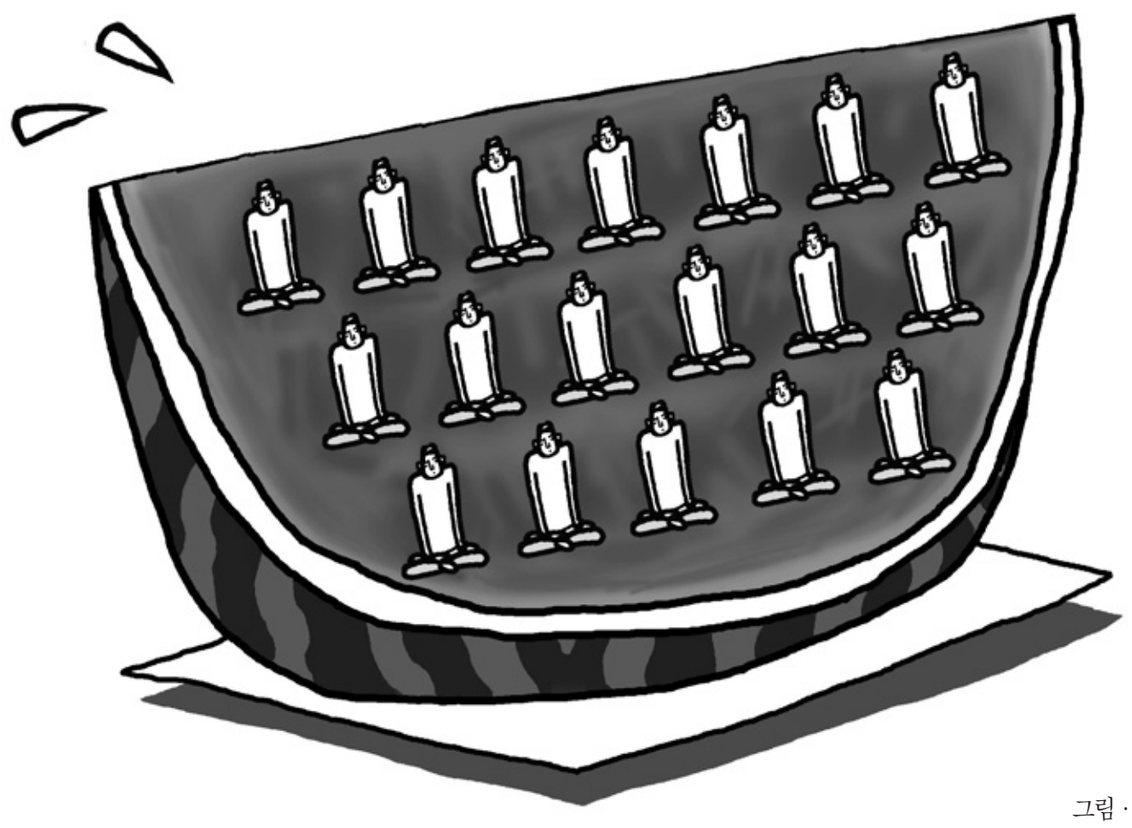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량이 좁은데다 더워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생하면서도 이렇게 너가 있고 내가 있듯이, 헤어졌다가도 서로 한마당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의해서 한마음이고 한 도량이고 한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입산한 사람이든 유발 제자든 다, 생활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천체 과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곧 한마음 속의 보배이므로 그 보배 속에서 일체 만법이, 즉 말하자면 천문학이라든가 지리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방출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팔자 운명도 없느니라. 너희들에게도 부처가 있느니라. 부처 있는 데 중생이 있고 중생 있는 데 부처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거죽만 여러분인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모습 속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왜냐고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전자의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것입니다. 지구라는 껍데기와 같이 여러분 몸뚱이도 혹성의 껍데기입니다.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살고 있듯이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서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묘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한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차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내가 말을 했죠.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충만하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로 인해서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현대 말로 한다면 큰 컴퓨터죠. 과거에 살던 모든 것, 인과의 인연이 된 그 모두가 거기 입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입력된 컴퓨터에서 전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컴퓨터를 큰 숙명통이라고 본다면 타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천안통이니 하는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한 부분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이 항아리라면, 아니 팔 수레, 수레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종합된 시스템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과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영계성으로 인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또는 그 모든 업보성으로 인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빈집이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죄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현실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넣는다면 앞서 입력된 과거가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덧붙여 또 한마디 튕겨 줘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과거 씨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과거 씨는 현재의 몸뚱이가 됐고 몸뚱이 속에는 바로 그 과거의 씨와 둘이 아닌 수박씨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또 심어서 또 먹이고 또 심어서 또 먹일 수 있는 겁니다. 끝간 데 없는 그 모든 생명들을 기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마는 부처님께서도 "밥 한 그릇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이 되남았느니라." 하신 뜻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는 또다시 심어져서 또 수박을 열리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또 되남아서 또 먹고 또 되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진리도 그러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온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 팔자 운명이 있고 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현재의 여러분이 과거를 짊어지고 나왔으니 지금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첫째 가져야 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데에 다시 입력이 들어간다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놓고 가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세트테이프로 노래를 듣다가 거기에다 새로운 노래를 녹음시킨다면 앞서 넣은 노래는 없어지듯이 그건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놓는 게 뭐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를 하죠. 용광로에 쇠를 넣었으면 나중에 재생되어 가는 거는 생각지 마셔야 합니다. 넣는 작업만 한다면 쇠는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있으며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팔자나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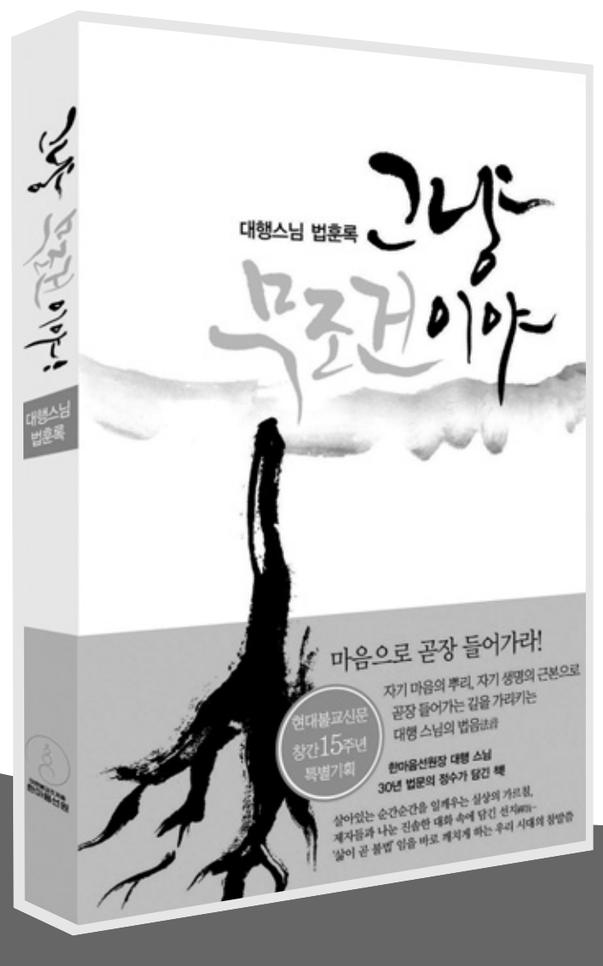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또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세 번 죽어서 사람이 돼야만이 이런 인연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나서 서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서 자기 마음이 오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누진을 통해서 모두…. 누진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따진다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를 다 책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교를 왜 불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거기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이나 오하이오 주립 대학이나 또는 뭐, 나는 아까 얘기를 하고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대학에서 선생님들 32명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북하면 이 도리에 관한 논문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나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생물학에 있어서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리가 터져서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 태어난 거지 마음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의 영력, 정신력을 길러 재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그 묘한 법이 있다는 걸 여러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요

☞ 29면에서 계속

분에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길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모두가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할 수 있는 삶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이면 3차원, 4차원이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렇게 차원대로, 지금 현실의 내가 아는 대로 죽어도 그 의식이 그냥 남아서, 요다음 생에 다시 금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때도 그 차원을 가지고 그냥 나올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농촌에서는 논꼬를 보러 가는 일이 많죠. 어느 농부가 논꼬를 보러 가다 보니까 큰 뱀 하나가 쭉 늘어져 있어서 그것을 삽으로다가 자끈자끈 찍어서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대가리가 잘라지니까 머리가 그냥 펄떡 뛰어서 삽으로 찍고 있는 사람의 가슴을 탁 치고 떨어지더니 그냥 꿈틀꿈틀하면서 죽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 농부는 정신 이상이 돼서 20년쯤 살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 집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되겠어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지금 뱀 속에 들어 있던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의식이 사람의 의식 자체를 집어먹었어! 집어먹었으니 그 뱀은 뱀대로 사람의 의식이 되고 그 사람은 그냥 뱀으로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뱀이 그 사람 전체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악에게 뺏기는 것도 있지마는 선에게 뺏기는 것도 있죠. 하지만 보세요! 이 물을 갖다가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입니다.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이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뱀에게 잡아먹히느냐, 뱀을 내가 잡아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죽였고 뱀은 그 죽는 순간에 악이, 독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독이 들어 있는 이상 그 사람을 그냥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그 뱀이 그냥 독을 주어서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사람을 빼 먹었습니다. 빼 먹었으니 그 뱀을 자끈자끈 짓이겨 죽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은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뱀이 돼서 뱀 소굴로 이끌려서 들어간 겁니다. 그 스님의 말씀이 "내일 모레면 뱀의 소굴로 들어가게 생겼네."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뱀의 소굴로 들어가서 뱀이 돼 가지고서 새끼를 낳았단 말입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았거든요. 사람 속이든 뱀 속이든 전부 오물오물하게 들어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이 수효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둥우리에다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아 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뱀이 돼 가지고 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아 놨으니 인간으로 올라오려면 얼마큼 해야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뱀 모습이 돼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면 뱀이 사는 의식을 가지고서 수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 의식, 습이, 뱀이 하는 놀음이 아주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깡패 소굴에 들어갔는데 나쁜 일을 해서 잡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인제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살아야겠다. 좀 사람답게 살아 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빠져나와도 벌써 거기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너, 와! 할 일 있어." 안 하면 죽이는 겁니다.

이렇듯이 뱀의 소굴에 들어가거나 개구리 소굴



지금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용광로에 쇠를 넣었으면 나중에 재생되어 가는 거는 생각지 마셔야 합니다.
넣는 작업만 한다면 쇠는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놓고 가라 이 소립니다.

에 들어가거나 돼지, 소, 말, 어느 짐승의 소굴에 들어가도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끼들이 많은 것은 자기 인과에 의해서 그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숫자대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대로 낳은 낱낱 새끼 속에 인과가 숫자대로 또 있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그게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한 번 잘못해서 범한 이 살생의 업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공부를 해서, 즉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참선하는 수행을 해서, 뱀을 죽인 거든지 개구리 죽인 거든지, 사람 사는 거든지, 과거에 나쁘게 했든지 좋게 했든지 전부 거기다 맡겨 놓고 걸어가라. 그래야 과거의 업보가,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의 업보가 다 녹아서 없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저 뱀 새끼 낳은 것이 다 죽고, 물로 그냥 돼 버리고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알아들어야 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근본을 잡지 않고 지금 바깥으로만, 기복으로만 좇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귀신 노릇 미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 미신이 있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하는데 왜 미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되고 인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한 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과거의 모든 것을 녹여 줄 수 있고, 또 위로는 부모의 묵은 빚을 갚게 해 줄 수 있다. 앞으로 2세들한테 햇빛을 줄 수 있는, 뿌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주인공밖엔 없다.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공한 것이 공했다는 증명도 바로 주인공만이 해 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 묘한 것은, 여러분 속에 지금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 생각에 모두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생각에 그 수많은 세포 하나하나가 따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해 나가다 보면 안에서도 파워를 일으켜요. 장에서도 파워를 일으키고 간장에서도 파워를 일으키고, 위장 콩팥 방광 이자 심장, 이런 데서 파워를 다 일으켜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걸 한마음으로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자기인데 각각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로 있고 여러분 속의 세포 생명들 하나하나가 따로 있다고 알기 때문에 누가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똥 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잠자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또 먹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이 길은 바로 끝없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죠. 그것을 그렇게 비유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렇게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뭔니까?" 하는 말이요. 그런데 나는 '서쪽으로 간 까닭은 또 무엇이냐?' 고 묻고 싶습니다.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며,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이냐? 이 선(禪)이라는 것은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 떠다 대도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자체가 개별적인 마음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한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한마음은 우주 법계를 두루 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서로 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이 앉았을 때에는 서로 도반입니다. 내가 잘나고 네가 못나고 그런 것도 없고요.

내일이 칠석이고 또 며칠 있으면 백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병고 액난이 깃들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이 용도대로 있어도 여기에서는 그걸 재료로 삼으시라고 합니다. 어떤 고통이 닥치든지 그것을 재료로 알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시라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면해 주려고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목탁이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셔서 체험을 하시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한테만 미룬다면 안 되겠어서, 보이지 않는 데 50%의 충전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충전을 해 드려야 전기가 들어와서 연구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역대의 조사, 선지식들께서 "지식으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경서를 아무리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잘 맞춰서 설명을 잘해 준다 하더라도 50% 충전이 없다면 자기를 깨닫기는 극히 어려우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맥이 이어지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력을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은 볼 수 있는데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못 보시죠? 한 찰나니까요. 그게 보이기나 합니까?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바로 선(禪)입니다. 또 우리가 광력을 쓰는 데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한 발 내려딛고서 행을 했는데 그걸 이보경계의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군수 물자를 이리 옮기기도 하고 저리 옮기기도 했다 이 소립니다. 참 어마어마한 문제지요. 그러나 그땐 그런 상황이니까, 칼, 창, 활 이런 걸로 쏘고 그렇게 하던 때니까 몸을 피해도 되고 몸이 안 보여도 쓸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물품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고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 컴퓨터로 알게 된다고 할까요? 그 레이더망에 전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물건을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세력이 센 데를 못 쓰게 만드는 것보다도 인간에게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편이 돼 줄 수 있거나, 또 상대 쪽은 상대 쪽대로 편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려면 높은 거는 낮추고 낮은 거는 높여야 이게 평등하게 된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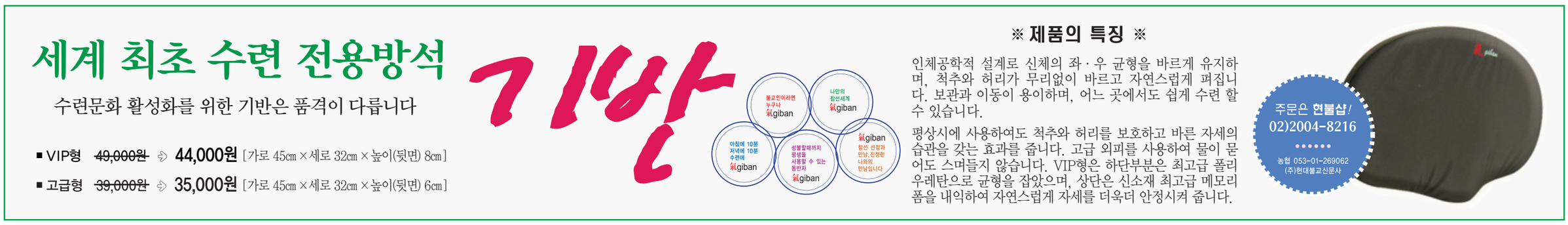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잘못 그리는 게 하나도 없고 생각을 해도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한생각이니까요. 대를 위해서 한생각으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 공부가 어마어마한 공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프면 주인공 속에서 의사가 되는 거고, 또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또 좋은 데로 못 갔으면 지장이 되는 거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되는 거고, 또 일이 생기면 산신이 되는 거고 독성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될 것 같은 의려(疑慮)가 생긴다면 바로 지신이 돼 주고 물에 가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용신이 돼 준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부처님 한생각으로 동방에 아촉을 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놨다 이 소립니다. 한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건 이름일 뿐이지 다 한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날 속아요. 여기 와서 이름이 다른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 따로 있는 줄 알고, 저기 가면 저기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한 마음의 도리가 성성하게 있는데도,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속고 가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8월 25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반값 등록금보다 능력위주 사회를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하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대체로 당장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반면, 필자와 같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근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수노조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학생이 중심이 됐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운동을 확대해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 전 정식 출범해 야당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으로 부터 시작되어 이제 전 국민의 토론장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들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비리재단 복귀 저지나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 의무교육화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소통하고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는 모두 332조6000억원이다. 이를 다 반영하면 올해 예산보다 7.6%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는 반값 등록금 예산 등 대형 사업 요구안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증가율이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모든 재원의 근원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한다면 커다란 예산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나 예산남용 등을 없애는 동시에 대학 자체 재산형성보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대학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들이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 보다는 무사안일적인 비효율적 경영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퇴출을 함으로서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반값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게 되고 이는 곧바로 고학력 청년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88만원의 최저 임금도 못 받는 청년 백수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야말로 학력 인플레가 초래한 심각한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반면, 산업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엔지니어나 기능인들은 없고 현실성 없는 대졸 고학력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전 국민을 대학으로 진학시켜야 하는지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일이다.

지나친 복지정책의 결과로 학력 인플레의 고통을 경험한 핀란드의 경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 82.8%보다 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다. 높은 교육열에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사회 풍토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여러가지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으니 대학진학률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문제점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과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기보다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접받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기능인이 되어도 충분히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고 사회적인 편견이 없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그 많은 국민이 대학을 진학하여 대졸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일단 무조건 대졸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부대중 칼럼

무더위에 빨래 말리려 난로 켜야했던 남경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태생적으로 열이 많은 필자는 여름, 특히 요즘과 같은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차라리 지겨웠던 장마가 오히려 그리워진다.

이미 방학을 해 모든 것을 다 접고 서늘한 산을 찾아 마음껏 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도 간절한 때이다. 그러나 써야 될 논문과 벌여 놓은 다양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저 컴퓨터 앞을 밤새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필자와는 정반대의 체질을 가진 집사람과 작은 딸 덕분에 집에 에어컨도 설치 못해 선풍기와 차갑게 얼린 보이차에 의지해 밤새 원고와 씨름하다가 유학시절의 폭염을 떠올려 본다.

필자가 유학했던 중국 남경(南京)의 여름은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힐 정도이다. 공식적으로 섭씨 40도 이상이면 휴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규정으로 한 여름에는 언제나 39도 이하를 예보하지만, 사실상 온도계는 항상 40도를 훨씬 넘어선다.

더욱 심한 것은 남경은 중국에서 가장 큰 강인 장강(長江; 중국의 일반인들은 양자강(楊子江)의 명칭을 잘 모름)이 관통하여 습도가 늘 80%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견디기 어렵다. 그 더위에도 빨래를 말리기 위해 전기난로를 켜야 한다면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리 더워도 한밤중에 공원 등으로 산보를 하면 상쾌함을 맛보지만, 한 여름의 남경은 한밤중에도 밖에 나가는 순간 숨이 탁 막혀버린다. 남경이 중국 '3대 화로(火爐)'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그래서 남경에서는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남경의 한여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유학생들은 대부분 귀국하지만, 필자는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그 무더운 여름을 몇 차례 보냈다.

장학금의 혜택이 전혀 없는 중국 유학은 시간이 그대로 돈이라는 인식으로 가급적 유학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필자가 머물던 숙소에도 에어컨이 있었지만, 지나친 더위는 용량이 너무 적은 탓인지 겨우 땀을 멈추게 할 뿐, 결코 충분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지는 못했다.

대신에 냉장고는 직접 큼직한 것으로 구입하여 냉동실에 항상 보이차나 오룡차를 여러 통에 담아 얼려놓고 그를 마시며 더위를 견뎠는데, 지금도 여름에는 항상 차를 얼려 마시는 습관을 갖게 하였다.

한번은 그 무더운 한여름에 북경에서 유학하던 후배가 남경을 구경하겠다고 청해 극구 반대했지만, 기어이 남경에 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배는 남경의 폭염에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여름날에 남경은 오지 않겠다는 맹서를 하고서 북경으로 돌아갔다. 북경도 여름에 상당히 덥지만 남경과는 달리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비슷한 온도라도 체감온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새벽녘에 이른 지금은 이미 더위는 사라지고 창문을 통해 선선한 바람이 밀려들어온다. 남경의 여름에서는 새벽녘에 오히려 더욱 더워짐을 경험했던 터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름은 남경에 비한다면 차라리 애교의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미 한국에 귀국한 지도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경에서의 여름은 아직도 숨이 막히는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새벽까지 쓰던 논문이 바로 8월중에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장사(長沙)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것이다.

주관학회에서 보내온 일정표에는 모택동(毛澤東)의 고향인 소산(韶山)의 참관도 잡혀 있어 사뭇 기대되지만, 남경의 더위를 떠올리면 은근히 걱정이 된다. 장사 역시 남경 못지않게 덥다는 중국친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우천월(吳牛喘月)'의 성어(成語)가 떠오른다. 여기에서의 '오우(吳牛)'는 바로 남경지역에서 사는 물소를 뜻하는데, 남경의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태양과 비슷한 달을 보고도 숨차한다는 의미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보아도 놀란다'는 우리의 속담과 유사한 말이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 남경의 폭염이 애틋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얼음차를 마셔가며 온 마음으로 책을 보았던 그 시절이 너무도 행복했기 때문이다.

社說

서산 대사 선양의 당위성

서산 대사는 사명 · 처영 대사와 함께 호국의 삼승(三僧)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와 민족을 구한 장본인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통제사였지만 서산 대사는 '팔도' 십육종도총섭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대사의 활약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또, 조계종 스님들이 모두 서산 대사의 문하라 할 만큼 조선시대 불교 법맥을 잇는 중요한 선지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산 대사의 선양은 일본 강점기에 맥이 끊긴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서산 대사를 '제자 사명 대사와 함께 적진을 수차례 넘나들며 신통술을 부리던 스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000여 무명의 승군이 활약했지만 대부분 승군의 활약은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TV프로그램 '불멸의 이순신'이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해남 대흥사 주지에 재임한 범각 스님이 지난 주지임기에 이어 서산 대사 선양사업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출간된 소설 〈서산 대사〉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옛 선인을 선양함은 현세의 이득을 취함이 아니라 후대에 귀감이 되기 위함이다. 호국의 주인공을 선양함은 불자 · 비불자를 초월해 후손으로서의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7월 13일, 일간지에는 버락 오마마 대통령이 한 상이군인과 악수하는 사진이 대서특필됐다. 상이군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를 구하려 몸을 던졌다가 팔을 잃고 의수를 하게 된 아서 페트리 상사. 아서 페트리 상사에게 최고 명예 훈장인 영광의 메달(Medal of Honor)을 수여했다.

2011년 오늘, 우리는 사명 대사와 5000여 무명의 승군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분을 다하는 출·재가여야

7월 20일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일문 스님은 "스님들이 결정권을 갖고 불교계의 모든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직접 수익사업에 뛰어든 조계종 총무원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총무원이 직접 나서서 수고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으라는 조언이다.

이 같은 관념의 기저에는 한국불교계에 만연한 삐뚤어진 보시행이 존재한다. '부처님일'이라며 재가자에게 일을 시키고는 보시 개념으로 환산(?)해 버리는 경우가 그것이다. 세속의 금전 출납을 초월해 무형의 복전(福田)에 빗댄 셈법이 횡행하다보니,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직접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의 개선을 위해서는 토론자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역할의 재분배에 우선해 교단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하 수직관계로 고착된 출가 · 재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피상적인 역할의 분배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 우선해야 한다.

제33대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소통과 화합'이 사부대중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러려면 상호 신뢰가 우선해야 하고, 서로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 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癥(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상상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ISO 제조업체등록, 공정거래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근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녀래를 찾으사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남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되었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왕치료는 기쁨을 맛 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 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 하였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 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 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시라고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떨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추문해주신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